

제 4 편

교육종교

辭令書

李鍾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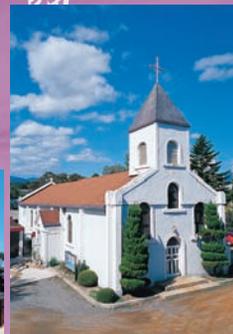
右人以本校의 第二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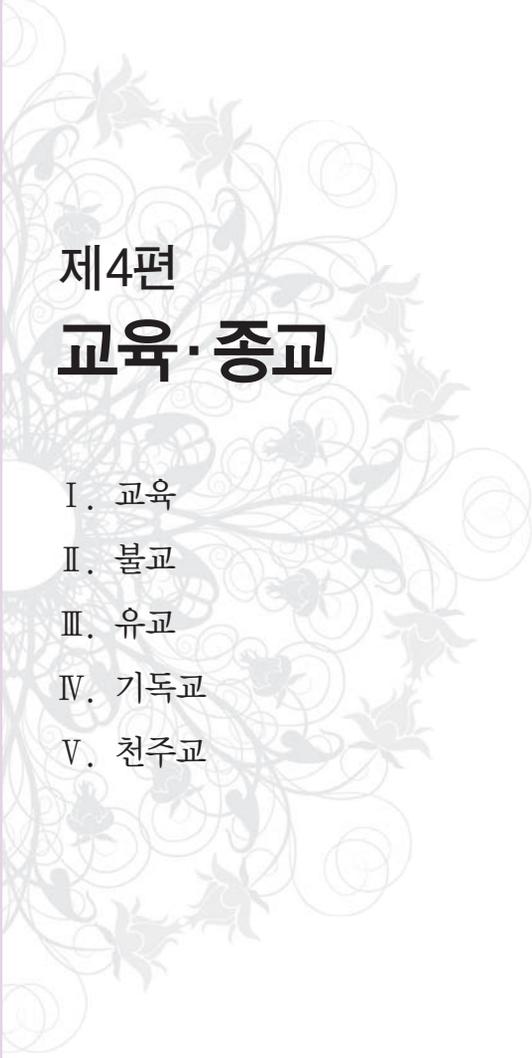
卒業會의 任山面二山書堂

授業을 기념 証書

隆熙四年二月十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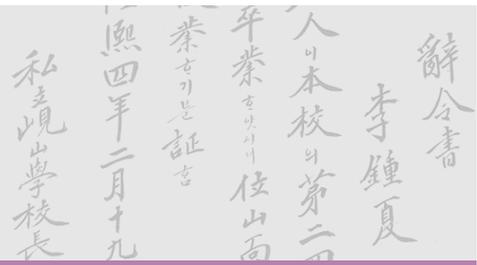
私峴山學校長盧德秀





제4편 교육·종교

- I. 교육
- II. 불교
- III. 유교
- IV. 기독교
- V. 천주교



I. 교육

1.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1) 삼국~고려 시대

인류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초기의 교육은 일상생활·의식행사 등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차 고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제도화된 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삼국시대부터였다. 고구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형식적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태학(太學)이 소수림왕 2년(372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일종의 사립학교인 경당(局堂)이 있었다. 그리고 백제에는 교육기관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일찍부터 오경박사(五經博士)가 있었던 사실에서 태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라는 삼국통일의 근간이 된 화랑도(花郎道)에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에는 국학(國學)을 신문왕대에 설립하였는데 경덕왕대(景德王代)에 이를 태학으로 개칭하였다가 혜공왕대(惠恭王代)에 다시 국학으로 고쳤다. 기원전 6000년 전의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견되고 삼국시대 초기에는 고구려에 속했다가 후기에는 신라에 속했던 양양의 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고구려와 신라의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역사적 기록이 없어 당시의 교육기관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의 교육은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으로 구분된다. 관학은 개성의 국자감(國子監)과 동서학당(東西學堂), 오부학당(五部學堂)과 지방에 향교(鄕校) 등이 있었다. 반면에 사학은 12공도(十二公徒)와 서당·서사(書社) 등이 있었다. 양양향교는 고려 충숙

왕(忠肅王) 17년(1330년) 5월에 강릉도 존무사(江陵道 存撫使)로 임명된 안축(安軸)에 의해 설립되었다. 안축은 그의 <양양신학기문(襄陽新學記文)>에서 양양지방은 오랑캐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변란을 겪음으로서 향교를 지을 겨를이 없었다고 슬회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간의 방백들이 흥학(興學)에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교의 창건을 역설하였다. 이에 안축은 양양지방의 향로(鄕老)들과 향교의 창건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문선왕동(文宣王洞)이 옛 학교의 터였음을 향로들로부터 전해들은 안축이 그곳을 향교의 건립지로 설정함으로서 향교 창건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었다. 안 존무사는 충숙왕 17년(1330년) 통주수정랑 진군(通州守正郎 陳君)에게 병부(兵符)를 내려 그 공역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이 시기에 정랑 박군(朴君)이 양양태수(襄陽太守)로 부임함으로써 양양향교의 창건은 양자간 협조로 추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후임으로 오는 군자(君子)에게 제도의 소루(小累)함과 사공(事功)이 모자람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안축선생의 양양신학기문(文)

2)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에 관학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4부학당, 지방에 향교를 두었다. 조선 중기 이래의 사학 중에서 서원·서당은 주요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도(門徒)는 정치세력화로 이어졌다.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서원과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었고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었다.

(1) 향교

양양지방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향교, 서원 그리고 서당을 들 수 있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설립되어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관심 속에 주·부·군·현의 대부분에 설립하여 지방교육의 부흥을 가져왔다. 성리학에 입각한 새로운 지배이념을 교육을 통하여 보급·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령의 치적 중 흥학(興學)은 향교를 비롯한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통한 교화(教化)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향교의 교육관은 교수와 훈도(訓導), 학장(學長 또는 訓長)의 3종이 있었다. 도호부(都護部) 이상에는 모두 교관이 있었으나, 군·현에는 교수 또는 훈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500호 미만의 소읍에는 훈장을 두었다. 교과목은 소학(小學), 사서(四書), 오경(五經) 등을 위주로 삼강행실(三綱行實) 등 예의와 관련된 생활규범을 교과목으로 추가 하였다. 향교는 향음례(鄉飲禮), 향사례(鄉射禮)등을 통한 경로 정신 고취와 예의범절의 실천적인 수행을 포폄(褒貶) 함으로서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기관이었다. 향촌 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 질수 있었다.

그런데 고려 충숙왕(忠肅王) 17년(1330년)에 설립된 양양향교의 변천과정을 보면, 원래는 양양면 구교리에 설립되었으나, 조선 인조 4년(1626년)에 학사(學舍)로서는 너무 협소하여 확장과 함께 중수하였고, 숙종 8년(1682년)에 양양부사 최상익(崔商翼)과 진사 최상은(崔相殷), 박호(朴灝) 등의 주도로 현재의 위치인 임천리로 이건(移建)하였다. 아울러 도유사(都有司) 1인, 장의(掌議) 2인, 유사(有司) 2인을 두어 직제를 정비하였으며, 교생(校生) 70명을 정액하고 전답 7결을 지급하여 그 운영의 자원으로 삼게 하였다.

이 시기의 양양향교는 대성전(大成殿) 9칸, 동서(東西) 각 6칸, 신문(神門) 7칸, 전사청(奠祀廳) 3칸, 동서재(東西齋) 각 4칸, 명륜당(明倫堂) 14칸, 제기고(祭器庫) 1칸, 서적고(書籍庫) 1칸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정조 6년(1782년) 양양부사 이진항(李鎭恒)이 둔전동(屯田洞) 주철소(鑄鐵所)를 교궁(校宮)에 두었다.

(2) 서원(書院)

사립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동명서원(東溟書院)이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해 있다. 동명서원은 조선 인조 6년(1628년)에 건립되었다. 당시 양양도호부사 조위한(趙緯韓)은 흥학(興學)에 뜻을 두고 그 방안을 강구하던 중 대포영의 군용건물이 방치되어 장차 헐리게 될 것을 발견하고 이곳을 학사로 전용토록 하였으며, 이것이 서원이 건립되는 단초가 되었다.

서원 건립을 위해 승모의 상징이 될 선현으로 정언(正言)을 지낸 노경복(盧景福)과 사림(士林) 최정립, 이현일 등이 향론(鄉論)으로 양열공(襄烈公) 조인벽(趙仁璧)을 추천하였으며, 이에 조부사의 협조로 강당 뒤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충현사라 명명하고 조인벽을 봉향하였으며 동명서원으로 현판하였다. 아울러 부사 조위한은 전답과 소금 굶는 가마와 어선 한척을 지급하여 전속시켜 서원의 운영에 협조하였다.

조인벽은 이 지역의 문향을 열은 인물로 평가되는데 따라 봉사(奉祀) 되게 되었다. 조인벽은 고려말엽에 양양으로 낙향하였다. 본관은 한양으로 중국에서 귀화하였다고 하는 조원수(趙元壽)의 5세손(世孫)이다. 그는 여말 충목왕(忠穆王)대 이래로 흥건적의 퇴치와 왜구의 격퇴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무관이었으며, 아울러 학문과 덕망을 갖춘 문인이었다. 조인벽은 사도도휘사(四道都揮使)를 거쳐 판의덕부사(判懿德府使)를 역임하였으며, 그의 처남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도 가담하였다. 그의 봉작(封爵)은 순성익위협찬보리공신삼중대광용원부원군(純誠翊衛協贊輔理功臣三重大匡龍源府院君)이었다.

조인벽은 이처럼 고려말 신진세력의 중심부에 있었으나 이후 신진세력이 분열하면서 그는 양양으로 낙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인벽은 양양으로 낙향한 후 이곳에 매월정(海月亭)을 짓고 산수간을 소요하면서 대자연과 함께 시예(詩藝)로 소일하였으며, 후진을 양성하면서 학문과 도덕을 일깨워 이 지방의 풍속순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여러 유생들과 강학을 즐겼으며, 월촌(月村) 정만(鄭慢)과 강해(江海) 이장년(李長年) 그리고 도사(道師) 혜선(慧禪) 등과 시우(詩友)를 지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명서원이 창건된 이후 얼마 안 되어 양열공의 넷째 아들 조사(趙師)가 배향되었다.

조사는 정몽주의 문인으로서 양열공을 따라 낙향하여 지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양열공의 사후에는 치악산 가치천(嘉致川) 근처의 원유석과 교유하였다. 조사는 사적으로 이태조의 생질이었던 관계로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僉知中樞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고려조에 대한 절의를 보였으며, 이에 후인의 사표가 되었음으로 배향될 수 있었다.

동명서원은 이후 그 연대는 확인되지 않으나 소실되었으며, 재력의 부족으로 복구되지 못하였다가 정조 10년(1786년)에 순흥와란(順興臥蘭)으로 옮겨져 재건되었다. 와란(臥蘭)은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로 당시 봉화의 송모 상징인 조정(趙貞)이 추배(追配)되었다. 조정은 조인벽의 6세손으로 정암 조광조의 문인이다.

고종 8년(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동명서원은 철폐되었다. 이후 광무 2년(1898년)에 강원도관찰사 조종필(趙鐘弼)이 동명서원을 창건하였던 조산리 옛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고현(古賢)의 유덕을 기리었으나 이마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훼손(毀撤)되었다. 이에 서원의 구적(舊蹟)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향론(鄉論)을 모은 양양지방의 유림들에 의해 1974년 동명서원 복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역사를 추진하였다. 재력의 부족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79년 양양지방 유림과 한양 조씨(漢陽 趙氏) 문중이 중심이 되어 복원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를 진행하여 1982년에 사당과 강당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1982년 5월 2일 지방의 유림과 후손들이 위패 봉안 위원회를 조직하여 와란시대(臥蘭時代) 동명서원 구현관을 인수받아 현관하고 양열공 조인벽 선생과 가천재공(嘉川齋公) 조사 선생의 봉안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지금도 매년 3월 둘째 정일(丁日)을 택하여 제례를 봉향하고 매월 삭망에 분향례를 행하고 있다.

현재 서원은 “충현사(忠賢祠)”라는 현관이 게시된 위패를 모신 사당과 그 좌측으로 1982년 성균관 충무처장 박중훈이 식(識)한 “동명서원봉안문(東溟書院奉安文)”과 동년에 후손 중형(中衡)이 찬(撰)한 “동명서원중창기”가 계판된 재실(齋室)이 배열되어 있으며, 전면에 솟을 대문을 중심으로 회벽에 돌로 구성한 담장이 서원을 에워싸고 있다. 서원의 입구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솟을 대문앞 좌측에는 1899년에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趙鐘弼)이 식(識)하고 대구판관(大邱判官) 정학교(丁學教)가 서(書)한 “동명서원

유허비(東溟書院遺墟碑)와 1982년에 건립한 “동명서원중창기념비(東溟書院重創記念碑)”가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동명서원의 생도의 수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05년 4월 4일 발생한 양양 산불로 인해 사당이 화재를 입어 2010년 6월 현재 사당 중건 작업이 완료되고 양양군의 지원을 받아 주변환경 및 조경을 완료하였다.

(3) 서당(書堂)

서당은 글방, 서방, 책방, 서재 등으로 불리어졌다. 서당은 우리나라의 전통교육기관들 중에서 일반국민에게 가장 친밀성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각 지방의 마을마다 있다시피 하였다. 서당이 국민들에게 친밀성을 가지게 된 것은 서당이 오랫동안 서민들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당은 근대학교가 등장할 때까지 향촌 일반인들을 교육하는데 기반을 두어 촌락을 근거로 꾸준히 교육적 영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당은 특히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해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지키는 교육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향촌의 부족한 초등교육의 수요를 보완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빈곤한 가정의 초등교육 이후의 일시적인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까지 하였다.

양양지방에는 양양읍 서문리에 숙종 17년(1691년) 현수(峴叟) 이휘진[(李彙晉) 동부승지]이 세운 건계서당(建溪書堂) 서북방 1km 지점]과 1758년(戊寅)에 조산리에 부후이현경(府侯 李獻慶)이 세운 몽산서당(蒙山書堂) 1759년 명명, 동방 4km 지점], 그리고 손양면 송전리에 있던 한동서당[(漢東書堂) 동남방 4km 지점]이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수의 서당이 마을 마다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양양지방의 인재들이 과거시험에 다수 합격한 것을 들 수 있다. 세종 6년(1423년)에 이세문이 계방(桂榜)문과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고종 31년(1893년)에 이석재의 합격까지 22명이 합격하였다. 또 연방(蓮榜) 소과(小科)에도 이세문이 태종 15년(1414년)에 합

격하였고 그 아들 이승복이 합격하는 등 조선시대에 90명의 진사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무과(武科)에도 이승조(李承祚) 경상좌병마절도사를 시작으로 고종 13년(1875년)까지 41명이 호방으로 합격하였다. 특히 김기중(金起宗)은 1615년에 진사가 된 후 1618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인조 2년(1624년) 이괄의 난 때 2등 공신이 되어 이름을 날렸다. 이와 같은 급제자의 배출은 이 지방에서 서원, 향교를 비롯한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이 되는 서당 교육도 활발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대의 양양지방 서당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교육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서당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교육내용과 같이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 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독의 교재는 기초적인 교재인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절요(統監節要)』 및 사서삼경(四書三經)과 부교재격인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률(唐律)』 등이었는데 대개는 『통감절요(統監節要)』 정도에서 그쳤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동몽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서당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제술로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사율, 고풍, 십팔구시 및 작문 등이 있었는데, 훈장의 자질에 따라 제술이 전혀 제외된 곳도 있었다. 습자는 해서를 위주로 하였으나 학습 정도의 진전에 따라 행, 초서체를 익히기도 하였는데 이는 훗날 편지글을 익히려는 실용적인 의도에서이다. 첫째, 강독은 한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서당의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었다. 즉 강독은 석음(釋音)과 음독(音讀)을 반복암송 시키고 문장을 혼자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강독의 교재로는 서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천자문(千字文)』과 『동몽선습(童蒙先習)』 그리고 『명심보감(明心寶鑑)』과 『소학(小學)』이 핵심교재였으며,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 등 사서삼경(四書三經)이 교재로 쓰였다. 이같은 서당 강독의 교과목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학습순서는 『천자문』 → 『동몽선습』 → 『명심보감』 → 『소학』 →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 → 『시경』 → 『서경』 → 『주역』의 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는 『소학』 정도에서 그쳤다. 둘째, 제술은 서(書)·기(記)·발(跋)·제문(祭文)·소첩(訴牒)·시(詩)·부(賦) 등을 저술하는 것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는 주로 시문(詩文)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제술 학습의 교재는 『당음(唐音)』·『연주시(聯珠詩)』·『고문진보(古文眞寶)』·『두율(杜律)』 등이었으며, 교재 속의 시문을 낭송하는 한편 실제로 시를 짓는 훈련을 쌓았다. 전체적으로는 오언절구(五言絕句)·칠언절구(七言絕句)·사율(四律)과 고풍(古風)의 십팔구시(十八句詩)·작문(作文) 등이 보통이고, 서당과 훈장의 품위에 따라서 각종 문체를 연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서당에서는 전혀 제술을 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제술은 평소에는 여가를 이용하여 학습하였으나, 주로 여름철에 행해지는 문예수업이 중심이 되었고 이것을 하과(夏課)라고 하였다.

제술을 배우는 단계는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등의 초보적 단계를 지나서 천고당음(天高唐音) 등의 시문을 배우게 될 때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인 행사로서 이루어진 시작(詩作)은 시회(詩會)·기낭송회(記朗誦會)·경시회(競詩會) 등이 있고, 규모가 큰 것으로는 경시대회(競詩大會)·백일장(白日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유학자들은 제술이 성장하는 학생에게 글자를 더 많이 익히고 나아가 그들의 안목을 넓히고 심지를 굳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술활동은 고인(古人)의 시풍(詩風)과 풍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로 근대까지도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 등을 통하여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셋째, 습자는 서당교육의 중요한 과목의 하나였다. 처음에는 해서(楷書)를 많이 연습시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행서(行書), 초서(草書)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당에서의 습자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보다 문자이해를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습자의 평가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 평가하였다. 그 횟수는 규모가 큰 전시회는 연 2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주년 또는 2주년에 한 번씩 작은 전시회를 가진 서당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강독보다 습자시간이 훨씬 적었다. 왜냐하면 경제적 사정이 빈약하였기에 강독보다 돈이 많이 드는 습자는 학동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넷째, 기타 교육내용으로 서당에서는 위의 정규적인 과정인 강독, 제술, 습자 이외에 여가로 배우는 것이 있었는데, 육갑(六甲)·구구법(九九法) 산수·고을모듬(지명)·성모듬[(姓)모듬 : 姓氏]·관혼상제·세계(世系)·국호(國號) 등이 그것이다. 서당에서 이러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당시 봉건사회에서의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성원으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다하여 예절바른 생활을 하도록 교육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 근대교육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근대교육의 시작은 개화정책에 따른 외교·통상관계상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였다. 정부는 고종 20년(1883년)에 통역관 양성을 위해 동문관(同文館)과 근대적인 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園)을 고종 23년(1886년)에 각각 설립하였다.

한편 갑오개혁은 근대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정부는 육조(六曹)를 개편하여 아문관제(衙門官制)를 채택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학무아문(學務衙門)을 설치하였다. 1895년 2월에는 근대교육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교육조서(教育詔書)”를 반포하였다. 이어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관제”, “중학교관제”, “외국어학교관제”, “의학고관제” 등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신학제에 의한 근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소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의 심상과와 2~3년의 고등과로 구분되었고 입학자격은 만7세에서 15세까지 8년간이었다. 다만, 공립학교는 지방의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관의 판단에 위임하였다.

양양지역의 근대교육 기관으로는 1906년 7월 20일에 개교한 현산학교와 각 마을마다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서당과 개량서당을 들 수 있다.

1) 현산학교의 설립

정부에서는 1895년 7월 17일 소학교령을 공포하고 그 이듬해인 1896년에 강원도 춘천, 강릉, 원주에 공립소학교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소학교령을 공포한지 3년 후인 고종 36년(1898년) 무술 신춘에 정부로부터 양양에 공립소학교를 특설하라는 훈령이 내려오자 이를 반대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또 반대운동이 치열하였고, 재력도 부족하

여 광무 8년 갑진(1904년)에 군내 인사 이교필(李教弼)이 향교재산으로 소학교를 설립하고자 학부허가를 받으려고 주선하다가 유림들의 반대투쟁으로 이를 중지하고 동년 7월 군내 인사 이항렬(李恒烈), 최영삼(崔永杉) 등 두 사람이 향교소유인 학전(學田)과 기타 재산으로 소학교설립의 청원을 학부에 제출하여 특허로 훈령을 내렸다.

동년 8월에 전 군내 유림들이 향교에서 회동하고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이항렬, 최영삼(崔永杉)을 억지로 동행케 하여 부위[부사가 근무하는 동헌]에 벌하여 줄 것을 소청하였다. 이에 군수 김흥기 역시 자천(恣擅)이 불가능하므로 학교설립 청원자 이항렬에게 허가취소원서에 강제로 날인케 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정현동(鄭顯東), 노병익(盧炳翼), 이두재(李斗在)는 이를 반대하려고 상경하였다.

동년 12월 정현동 외 2인이 의정부에 제소하여 5인을 처벌하고, 출유삭적(出儒削籍)하였다. 이것은 곧 학전을 침식하려는 선비행세를 배반한 것이라 하였다. 이후 광무 9년 을사(1905년) 4월에 학교를 설립하라는 학부훈령이 수차 시달되었으나 근근히 모면하였다.

광무 10년 병오(1906년) 정월에 구관 김흥기는 서거하고 신관 남궁억(南宮億)이 부임하여 2월에 소학교 설립문제를 군민대표들을 소집하여 향회(鄉會)를 개최하고 협의한 결과 반대론과 변재안(辨財案)이 곤란함으로 수향(首鄉)과 통유(通儒)들로 하여금 재정을 조달하려하였으나 통유들이 문제를 거부함으로 유림들이 향교에 모여 대회를 열고 각 종계(宗契)와 각 서당계(書堂契)에서 1,000환(당시 화폐가치)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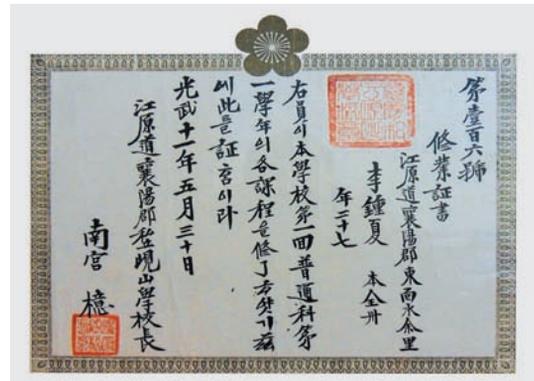
동년 4월에 9개 면에 거주하는 부요민(富饒民)을 태평루(太平樓)[현 군청사 뒤 고목이 있는 정상에 있었음]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였다. 그리고 연회가 파할 무렵 그 자리에서 소학교 설립 보조금 3,000환(당시 화폐가치)을 모금하였고, 이 때 향장(鄉長)은 폐지하게 되었다. 향청(鄉廳)에 남아 있는 재산을 합하고, 유림들이 번 돈 만량을 합하여 4,000환(당시 화폐 가치)으로 현산학교를 건립하였는데 재력과 그 내용이 충실하여 전 도내에서 제일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양양지역의 유일한 근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1906년 8월 17일에 고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현산학교작흥하양양인사(聞峴山學校作興襄陽人士)에 의하면 현산학교가 설립된지 두 달이 되지 않아 원근의 학도가 일

시에 운집하여 이미 200여 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는 강릉, 간성, 삼척 등에서 오는 학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연조금이 합하여 3만여 량[당시 화폐로 3천환]이고 향교에서 보내주는 벼가 일백석이고 의연금을 보내주는 자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남궁억은 현산학교에 상당한 열정을 쏟았다. 그는 근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려는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각 가정에서 한 명씩의 자제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궁억의 노력으로 1906년 7월 20일 현산학교 개교식에는 200명의 학생이 모였다. 현산학교에서는 무상으로 공책과 연필을 공급하였고 교과서를 깨끗이 사용한 학생에게 상을 주어, 다음 학년생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현산학교의 교사는 4명이었으며 교과목은 8과목을 가르쳤다. 즉, 남궁억은 영어와 음악, 정우용이 산수와 역사, 김홍식이 일어와 체조, 이흥영이 국문과 한문을 가르쳤다.

남궁억은 1907년 양양군수직을 사직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양양을 떠나면서 현산학교 설립시 반대했던 정현동을 현산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현산학교가 오늘날 양양초등학교와 양양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된다.



남궁억 군수가 수여한 현산학교 수업증서

융희 1년(1907년) 순종 원년(丁未) 4월에 의병이라고 자칭하는 민공호, 이강년, 박장호, 주광신, 한갑복 등 의병들이 본부부위(府衛) 현 군청]를 점령하고, 현산학교를 소진시켜 버렸다.

2) 신학서당과 서당교육

1919년 3·1운동 이후 근대적 신교육을 도입한 개량서당 또는 신학서당이 크게 대두함으로써 서당교육은 그 형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성격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과 근대식 서구 교육의 전개, 그리고 일제에 대한 민족의 반항운동과 민중 교육열 등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의 복잡한 사정 하에서 서

당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옛 형태를 유지하는 재래식인 구식서당과 새로운 시대성을 반영하여 개편된 개량서당으로 대별된다.

그 가운데 개량서당은 당시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량서당은 본질적으로 구식서당과는 다른 것으로 근대교육의 교과를 도입 설정하고, 그 설립목적도 민중교화에 두었으며,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지도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개량서당은 근대적 초등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 재래의 구식서당은 그 전통과 보수성을 유지함으로써 일제에 항거하였고, 수많은 아동을 교육하여 초등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

양양지역에서는 융희 2년(1908년) 무신(戊申) 9월에 최종락이 군수로 부임하여 10월 10일에 현산학교를 다시 건립하고, 각 면 각 촌에 신학서당을 설치하고 각 마을마다 야간학교를 개설하여 현산학교와 같이 한문과 신학문도 가르쳤다. 민족지도자들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신학문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학서당 또는 개량서숙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한문만 가르치던 서당이 한문 외에 국문, 산술, 체육, 일본어도 가르치고 교과별로 별도의 교사도 있었다. 그러나 1911년에 현산학교가 양양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고 '1면 1교' 정책에 따라 양양, 대포를 비롯하여 인구, 속초, 천진 등에도 보통학교가 증설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신식학교로 가게 됨에 따라 서당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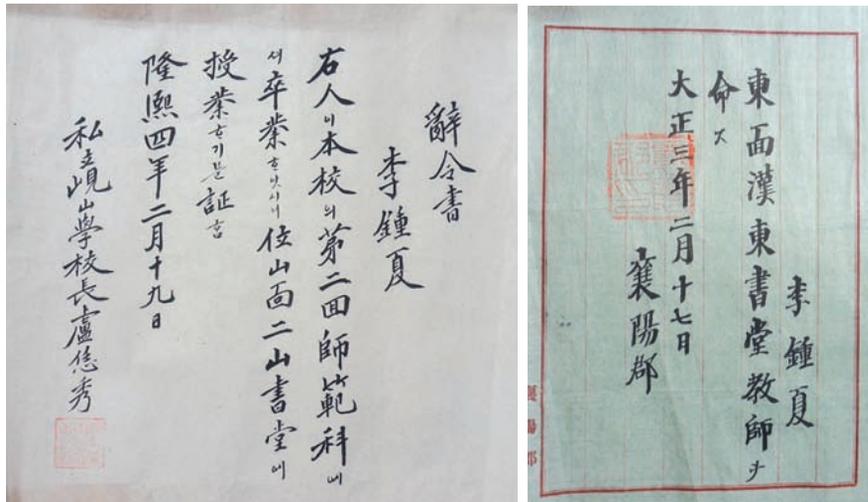
당시 양양지역에 있었던 신학서당은 고려말의 서당과 조선시대의 서당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상에 남아있는 이들 서당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네서당

양양군 현남면 죽리에 소재했으며 창설 연도는 알 수 없고 매년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훈장의 임기는 최소한 1년을 보장하였다. 폐설 연도는 1925년경이었다. 폐설 이유는 일본경찰이 서당을 폐쇄하도록 훈장을 협박하였고 학동들도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학동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학동 수는 보통 15~16명이었으며 어린 학동은 7세에서 20세 이상인 남자로 상투를 틀고 장가를 든 성년도 있었다. 훈장을 지낸 사람은 이용규(李容奎)와 최계천(崔係阡) 등이 있었고 수학자로는 정성철 등이 있었다.

(2) 한동서당(漢東書堂)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에 소재 했으며 창설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920년경에 양양지방에서 일제에 대한 항거운동이 가장 활발할 때 일본 경찰이 강제로 폐쇄시켰다. 수학자로는 김달석과 독립운동가인 노병례(1903~1994년) 등이 있다. 훈장으로는 최재기(崔在箕)와 이종하(李鐘夏) 등이 있었다.



이종하선생 이산·한동서당 훈장 사령장

(3) 죽정재(竹亭齋)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에서 학동의 집 사랑방을 빌려 한 달씩 옮겨 가며 운영하였다. 창설연대는 알 수 없으나 폐설 연대는 1929년경이다. 폐설 이유는 일제가 공립학교를 제외한 사립교육기관을 폐쇄하는 정책을 썼으며 학생들이 공립보통학교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수학자로는 정성각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는 최종렬, 최준식 등이 있었다.

(4) 석천서당(石泉書堂)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폐설 연도는 1930년경이다. 수학자는 양태석, 최완수, 이종현, 김동욱, 이일재, 김성내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 김용재와 김동우 등이 있었다.

(5) 금계서당(錦溪書堂)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옛 지명 양양군 부남면 금계리)에 김용주의 조부 김종억이 주동이 되어 중중(문중) 자본으로 1910년경에 설립하여 1930년경에 폐설되었다. 폐설 이유는 일본경찰이 서당을 찾아와 훈장에게 위협을 하였고 면서기들은 학동들에게 양양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도록 종용하여 대부분의 학동들이 공립보통학교로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6) 대성학당(大成學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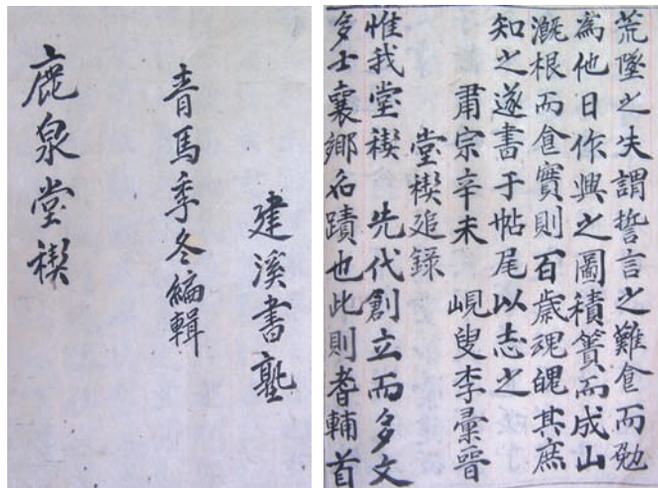
양양군 현북면 상촌마을(현 상광정리 마을 회관부근)에 있었다. 개량서당으로 창설 연대는 1923년경이고 폐설 연대는 1936년경이다. 폐설 이유는 병자년(1936년) 수해 때 서당이 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이다. 개량서당 수학자로는 황낙기, 이상록, 이강수, 이상설, 이병재, 이강숙 등이 있다. 특히 이강숙은 여자 학동이었다. 개량서당 훈장으로 이상면(李相冕), 황철정 등이 있었다.

(7) 잔교리 한문서당

당시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있었다. 창설 연대는 1923년경이고 폐설 연대는 1936년경이다. 그리고 한문서당 수학자로는 김창호, 이상원, 이상록, 김근호, 황낙기 등이 있다. 훈장으로 김동현, 오세직 등이 있었다.

(8) 건계서숙(建溪書塾)

조선 숙종 신미년(1691년)에 이시행의 7대조 이휘진(李彙晉)이 양양 임천에 설립하였다. 340여 연간 존속하다가 일본의 서당 폐쇄정책에 의해 1940년경에 폐쇄되었다. 서당 수학자들이 녹천 서당계(鹿泉 書堂契)를



이휘진 선생 건계서숙 녹천당계첩

조직하였는데 이 계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9) 쌍천서숙(雙川書塾)

양양군 도천면(현 속초시 설악동 중도문 마을 회관자리)에 있었다. 조선초부터 있었으나 창설연대는 미상이며 1937년경에 폐설되었다. 폐설 이유는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면서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배일정신을 가르친다고 하여 일본 순사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 서당이 폐쇄되고 대신 상도문에 「간이학교」가 개설되었다. 여기서 3년을 다니면 공립보통학교 6년 졸업학력을 인정하였다. 이시행 등이 수학하였으며 이종인, 김영경 등의 훈장이 있었다.

(10) 안말서당

양양군 서면 상평리 안말에 있었다. 창설연대는 미상이며 현재 건물은 없고 빈터만 남아 있다. 8·15광복직전인 1944년에 폐설되었으며 그 이유는 일본순사가 와서 서당을 못하도록 계속 협박하였다. 심지어 훈장의 상투를 강제로 자르기도 하였다. 수학자로는 김을제, 전석진, 마세영, 김용성, 전구화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는 김상필이 있었다.

(11) 봉암서당(鳳岩書堂)

양양군 현북면 도리에 있었으며 동네 앞산의 이름이 봉암산이어서 서당이름을 봉암서당이라 하였다. 창설 연대는 미상이나 1938년도에 폐설되었는데 그 이유는 훈장 최명식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갔고, 면사무소에서 서당을 폐쇄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수학자로는 최선제, 이종성, 노재희 등이 있었으며 훈장으로는 이교진, 노재철, 최명식 등이 있었다.

(12) 건너말 서당

양양군 서면 상평리 건너 마을에 있었으며 창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35년경 다니던 학동이 대부분 보통학교로 진학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1936년 병자년 수해로 집과 집터까지 휩쓸려 내려가 지금은 서당의 자리가 논이 되었다. 수학자로는 김동우, 김

태환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는 김동환이 있었다.

(13) 금강서당(金崗書堂)

양양군 손양면 수여리에 있었으며 서당이 금강고개 밑에 있었기에 금강서당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창설연도는 1926년이고 폐설 연도는 광복직전인 1944년이다. 수학자로는 이상춘, 이곤형, 함근호, 고찬세, 이상은, 고경재 등이 있다. 훈장으로는 이교진이 있었다.

(14) 복천서당(福泉書堂)

양양군 강현면 하북리에 있었다. 수학자로는 김용직, 김창배 등과 강현면 강선리와 장산리의 수학생들이 있었으며 훈장으로 김종석이 있었다. 창설 연대는 미상이며 1943년경 학동들이 신학교로 진학하여 학동수가 줄게 되어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15) 송암리 한문서당

양양읍 송암리 기차역 앞에 있고 창설 연도는 1945년이었으며 폐쇄 연도는 1948년도였다. 수학자로는 김봉남이 있고 훈장으로 최석림이 있었다.

(16) 대골서당

양양군 현남면 죽리에 있었다. 창설 연도는 알 수 없으나 6·25한국전쟁 직전까지 존속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학동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폐설되었다. 수학자로는 김주남이 있고 훈장은 황선생이 있었다.

(17) 석천서재(石泉書齋)

양양군 도문동(현 속초시 도문동)에 있었으며 육모정(梅谷 선생이 지었다고 함)옆 개울가에 있었다. 서당의 창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폐설 연대는 1966년 말이었다. 폐설 이유는 훈장이 강현면 적은리에 서당을 새로 개설하여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훈장은 김남한이 있었으며 수학자로 박용대가 있었다.

(18) 가평서당(柯坪書堂)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에 있었으며 창설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제강점기에 휴업을 하였다가 광복 후 다시 재개하였다. 1967년경에 문을 닫을 때까지 7세~22세까지 30여 명의 수학자가 양양에서는 최후의 서당수학자로 짐작되며 훈장은 가산 손봉집(嘉山 孫鳳集) 선생이다. 마지막으로 수학을 한 제자 16명(고몽재, 고석화, 고용달, 권오상, 김익준, 문재한, 박종득, 백남복, 손종환, 엄광선, 이건갑, 이주만, 진원집, 최종학, 함남한, 함문한)이 현재까지 숙우회(塾友會)라고 하는 모임을 2개월에 한 번씩 갖고 있으며 스승님의 기일에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있다.

(19) 서당택 서당

양양군 강현면 중북리 214번지에 있었으며 양양군 향토지와 양주지의 인물난(김종섭 : 金鍾燮)에는 복천서당(福泉書堂)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창설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20년대 중반으로 짐작된다. 1950년대 초반까지 수학을 했다고 하며 훈장은 시문(詩文)과 서도(書道)에 능통한 문장가인 성암 김종섭(醒岩 金鍾燮)이며 수학자는 12세~30세였고 수제자로 인정받은 심창근과 양재홍도 수학하였다고 한다. 훈장 자제인 김관수(金官洙 : 1927년생)가 증언하였다.

당시의 양양지방의 서당교육에 관한 실태를 연구한 문헌에 의하면 입학연령은 대부분 6~7세였으며 취학전 교육으로 부모들이 취학시켰으며 수학기간이 2년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서당에 입학한 동기는 부모의 권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모의 배일사상 때문에 공립보통학교를 포기하고 서당에 입학한 경우가 많았다. 서당을 중단하게 된 동기는 공립보통학교 입학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사유는 일본 경찰이 서당을 폐쇄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당의 학동수가 제일 많은 서당은 쌍천서숙으로 30~40명이었으며 입학연령제한이 없어 연령차가 심했다. 서당의 규모는 대부분 훈장의 사랑방으로 8~9자방 2칸 정도이고 초가지붕이 많았다. 그러나 쌍천서숙은 독립건물로 기와지붕에 교실 2칸, 도서실 1칸, 교무실 1칸, 공동 목욕탕을 갖춘 학교규모와 같은 서당이였다. 서당의 시설로는 대부분 서당의 방안에 훈장의 서상(書箱), 분판(粉板), 출입패, 목침, 붓걸이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성학당(개량서당)은 서당 안에 칠판, 교탁, 학동용 책걸상, 종이 등이 있었다.

서당에서 주로 배운 책은 초급과정에서는 천자문, 계몽편(啓蒙編),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을 배우고, 중급과정에서는 통감(統監), 소학(小學) 등을 학습하였으며, 최고수준에서는 사서와 삼경을 배웠다. 개량서당인 대성학당에서는 국어독본(일본어), 조선어 독본, 산술, 습자, 도안, 창가 등을 가르쳤다. 서당의 교수학습방법은 개별학습과 암기위주로 이루어졌다. 접장(接長)은 학동 중에서 제일 높은 책을 읽고 연령이 많은 자가 하였다. 접장이 하는 일은 주로 초학자들을 가르치거나 서당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하였다.

서당의 훈장은 대부분 같은 마을 사람이나 이웃마을 사람이었으며 외지에서 초청해 오는 훈장도 있었다. 양양군의 서당 운영 형태는 주로 동리공동서당(洞里共同書堂)과 훈장자영서당(訓長自營書堂)이었으며 동족조합서당(同族組合書堂)으로 금계서당이 있었다. 그리고 서당의 중요한 행사로는 개접(開接), 과접(罷接), 책시세(冊時洗), 백일장(白日場), 화전(花煎)놀이, 복(伏)놀이, 천렵(川獵) 등이 있었다. 서당행사를 특별하게 한 서당으로 대성학당은 왼쪽(소풍), 가을운동회, 학예회를 개최하였으며 쌍천서숙에서는 품평회, 학예회, 체육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당에서의 놀이는 학습형태의 놀이와 운동경기 형태의 놀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습형태의 놀이에는 초중종놀이, 승경도(陞卿圖) 놀이 등이 있었으며 운동경기형태의 놀이로는 자치기, 비석치기, 사방치기, 장치기, 팽이치기, 돈치기, 공차기, 제기차기, 깡통차기, 굴렁쇠 굴리기, 나무 돌아오기, 말타기, 목침 뺏기 등이 있었다.

3. 일제강점기의 교육

일제의 한국식민지 교육정책은 그들의 식민통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인을 일본제국에 신민화 시키려는 반교육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제는 식민주의 교육을 합리화하고 한국인의 교육을 탄압하였다.

일제에 의한 교육은 법령의 시행과정에 따라 4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 8.22~1922. 2. 4),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 2. 5~1938. 3. 2),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38. 3. 3~1943. 3.30),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43. 4. 1~1945. 8.15)이다.

1910년에 부임한 군수 최종락은 소실된 현산학교를 새로 건립하였고, 그 이듬해인 1911년 4월 1일에 기존에 사립이던 현산학교를 4년제의 양양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하였다. 1912년 당시에는 4개 학급에 174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그 후 일제의 '1면 1교' 지침에 의거 대포보통학교(1919년), 인구보통학교(1922년), 현북보통학교(1931년), 상평보통학교(1934년), 강현보통학교(1933년), 손양보통학교(1934년), 현성보통학교(1934년), 강현부설 회룡간이학교(1937년), 화일공립국민학교(1940년), 임호간이학교(1941년), 적은공립국민학교(1942년), 현서공립국민학교(1942년), 조산공립국민학교(1944년)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1919년에는 양양보통학교가 6년제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중등실업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농업계의 공립실업보습학교인 양양공립농민학교가 1932년 1월에 양양군 강현면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수업 연한이 1년이었으며 일본인 1인과 한국인 2인의 남자 교직원이 근무하였고 학생 수는 30인이었다.

4. 양양의 현대교육

1) 공산치하의 교육

(1) 초등교육

광복 후에 양양은 38° 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에 점령되었고 1945년 10월 28일 5도 행정국에 의하여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였다. 북한은 북조선임시정부 창립 후인 1946년 1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3호'를 발표하여 일제식 교육제도를 고쳐 초등교육의 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때 북한의 학제는 소련식을 모방하여 인민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기술전문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5-3-3-4학제로 결정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정한 '결정 제133호' 제1항에서는 '인민학교는 5년제이고 입학연령은 7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

고 이 규정을 수정하여 1947년 6월 28일에 북조선 교육제도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기 위한 8개 조항의 인민위원회 ‘결정 제49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거 구제도하의 1~4학년까지의 학생들은 1947년 9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신 교육제도에 의하여 한 학년씩 진급하게 하였고, 구 교육제도하의 중학교 또는 인민학교에 등록된 5학년과 6학년생은 새 학기부터 중학교 또는 기술중학교 1학년 및 2학년으로 진급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1948년 9월 2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소련식의 공산주의 교육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인민학교 제도는 다시 1953년 7월 11일에 ‘내각 결정 111호’에 의하여 수업연한이 1년 더 단축되어 지금과 같이 4년으로 결정되었다.

광복 전 양양군에 속해 있던 38°선 남쪽의 인구, 임호, 현서, 갈천분교는 강릉군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에 38°선 이북에 있었던 양양인민학교와 상평인민학교의 교육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타 학교도 그 편제와 교육과정은 같았다.

양양인민학교는 광복 전까지는 학년 당 3개 학급이었는데 광복 후에 간이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4학급씩 총 20개 반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0명 내외였다. 입학연령은 7세이며 소련군이 들어와 양양인민학교를 그들의 병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2부제 수업을 하였다. 1시간 수업은 45분이었고, 교과목은 10과목 내외였으며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가르쳤다. 학급별로 방과 후에 자아비판회의를 하였고 매주 토요일에도 전체 자아비판회의를 하였다. 과외활동으로 소년단이 있었다. 노동절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원이 참여하여 시가행진을 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하였다. 학년은 9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8월말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상평인민학교는 학년당 5개 학급으로 학생수는 50명 내외였다. 광복직후에는 일제 때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1946년 9월 북조선인민공화국 교육국에서 교과서를 편찬하여 배부하였으며 교과는 공민, 문학, 산수, 리과, 지리, 체육, 음악, 공작 등이었다. 1947년 7월 15일 인민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그해 9월에 양양초급중학교에 입학하였다.

(2) 중등교육

소위 공산치하의 중등교육은 그 당시 재학생이었던 고경재, 김기정, 고향옥 등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양에는 3년제의 남·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각각 1개씩 4개교가 있었다. 양양초급중학교 가운데 남자중학교는 1946년에 현재의 양양중학교 자리인 양양읍 서문리에 설립되었고, 여자중학교는 현 도서관 앞(양양읍 균형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만 다니던 양양서소학교자리)에 설립된 뒤 1년 뒤인 1947년에 양양군 서문리로 이전하였다. 이 학교들은 1950년 6월 25일 이후 폐교되었다. 3년제로 학급당 인원은 60명 내외였으며 남·녀 학교 각각 3학급이었으며 교과과정은 지리, 역사, 세계사, 수학, 기하, 국어, 영어(1년후 로어), 물상, 화학, 음악, 체육, 미술 등을 가르쳤고 지리나 역사 등의 교과시간에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통합하여 수업하였다.

그리고 양양고급중학교는 1946년에 설립되어 1950년에 폐교되었다. 남자학교는 균형리(현 도서관 자리)에 있던 2층 건물 중 1층 사용하였고, 여자학교는 균형리(현 도서관 자리)에 있던 2층 건물 중 2층을 사용하다가 약 1년 후에 서문리 현 양양여자고등학교 자리로 이사하였다. 남녀 학교 각각 1학급씩이고 학급당 인원은 50여 명이었으며 교과목은 국어, 지리, 역사, 세계사, 수학, 영어(1년 후 로어), 음악, 미술, 체육, 물상, 화학 등이 있었다. 당의 사상교육은 훈육주임이 맡아서 하였다. 남·녀 고급중학교는 양양군에 하나뿐이었으므로 당시 양양군이었던 죽왕면 학생까지 등교하였다. 원거리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기차를 이용하여 등교하였다.

2) 수복후의 교육

6·25한국전쟁 중에도 양양지방에서는 계속 수업은 하였으나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교사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1950년 8월경에 등교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 10월에 수복되고 각급 학교가 개교하였으나 1951년 1·4후퇴 때 많은 학교가 소실되었다. 1951년에 다시 수복 개교하여 1군단 민사처의 지도하에 초등교육이 시작되었다. 1951

년부터 1954년 군정기간 중에 송포(1951년), 한남(1952년), 상운(1953년), 남천(1953년)의 4개 국민학교와 분교가 새로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에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 즉, ① 읍·면에 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였다. ② 군수가 교육감, 세무서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이 시대에 졸업한 학생부터 대한민국 학제에 의해 제1회부터 3회 졸업생까지 졸업하고 1955년부터 다시 민정 제1회로 졸업하여 각 학교 마다 1~3회 졸업생이 둘씩 이어서 졸업횟수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수복 이후 현재까지의 각급 학교의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양분되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보육시설은 군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1980년에 농촌지역인 현북국민학교(10월 30일)와 상평국민학교(10월 10일)내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1년에 양양(3월 1일), 조산(3월 1일), 강현(3월 15일), 광정(3월 1일), 상운(3월 5일), 인구(3월 1일) 국민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었고, 1984년에 송포(6월 13일), 손양(8월 14일), 한남(6월 2일), 임호(9월 7일), 남애(6월 2일) 국민학교에 1985년 3월 5일에는 현성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2009년 현재는 임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 병설유치원이 되어 공립유치원 14개 학급에 학생 수는 134명이고 교원 수는 24명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으로는 1960년에 설립된 양양유치원(1학급 40명)과 1983년경에 설립하여 낙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산지역아동센터(6학급, 127명)가 있다.

그리고 양양지역에는 보육시설로 공립 형태 2개(양양어린이집, 서문어린이집), 법인 형태 3개(청곡어린이집, 디모테오어린이집, 강현어린이집), 개인 형태 1개(현남어린이집), 민간 형태 3개(솔로몬 어린이집, 이솝어린이집, 꿈을 주는 어린이집), 가정형태 1개(재능사랑 어린이집)가 있다.

(2) 초등교육

양양지역의 초등학교는 1906년에 설립된 현산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일제시대의 공립 보통학교, 인공시절의 인민학교를 거쳐 현재의 초등학교에 이르게 되었다. 양양지역의 초등학교는 1968년에 24개교 5개 분교에 169학급 9,859명이 재학하여 그 수가 정점에 달했고 그 후에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 현재는 본교 14개교에 분교 3개교 총 106학급에 1,56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 및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활발하게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3년 화일분교장, 1994년 장승분교장, 1997년 면옥치분교장, 1999년에는 갈천분교장, 월천분교장, 적은초등학교, 상운초등학교가 폐교되었으며, 2007년에 법수치분교장과 2008년에 남천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2009년 4월 현재 양양지역의 초등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표1-1> 초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비 고
양양초	1906. 9. 8.	양양읍 구교리 20	32	926	
조산초	1944. 4.10.	양양읍 조산리 450-5	6	108	
강현초	1933. 4. 1.	강현면 정암리 510-1	7	78	
회룡초	1936. 4. 1.	강현면 회룡리 190	5	42	
상평초	1934.10.10.	서면 상평리 18	6	48	
오색초	1960. 4. 1.	서면 오색1리 307-1	3	14	
한남초	1952. 4. 5.	서면 용천리 505	5	41	
손양초	1934. 4. 1.	손양면 하왕도리 141	6	61	
송포초	1951. 9. 1.	손양면 송전리 22-1	4	29	
현북초	1931. 4. 1.	현북면 상광정리 577	3	16	
광정초	1963. 4. 1.	현북면 하광정리 193	6	49	
현성초	1934.10. 1.	현북면 어성전리 531	3	20	
인구초	1922. 8.24.	현남면 인구리 27	7	76	
남애초	1963. 1. 7.	현남면 남애3리 554	4	30	
상평(공수전)	1951.12.20.	서면 공수전리 31-4	3	20	1989년 분교로
상평(현서)	1942. 8.22.	서면 서림리 74-1	3	13	1992년 분교로
인구(임호)	1941.12. 6.	현남면 임호정리 258-2	3	5	2001년 분교로

(3) 중등교육

양양의 근대식 중등교육은 한서 남궁억이 1906년에 세운 현산학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복이후에는 38°선 이북지역에 있었으므로 공산치하의 양양초급중학교, 양양여자초급중학교, 현북초급중학교, 강현초급중학교와 양양고급중학교, 양양여자고급중학교가 양양지역의 중등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6·25한국전쟁 종전 이후인 1951년과 1953년에 양양중학교와 양양고등학교가 각각 개교함으로써 현대식 중등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양양명륜중학원은 6·25한국전쟁으로 소실(燒失)된 교궁(校宮)을 중수(重修)하여 빈곤으로 인한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양유림이 협의찬동(協議贊同)함에 재단법인(財團法人)을 설립 향교법인을 전당(殿堂)으로 공부자(孔夫子)와 성현(聖賢)을 봉안한 대성전(大成殿)앞 명륜당(明倫堂)에 학원을 설립하고 중등교육 및 도덕교육으로 윤강회복(倫綱回復)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명륜중학원은 1954년 3월에 초대원장 박세환(朴世煥)이 학생 56명을 모집하여 개교를 하였으며, 1955년 2월 양양명륜중학원에서 정식 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운영난으로 1974년 3월경 18회를 끝으로 이 학교는 폐교되었다.

한편 양양명륜중학교는 폐교이전인 1971년 2월 22일 양양명륜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마저도 1979년 8월 31일 폐교되어 양양에는 사립중등학교는 한 곳도 없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현황은 <표1-2>와 <표1-3>과 같다.

<표1-2> 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비 고
현남중	1953. 4.24.	현남면 광진리 78	11	326	
양양중	1951.10.12.	양양읍 서문리 115	9	284	
양양여중	1954.12.31.	양양읍 서문리 224	3	64	
현북중	1967.10.28.	현북면 상광정리 556-2	3	36	
강현중	1969.10.14.	강현면 정암리 562	3	62	

〈표1-3〉 고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비 고
양양고	1953. 4. 5.	양양읍 서문리 115	12	379	
양양여고	1956. 2.28.	양양읍 서문리 224	12	360	

양양고등학교는 6·25한국전쟁 중인 1953년 4월 5일에 개교하여 1학년과 2학년이 동시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54년 12월 31일에 문교부로부터 6학급 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해인 1955년 1월 20일에 강진천 교장이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2009년 2월 12일에 제58회 졸업식을 거행할 때까지 24명의 교장이 부임하였고 총 7,86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하였다. 2009년 현재 12학급에 총 37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양양고등학교는 2006년에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되어 농산어촌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양양지역 인재의 외지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는 기숙형 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양양의 중등여성교육의 요람이 된 양양여자고등학교는 1955년 1월 31일에 홍기표 초대 교장이 부임하고 1956년 4월 10일에 개교하였다. 2009년 2월 12일에 제51회 졸업식까지 22명의 교장이 부임하였고 총 5,927명의 지역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였다. 2009년 현재는 12학급에 총 36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2009년도에 양양여자고등학교는 1) 인성교육, 예절교육 강화, 2) 올바른 기초·기본교육을 통한 학력 제고, 3)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2009 양양여자고등학교의 특색교육

가. 취지

교육에서의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독서 교육이다. 즉, 충실한 지적 능력을 키우고 풍부한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독서교육이며, 정보를 선별하고 창의적으로 가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도 독서 훈련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나. 목적

- 가) ‘디지털 도서관’은 서버에 가상적으로 설치되는 지원센터로이다.
- 나) 학교별 자료관리(대출, 반납, 검색 등), 종합목록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한다.
- 다) 학교 도서관의 정보화를 위해 표준화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 라) 나만의 도서관, 자료검색, 독서길잡이, 정보마당 등의 다양한 독서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마) 검색, 대출/반납, 이용자 관리, 출력·통계 등의 도서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시스템을 제공한다.

○ 세부실천계획

구 분	실 천 내 용	담당자	실시시기	적용대상
1. 독서신문 발행	· 필독 및 권장도서를 소개 · 우수 독후감 소개 · 다독자 명단 소개	지도교사	7월 12월	전학년
2. 도서대여 및 반환	· 독서부원은 도서 대여와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한다.	학 급 독서부원	연 중	전학년
3. 독서관련 행사	· 독서 감상문 쓰기-우수 감상문 시상. · 독서 퀴즈대회 · 학년별 지정도서 읽기	담임교사	연 중	전학년
4. K-CBRT 독서인증	· 객관식 시험 및 독서감상문 입력 · 학기별 6편 이상, 총 24편 이상으로 독서인증	지도교사		

(4) 고등교육

양양지역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 인재들이 외지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 인재 유출과 부의 역외 유출로 손실이 컸다. 1990년대의 고등교육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강릉시에 소재를 둔 관동대학교가 1995년 3월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산7번지 일원에 100만㎡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양양캠퍼스를 개교하였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는 1995년 개교 당시 정원 3,880명, 재학인원 3,722명으로 출발했으나 학생 수는 매년 줄어 2000년 정원 3,480명에 재학생 2,486명, 2003년 정원 3,390명에 재학생 2,137명에서 2007년에는 정원 1,792명에 재학생 1,388명으로 급감했다. 2003년 494명이던 신입생이 2005년 178명으로 줄어들자 대학 측은 더 이상 본교 수익으로 양양캠퍼스 적자를 보전할 수 없다며 캠퍼스 폐쇄를 결정했다. 2007학년도부터는 공과대학을 강릉으로 이전하면서 신입생도 뽑지 않았다. 2008년 9월 1일자로 사회복지학과 78명이 강릉 본교로 옮기는 것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그 후 양양군과 관동대학교는 빈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이 캠퍼스는 폐허로 남아 있다.

5. 주요교육제도의 변화

1) 교육자치제의 도입 및 운영

공산치하에 있었던 양양군은 1951년 수복과 동시에 양양군 자치위원회에 학무계를 두어 오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구 군정체제에서 민정으로 이관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교육감은 당시 김주혁 양양군수가 겸임하고 학무국을 군수 산하에 두었다. 1957년 7월 1일 양양군교육청사가 준공되어 별도의 청사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게 되었다. 1962년 1월 6일부터 시·군단위 교육자치제가 폐지(법률 제955호)되어 양양군청에 교육과를 두고 교육행정을 관장하였다.

1964년 1월 1일을 기하여 도단위 교육자치제 실시로 양양군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분리됨에 따라 속초교육청과 양양교육청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73년 1월 1일 속초시 교육청과 양양군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개편되어(2과 6계), 중학교의 사무감독권을 이양하고 사회체육계가 학무과 사회체육계로 개편하면서 속초시 국민학교 9개교, 1분교, 중학교 5개교, 양양군 국민학교 21교, 6분교, 중학교 5개교를 관장하였다.

현재의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강원도교육청의 계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어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기초단위 교육자치제가 조속히 실행되어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전의 육성회, 기성회, 사친회 등과는 달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하여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일부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단위학교 의사 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열린 운영구조이다.

1995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 2월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비율, 위원선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의 고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정수는 학교규모, 지역특성, 학교급, 계열 등을 고려하여 7~15명의 범위에서 그 구성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인사 10~30%로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에 의하여 민주적 대의절차를 따라서 교원위원은 교원들에 의하여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의 위원들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관련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을 제도화한 후, 그것을 단위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은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심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 학부모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교원위원 선출과정에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1997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었다. 종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면서 심의사항이 확대되었다. 주목할 점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 심의 사항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였다. 심의사항 확대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심의 결과대로 최대한 시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로 변경한 것이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유와 함께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서 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심의권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셋째, 민주적 참여권을 강화하였다. 1996년 도입 당시에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에는 민주적 대의절차 이외에 또 하나의 기준으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의 규모가 커서 전체 학부모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전체 학교의 시설 여건상 전체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장소 확보가 곤

란한 경우에는 직접 투표가 아닌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교원위원회는 1996년 제도화 당시에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교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년 개정 시에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교원전체회의가 아니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직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여전히 직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둘째, ‘교사 중에서’를 ‘교원 중에서’로 바꾸어 교감도 교원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감 역시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셋째, 처음에는 투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투표 과정에서 투표자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위원의 선출 방식 역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가 학교 내부 구성원 중심의 폐쇄적 학교운동을 지양해보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며 이 방식은 변화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지역위원의 경우 처음부터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일상생활의 근거지나 기업 활동의 근거지’로 교육행정가나 기업경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역 근거지를 토대로 한 ‘주민 통제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회 개방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3) 의무교육제도의 도입 및 확충

문교부에서는 1950년 6월 1일을 기하여 의무교육 6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한국전쟁으로 그 시행이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1969년도부터 중

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양양군 지역의 경우는 1971년에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4년 8월 2일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5년 2월 21일에는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중학교 신입생 6만 2천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86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서·벽지 중학교 전학년 학생 24만 9,00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였다. 이어서 1994년도부터는 읍·면단위 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역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4)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의 중핵 내용이 되는 교육과정은 광복 후 미군정기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5~10년 주기로 개정하여 적용하여 왔다. 시기별로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교육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군정하의 교육과 정부수립직후의 교육과정인 교수요목기(1946~1954년)의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는 교육과정을 ‘교과의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라고 보았으며 교육과정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한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년)인 교과과정 시기 또는 교과중심교육과정기이다.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로 정의하였다. 교과서는

생활중심을 지향하였으며 교과와 특별활동의 2대 편제였다. 그리고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셋째,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년)인 생활중심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교육과정기이다.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의 총화’로 정의하였다.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반공도덕, 특별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년)인 학문중심교육과정기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제정에 있어 처음으로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시안을 확정하고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60년대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중심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의 중시, 자발적 탐구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편제면에서는 반공·도덕영역이 없어지고 국사, 도덕과목이 신설되면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대 편제로 되었다.

다섯째,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년)인 인간중심교육과정기이다. 이 때의 교육과정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제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5공화국의 개혁조치와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개정되었다. 초등학교에 통합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초연구개발을 주도한 최초의 연구개발형 교육과정이다.

여섯째,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년)이다. 이 때는 어느 한 교육과정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개정의 방침은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에 두고 개정의 전략으로 지속성, 점진성,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지방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지역교과서가 개발되었고 통합교육과정 운영체제로 변화되었다.

일곱째,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년)이다. 이 시기에 와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시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교육부(국가수준의 기준),

시·도 및 지역 교육청(교육과정 지침 및 장학자료), 학교(학교수준의 교육과정)로 교육과정개발의 계층이 마련되었으며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로 다양한 이수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교육내용의 획일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재량시간이 3~6학년에 연 34시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영어가 3~6학년에 연 68시간 도입되면서 3~6학년 학교재량시간은 0~34시간으로 변경되었다. 학교재량시간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으로 변경되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 되었다.

여덟째,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과정편제에 교과목군 개념 도입,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강화,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평가체제 도입,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창의성·정보능력 배양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1~10학년)과 선택중심교육과정(11~12학년)으로 구분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10개의 교과활동, 특별활동(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 그리고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이 포함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에는 교과활동(보통교과, 전문교과)과 특별활동(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이 포함된다.

아홉째,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 수업시간수의 감축,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고교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주5일 근로제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함에 따라 수업시수를 34시간 감축하였다.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자율권을 확대하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였으며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에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증감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과학교육 및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에서 범교과 학습내용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국

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고교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교육감 승인 하에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개설 허용, 고교선택과목 일원화, 선택과목군 조정,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였다. 기타 개선사항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역 교육청 장학자료 작성시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계기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16개 항이던 범교과 학습주제를 35개 항으로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학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국어	국어	238	204	204	204
	도덕	210	238	34	34	34	34
	사회	수학	수학	102	102	102	102
	수학	120	136	136	136	136	136
	과학	바른생활	바른생활	102	102	102	102
	실과	60	68	-	-	68	68
	체육	즐거로운 생활	즐거로운 생활	102	102	102	102
	음악	90	102	68	68	68	68
	미술	즐거로운 생활	즐거로운 생활	68	68	68	68
	180	204					
	외국어(영어)	우리들은 신나는 1학년 80		34	34	68	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수업시간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감축가능시간수	-	-	34	34	34	34	
연간최소수업시간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단 1, 2학년은 감축하지 않음)

〈표1-5〉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구분 \ 학교 \ 학년		중 학교		
		7	8	9
교과	국어	170	136	136
	도덕	68	68	34
	사회	102	102	136
	수학	136	136	102
	과학	102	136	136
	기술·가정	68	102	102
	체육	102	102	68
	음악	68	34	34
	미술	34	34	68
	외국어(영어)	102	102	136
재량 활동		136	136	136
특별 활동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 수		1,156	1,156	1,156
감축 가능 시간 수		34	34	34
연간 수업 시간 수(변경)		1,122	1,122	1,122

〈표1-6〉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구분 \ 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선택 중심 교육 과정	
		10학년		11학년	12학년
		시간 수	단위 수	단위 수	
교과	국어	136	8	선택 과목(136 단위)	
	도덕	34	2		
	사회	170	10		
		(국사 : 68)	(4)		
	수학	136	8		
	과학	102	6		
	기술·가정	102	6		
	체육	68	4		
	음악	34	2		
	미술	34	2		
	외국어(영어)	136	8		
재량 활동		204	12		
특별 활동		68	4	8 단위	
연간 수업 시수		1,224	72	144 단위	
감축 가능 시수		34	2	4 단위	
연간 수업 시수(변경)		1,190	70	140 단위	

〈표1-7〉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일반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구 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인 문 · 사 회 과목군	국어	국어(8)	국어 생활(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도덕	도덕(2)	시민 윤리(4)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사회	사회(10) (국사 4)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과 학 · 기 술 과목군	수학	수학(8)	수학의 활용(6), 수학 I (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 II (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물리 I (4), 화학 I (4), 생물 I (4), 지구과학 I (4) 물리 II (6), 화학 II (6), 생물 II (6), 지구과학 II (6)
	기술· 가정	기술· 가정(6)	정보 사회와 컴퓨터(4)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예 · 체 능 과목군	체육	체육(4)	체육과 건강(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 이상)*
	음악	음악(2)	음악과 생활(4)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 이상)*
	미술	미술(2)	미술과 생활(4)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 이상)*
외국어 과목군	외국어	영어(8)	영어 I (6), 영어 II (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 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독일어 I (6), 프랑스어 I (6)	독일어 II (6), 프랑스어 II (6)	
		스페인어 I (6), 중국어 I (6)	스페인어 II (6), 중국어 II (6)	
		일본어 I (6), 러시아어 I (6)	일본어 II (6), 러시아어 II (6)	
		아랍어 I (6)	아랍어 II (6)	
교 양 과목군	한 문		한문(6)	한문 고전(6)
	교 련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강원의 역사와 문화(4), 기타(4)	
이수 단위	(56)	24단위 이상	112단위 이하	
재량 활동	(12)			
특별 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6. 양양의 장학회 운영

장학제도란 본래 우수한 자질과 성품을 갖춘 자로서 향학열이 높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면학을 장려하고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교육지원제도이다. 그럼으로써 면학을 증진시켜 대학교육목표인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전인격을 갖춘 인재육성과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학업에 전심전력하여 학구열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재단법인 현산장학회

현산장학회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1988년 김남호 이사장 외 6인으로 최초 설립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15명으로 정식 이사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을 시작하였다. 특히 장학기금 조성에는 애항심이 강한 양양지역의 출향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성원에 힘입어 1990년에는 숙원사업이던 현산장학회를 자본금 6천6백만원으로 공식 출범시켰다. 본 장학회 설립 후 2년간 기금조성 및 장학회 운영에 관한 내실을 다진 현산장학회는 지난 1992년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으로 양양지역 중·고·대학생 13명에게 5백30만원을 1차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현산장학회는 고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매년 장학금 지급액수를 늘려 지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대학생 26명, 고교생 52명 등 총 86명에게 5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가 하면 지난 1997년 제6차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9명과 고교생 11명에게 1천7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올 3월 9차 장학금까지 모두 7천6백만원을 86명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에 지급하여 이들의 향학열을 제고 시켰다.

〈표1-8〉 현산장학회 법인현황

- 명 칭 : 재단법인 현산장학회 ○ 설 립 : 1990. 2.22.
- 이사장 : 임용식 ○ 이 사 : 11명 ○ 감 사 : 김성환, 김옥화

〈표1-9〉 기금운용현황

- 수 입 : 765,536,707원 ○ 지 출 : 296,698,357원 ○ 잔 액 : 468,865,350원
- ※ 2009. 12.31. 현재 340명(대학생170명, 고등학생170명)지급 함.

2)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6년에 설립발의를 시작으로 동년 7월에 장학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10월에 개교 제55주년 총동문회 한마음 잔치에서 장학재단 설립발표를 하였다. 2009년 1월에 강원도 교육감 법인 설립 허가(허가제11-155호)를 받았으며 동년 2월에 속초세무서장승인(고유번호227-82-09408)과 더불어 초대 이사장에 추상호를 추대하고 이사 8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출범하였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재산 2억1천만원, 보통재산으로 정기예금 6,000만원, 보통예금, 11,845,803원이며 재산은 6,000여만원 증가하였고, 장학금으로 2,000여 만원을 지급하였다. 2010년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은 3억원을 설정하고 기금모급 방법은 동문들의 각종 경사스러운 일(입사, 승진, 결혼, 회갑 등)이 있을 때마다 기념으로 장학재단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 본 장학회 취지를 잘 몰라서 기부를 못하신 회원들에게 참여를 유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금액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표1-10〉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현황

- 명 칭 :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 설 립 : 2009. 1.16.
- 이사장 : 추상호
- 이 사 : 8명
- 감 사 : 김중열, 탁동수
- 사무국장: 이근만

〈표1-11〉 기금운용현황

- 수입 : 301,845,803원 ○ 지출 : 20,000,000원 ○ 잔액 : 281,845,803원
(기본자산 : 210,000,000원, 정기예금 : 60,000,000원, 보통예금 : 11,845,803원)

3) 서광농협장학회

서광농협장학회의 운용실태를 보면 2003년 5월에 초대 이사장에 김호열 외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 출범하였다. 설립취지는 서광농협 조합원 자녀의 향학열 고취와 인재육성을 통하여 농촌지역사회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기금운용상황은 총수입 6억4천3백만원 중 장학금(대학생 122명) 1억2천4백만원, 관리비 등 2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다. 현재 잔액은 5억1천8백만원인데 정기예금 5억4백만원, 보통예금 1천4백만원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표1-12〉 서광농협장학회 현황

- 명 칭 : 서광농협장학회
- 설 립 : 2003. 5. 9.
- 이사장 : 김호열
- 이 사 : 11명
- 감 사 : 이철형, 양범석

〈표1-13〉 기금운용현황

- 수입 : 643,230,450원[장학기금(출연금)]
- 지출 : 124,648,600원(대학생 122명)
- 잔액 : 518,581,850원(정기예금 : 504,000,000원, 보통예금 : 14,581,850원)
※ 기금운용 2010. 6.30.까지임

7. 교육기관

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1) 관할 : 속초시·양양군

(2) 소재지 : 속초시 미시령로 3336(교동 776-1)

(3) 기구 및 규모 : 2과(교육지원·행정지원) 9계

대지면적 : 11,665m² / 청사면적 : 3,089m²

(4) 연혁

- 1954.11.17.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군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감을 양양군수가 겸임
- 1957. 7. 1. 양양군 교육청사 준공
- 1962. 1. 6. 시·군단위 교육자치제 폐지(법률 제955호) 양양군에 교육과를 두어 교육행정 관장
- 1964. 1. 1. 도단위 교육자치제 실시(법률 제1435호) 속초시 교육청과 양양군 교육청 발족
- 1968. 4.13. 속초시교육청사 준공
- 1973. 1. 1. 교육법 개정, 속초시 교육청에 양양군 교육청 통합
-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47호) 제정. 강원도속초교육청
- 1994.12.27. 강원도속초교육청 신축청사준공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694.6m²,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2006. 3. 1. 강원도속초교육청에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기관명칭 변경
- 2010. 9. 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에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5) 역대 교육장

○ 양양

제1대 김종극(1964. 3. 4.~1970. 8.31.) 제2대 김인영(1970. 9. 1.~1971. 8.31.)

제3대 김정중(1971. 9. 1.~1972.12.31.)

○ 속초

- 제1대 김석년(1964. 1. 1.~1964. 3.19.) 제2대 고연재(1964. 3.20.~1969. 5.15.)
- 제3대 박병도(1969. 5.16.~1972. 3. 1.) 제4대 백은화(1972. 3. 2.~1973. 1. 4.)

○ 속초(양양통합)

- 제5대 윤동삼(1973. 1. 5.~1974. 8.31.) 제6대 이규택(1974. 9. 1.~1976. 2.28.)
- 제7대 유부열(1976. 3. 1.~1978. 8.31.) 제8대 정의곤(1978. 9. 1.~1980. 8.31.)
- 제9대 이승근(1980. 9. 1.~1982. 8.31.) 제10대 김영수(1982. 9. 1.~1985. 8.31.)
- 제11대 노재춘(1985. 9. 1.~1988. 8.31.) 제12대 김근용(1988. 9. 1.~1991. 2.28.)
- 제13대 이인섭(1991. 3. 1.~1992. 8.31.) 제14대 김성기(1992. 9. 1.~1994. 8.31.)
- 제15대 최염규(1994. 9. 1.~1996. 8.31.) 제16대 민태식(1996. 9. 1.~2001. 2.28.)
- 제17대 김진덕(1999. 9. 1.~2001. 2.28.) 제18대 김영채(2001. 3. 1.~2002. 2.28.)
- 제19대 김남욱(2002. 3. 1.~2005. 8.31.)

○ 속초양양

- 제20대 박갑수(2005. 9. 1.~2007. 8.31.) 제21대 최현규(2007. 9. 1.~2009. 8.31.)
- 제22대 이상집(2009. 9. 1.~현재)

(6) 학교 현황

○ 초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교지(m ²)	설립 년월일	학급	학생수			교직원	
					계	남	여	교원	일반
계		179,470		106	1428	769	659	151	49
양양초등학교	양양읍 구교리 20	17,952	1910. 4. 1.	31	809	443	366	41	6
조산초등학교	양양읍 조산리 450-5	13,262	1944. 4.10.	6	85	42	43	11	5
강현초등학교	강현면 정암리 510-1	17,942	1933. 4. 1.	7	61	33	28	12	3
회룡초등학교	강현면 회룡리 190	11,072	1936. 4. 1.	6	46	28	18	9	2
상평초등학교	서면 상평리 18	13,641	1934.10.10.	6	52	24	28	9	4
공수전분교장	서면 공수전리 31-4	4,146	1946. 5.25.	3	20	14	6	3	1
현서분교장	서면 서림리 74-1	4,767	1942. 9.20.	2	5	5	0	2	1
오색초등학교	서면 오색리	6,862	1961. 4. 1.	3	10	6	4	4	2
한남초등학교	서면 용천리 505	8,343	1952. 4. 1.	6	43	28	15	10	2
손양초등학교	손양면 하왕도리 141	11,749	1934. 4. 1.	6	55	30	25	9	4

학 교 명	소 재 지	교지(m ²)	설립 년월일	학년	학생수			교직원	
					계	남	여	교원	일반
송포초등학교	손양면 송전리 22-1	8,836	1953. 9.30.	4	31	15	16	5	2
현북초등학교	현북면 상광정리 577	10,915	1931. 4. 4.	3	17	7	10	4	3
광정초등학교	현북면 하광정리 193	8,389	1963. 4. 1.	6	51	31	20	8	3
현성초등학교	현북면 어성정리 531	8,110	1937. 4. 1.	3	29	11	18	4	4
인구초등학교	현남면 인구1리 27	14,640	1922. 8.22.	7	74	34	40	11	3
임호분교장	현남면 임호정리 258-2	10,612	2000. 3. 1.	3	14	3	11	3	2
남애초등학교	현남면 남애리 554	8,232	1963. 1. 7.	4	26	15	11	6	2

○ 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교지(m ²)	설립 년월일	학년	학생수			교직원	
					계	남	여	교원	일반
계		45,177		31	709	372	337	74	17
양양중학교	양양읍 서문리 115	-	1953. 4. 5.	11	307	307	0	26	5
양양여자중학교	양양읍 서문리 224	-	1954.12.31.	10	277	0	277	20	6
현남중학교	현남면 광진리 78-1	18,126	1953. 4. 5.	4	42	23	19	10	2
현북중학교	현북면 상광정리 556-2	10,296	1967.10.28.	3	35	18	17	9	2
강현중학교	강현면 정암리 562-5	16,755	1969.10.14.	3	48	24	24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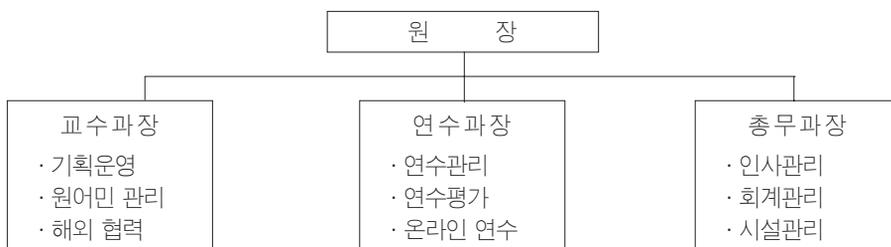
2) 강원외국어교육원

(1) 위치 :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123-19, 123-47

(2) 규모 : 대지면적 : 21,624m² / 건물면적 : 4,032m²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3층, 지하1층

(3) 기구(조직, 구성)



(4) 기능 및 사업

-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 심화연수(6개월, 국외연수2개월포함, 연중2기수)
- 학생 영어체험과정(연중 4박5일 정규과정 14기, 일일체험 15기)
- Priming water(마중물) 체험 직무연수(초·중등 영어교사, 전문직, 일반직대상)
- EPIK TEAM TEACHING 클리닉(강원도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동 연수)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영어체험과정(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 체험과정)
- 학생 제2외국어(일본어·중국어) 체험과정(연중 1기씩 운영)
- 전문성 신장을 위한 GILI WIN WIN 프로그램(직장내 한·영 튜터링 동아리 활동)
- GILI ENGLISH BUS 운영(찾아가는 영어체험 교실)

(5) 연혁

- 2001. 4.11. 「강원학생수련원」 개원
- 2005. 5. 9. 「부설 강원영어체험학습장」 개장
- 2007. 2. 7.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 계획 확정
- 2008.12.2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제3,298호)
- 2009. 2.28. 2005년도 개장 이후 영어체험학습과정 총 11,458명 교육
- 2009. 3. 1. 「강원도외국어교육원」 개원 및 초대 현종진 원장 취임
- 2009. 3. 2. 제1기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 심화연수 개강(6개월)
- 2009. 5.15. 시애틀 대학 MOU 체결
- 2009. 5.16. 미네소타 대학 MOU 체결
- 2009. 7.17. 「강원외국어교육원」 연수관 준공
- 2009. 7.29. 제4회 대한민국 외국어교육산업대상 수상(공교육기관부문)
- 2009. 9. 1. 제2대 유진규 원장 취임
- 2009. 9. 1. 제2기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심화 연수 개강(6개월)
- 2010. 1.27. 제8군단 MOU 체결
- 2010. 3. 2. 제3기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심화 연수 개강(6개월)

(6) 역대기관(단체)장

○ 강원학생수련원

제1대 이식연 제2대 김영채 제3대 이동진 제4대 현종진

○ 강원외국어교육원

제5대 현종진 제6대 유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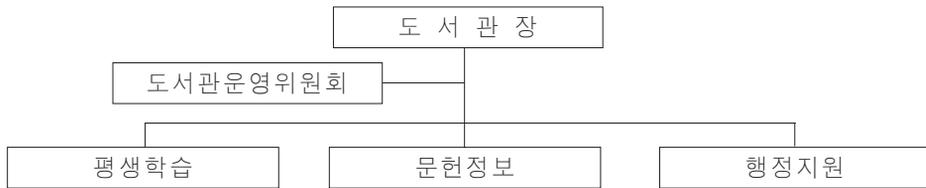
3) 양양도서관

(1) 위치 :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13번지

(2) 규모 : 대지면적(m²) : 6,667m² / 건물면적(m²) : 1,264m²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기구(조직, 구성)



(4) 기능 및 사업

- 지역주민의 정보·문화·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자료
- 다양하고 체계적인 독서진흥 사업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연혁

- 1989. 6.29. 양양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공시(조례1213호)
- 1991. 2.12. 양양공공도서관 개관
- 1991. 3.26. 양양도서관으로 명칭변경(조례2201호)
- 2000.12.13. 전자정보자료실 및 멀티미디어실 개실
- 2001. 2.20. 지역평생 학습관 지정(강원도교육청)
- 2001.10.31. 북카페 개실
- 2003.12. 1. 디지털자료실 개실

- 2004.11. 1. 지하서고 개실
- 2009. 6.22.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방 개실
- 2009. 9. 9. 148병영도서관 개관식
- 2009.12.11. 1901병영도서관 개관식

(6) 역대 도서관장

- | | | | | |
|----------|---------|---------|---------|----------|
| 제1대 이창호 | 제2대 조상혁 | 제3대 이진수 | 제4대 이달수 | 제5대 최영식 |
| 제6대 최월순 | 제7대 정무철 | 제8대 최희선 | 제9대 탁기남 | 제10대 김정일 |
| 제11대 금기조 | | | | |

4) 양양고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15
- (2) 교지 : 23,922m²
- (3) 교사 : 8,592m²
- (4)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5) 연혁
 - 1953. 4. 5. 양양고등학교 개교(1,2학년 동시 입학)
 - 1954.12.31. 양양고등학교 6학급 설립 인가(문교부)
 - 1955. 1.20. 초대 강진천 교장 부임
 - 1959. 7.23. 중·고 병설
 - 1961.10.12. 개교기념일 체육대회에서 실용 자전거경기
(양양중·고 사이클부 창단의 계기)
 - 1962. 3.10. 사이클부 창단
 - 1968. 8.20. 신교사 3교실 증축
 - 1969.12.31. 신교사 2층 3교실 증축
 - 1974.10.18. 9학급 증설 인가
 - 1975. 5.26. 신교사 5교실 증축(1층 3실, 2층 2실)

- 1980. 8.11. 과학실 1동 신축
- 1980.10.20. 12학급 증설 인가
- 1982. 4.16. 사이클 20대 기증(국회의원 이범준)
- 1982.12. 4. 도서실 1교실 증축(2층)
- 1991.12.27. 사이클 선수 합숙소 1층 증축
- 1993. 8. 1. 양양고 상징탑 건립(자연석 및 화강암, 동문회 후원)
- 1993.12.20. 본관으로 이어지는 교사 증축(6교실)
- 1999. 6.22. 학사(현산학사Ⅱ) 준공
- 2010.12.27. 기숙형고교 학사(현산학사Ⅰ) 준공
- 2010. 2.12. 제56회 졸업식(116명 졸업, 총 7,976명)
- 2010. 3. 2. 2010입학식 거행(신입생 139명 입학)

(6)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2010	1	12	18	359	27	22	5	7	4	3	56	5,210

(7) 역대 교장

제1대 강진천	제2대 허 환	제3대 박한복	제4대 이종세	제5대 최종률
제6대 유창렬	제7대 황 정	제8대 이규택	제9대 유경상	제10대 김영수
제11대 정치규	제12대 이종국	제13대 정호복	제14대 권오일	제15대 김술갑
제16대 최상평	제17대 한기운	제18대 유영환	제19대 조규옥	제20대 이석중
제21대 조규억	제22대 김동길	제23대 함준호	제24대 김충길	제25대 김형식

5) 양양여자고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224
- (2) 교지 : 16,438㎡(고·중 공용)
- (3) 교사 : 10,771㎡(고·중 공용) 구조 :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층

(4) 연혁

- 1956. 2.28. 양양여자고등학교 3학급(정원 150명) 인가
- 1956. 4.10. 개교 및 입학식
- 1959. 2.23. 제1회 졸업식(졸업생 15명)
- 1974. 3.16. 학급 인가
- 1979.10.18. 9학급 인가
- 1981.10.24. 12학급 인가
- 1992. 9.14. 학과 개편인가(보통과 6학급, 상업과 6학급)
- 1997. 9. 1. 학과 개편인가(보통과 6학급, 정보처리과 6학급)
- 1999. 6.22. 목련관 준공식
- 2001. 3. 1. 학과 증설 인가(특수학급 1학급)
- 2008. 2.15. 제50회 졸업식(졸업생 121명 누계 5,927명)
- 2008. 3. 3. 신입생 입학식(신입생 4학급 124명)
- 2009. 3. 1. 제23대 윤무진 교장 취임

(5) 학교현황

학급수(학급)	교실수(실)	학생수(명)	교원수(명)			계
			교원수	원어민강사	산학인턴교사	
13	13	302	26	1	1	28명

(6) 역대 교장

- | | | | | |
|----------|----------|----------|----------|----------|
| 제1대 홍기표 | 제2대 정치규 | 제3대 박소남 | 제4대 노운열 | 제5대 김봉래 |
| 제6대 이한상 | 제7대 김정록 | 제8대 노광목 | 제9대 전로수 | 제10대 이동춘 |
| 제11대 이택규 | 제12대 백운화 | 제13대 권덕명 | 제14대 심필섭 | 제15대 심철수 |
| 제16대 양태식 | 제17대 전중환 | 제18대 박무화 | 제19대 김자혜 | 제20대 김옥자 |
| 제21대 이병률 | 제22대 이만영 | 제23대 윤무진 | | |

6) 강현중학교

(1) 위치 :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62-5

(2) 규모 : 2층 1동, 1층 7동

○ 대지면적 : 19,839㎡ ○ 건물면적 : 1,971.92㎡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철골조

(3) 기구(조직, 구성)



(4) 기능 및 사업

○ 공립중학교

○ 국민공통교육과정

(5) 연혁

○ 1969.10.14. 강현중학교 설립인가(6학급)

○ 1970. 3.16. 강현중학교 개교

○ 1973. 2.14. 제1회 졸업식(105명)

○ 2010. 2.10. 제38회 졸업식(9명) 총 3,013명

○ 2010. 3. 1. 제21대 정상재 교장 부임

(6)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3	50	25	25	11	7	4	6	-	6	38	3,013

(7) 역대교장

제1대 김정호	제2대 이택규	제3대 정성면	제4대 김현기	제5대 김학기
제6대 김남수	제7대 박준홍	제8대 박용태	제9대 황세영	제10대 김혁래
제11대 심정식	제12대 조용연	제13대 박영식	제14대 이종익	제15대 이령자

제16대 신원하 제17대 김지권 제18대 윤중현 제19대 김석기 제20대 최건희
제21대 정상재

7) 양양중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15
- (2) 교사 : 1,895㎡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3) 연혁
 - 1951.10.12. 양양중학교 개교
 - 1954.12.31. 양양중학교 12학급 설립인가(문교부)
 - 1959. 7.23. 중·고 병설 인가
 - 2010. 2.10. 제56회 졸업식 97명(총 10,539명)
 - 2010. 3. 1. 제25대 김형식 교장 부임
 - 2010. 3. 2. 2010학년도 입학식 92명 입학
- (4)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2010	1	11	22	308	22	11	11	3	1	2	56	97

- (5) 역대 교장 : 양양고등학교와 동일

8) 양양여자중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224
- (2) 교지 : 16,438㎡(고·중 공용)
- (3) 교사 : 10,771㎡(고·중 공용) / 구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3층
- (4) 연혁
 - 1954.12.31. 3학급 인가

- 1955. 2.20. 개교
- 1959. 2.23. 6학급 인가
- 1968.11.23. 9학급 인가
- 1976. 2.19. 12학급 인가
- 1985.11.30. 특수학급 1학급 인가
- 2009. 3. 1. 제24대 윤무진 교장 취임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10	10	277	277	20	9	11	13	4	9	56	8,114

(6) 역대교장

- | | | | | |
|----------|----------|----------|----------|----------|
| 제1대 홍기표 | 제2대 정치규 | 제3대 박소남 | 제4대 노운열 | 제5대 김봉래 |
| 제6대 이한상 | 제7대 김정록 | 제8대 노광목 | 제9대 전로수 | 제10대 이동춘 |
| 제11대 이택규 | 제12대 백운화 | 제13대 권덕명 | 제14대 심필섭 | 제15대 심철수 |
| 제16대 양태식 | 제17대 전중환 | 제18대 박무화 | 제19대 김자혜 | 제20대 김옥자 |
| 제21대 이병률 | 제22대 이만영 | 제23대 윤무진 | | |

9) 현남중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78-11
- (2) 교지 : 20,605m²
- (3) 교사 : 1,567.30m² / 연건평 : 2,494.24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규모 : 2층
- (4) 연혁
 - 1952. 7.24. 주문진 중학교 현남분교 개교
 - 1953. 4.24. 현남중학교 6학급 인가
 - 1971. 3. 1. 학칙 변경 9학급 인가
 - 1985. 1.20. 교사 개축(1동 6교실)

- 1986. 2.12. 제32회 졸업식 거행
- 2003. 3. 1. 3학급 편성
- 2007. 3. 1. 특수학급 1학급 신설
- 2010. 2.11. 제56회 졸업식(졸업생 23명, 누계 5,210명)
- 2010. 3. 1. 제27대 서성균 교장 부임
- 2010. 3. 2. 2010학년도 입학식(15명)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8	40	23	17	10	4	6	5	1	4	56	5,210

(6) 역대교장

- | | | | | |
|----------|----------|----------|-----------|----------|
| 제1대 임보광 | 제2대 전차진 | 제3대 김원거 | 제4대 전노수 | 제5대 김정원 |
| 제6대 황세로 | 제7대 이군열 | 제8대 강진천 | 제9대 정성연 | 제10대 권덕명 |
| 제11대 김중수 | 제12대 권영주 | 제13대 전영동 | 제14대 정인수 | 제15대 정두교 |
| 제16대 이용선 | 제17대 김호기 | 제18대 조영길 | 제19대 नाम봉 | 제20대 최신익 |
| 제21대 손경선 | 제22대 이화자 | 제23대 이용익 | 제24대 장영철 | 제25대 홍성민 |
| 제26대 김형식 | 제27대 서성균 | | | |

10) 현북중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556-2
- (2) 교지 : 10,296㎡
- (3) 교사 : 1,415.73㎡ 연건평 : 1,731.22㎡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4) 연혁
 - 1967.10.28. 현북중학교 설립 인가(3학급)
 - 1968. 3. 5. 입학식 거행(1학급)
 - 1982. 3. 5. 학급증설 인가(9학급)

- 1982. 8. 3. 2교실 개축, 4교실 증축
- 2006.12.14. 급식소 및 4교실 증축
- 2010. 2. 11. 제40회 졸업식(총 2,641명 졸업)
- 2010. 3. 2. 입학식 거행(13명)
- 2010. 9. 1. 제22대 어광일 교장 부임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9	32	16	16	9	6	3	4	1	3	40	2,641

(6) 역대교장

- 제1대 이영우 제2대 이인석 제3대 이동춘 제4대 노영철 제5대 한영일
- 제6대 김양수 제7대 안 민 제8대 박승갑 제9대 이문우 제10대 정태교
- 제11대 최중운 제12대 민태식 제13대 옥현수 제14대 이동찬 제15대 김익선
- 제16대 이병을 제17대 최찬갑 제18대 박철이 제19대 김충길 제20대 김남섭
- 제21대 임영훈 제22대 이광일

11) 강현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강현면 정암2리 510-1번지
- (2) 교지 : 16,044㎡
- (3) 교사 : 1,996㎡ / 구조 : 콘크리트, 스라브 2층 / 규모 : 7학급
- (4) 연혁
 - 1933. 4. 1. 강현심상(降峴尋常)소학교(4학급)
 - 1938. 4. 1. 강현공립보통학교(6학급)
 - 1951. 9.29. 수복개교
 - 1996. 3. 1. 강현초등학교로 개칭
 - 2004.10.28. 교실 4칸 신축

- 2009. 9. 4. 급식소 준공
- 2010. 2.11. 제68회 졸업식 거행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7	12	64	35	29	13	5	8	3	2	1	68	3,538

(6) 역대 교장

- 제1대 이철우
- 제2대 김주정
- 제3대 김교국
- 제4대 안광정(수복후)
- 제5대 차홍성
- 제6대 조규형
- 제7대 김종극
- 제8대 김주경
- 제9대 최승조
- 제10대 정정일
- 제11대 최정규
- 제12대 김택용
- 제13대 김진무
- 제14대 최명수
- 제15대 김 식
- 제16대 함중환
- 제17대 최락보
- 제18대 최문철
- 제19대 김중영
- 제20대 전석규
- 제21대 최복철
- 제22대 조경현
- 제23대 양정식
- 제24대 서종기
- 제25대 이장수
- 제26대 조용근
- 제27대 최종덕
- 제28대 함영균

12) 광정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93
- (2) 교지 : 9,622㎡
- (3) 교사 : 1,389.4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 규모 : 6학급
- (4) 연혁
 - 1963. 4. 1. 현북국민학교 광정분교장 설립인가
 - 1967. 3.20. 광정국민학교 개교
 - 1996. 3. 1. 광정초등학교로 개칭
 - 2010. 2. 9. 제42회 졸업식 거행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6	6	54	33	21	9	5	4	3	3		42	1,131

(6) 역대교장

제1대 함중한 제2대 김형열 제3대 최경화 제4대 강태집 제5대 황하근
 제6대 박귀학 제7대 김재길 제8대 박영규 제9대 최장집 제10대 김원식
 제11대 신인선 제12대 정남교 제13대 최용학 제14대 최종만 제15대 정권철
 제16대 조영창 제17대 윤재철

13) 남애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남애3리 554번지

(2) 교지 : 13,265㎡

(3) 건물면적: 2,134㎡ / 규모 : 4학급

(4) 연혁

- 1963. 1. 7. 임호초등학교 남애분교장 설립
- 1965. 8.19. 남애국민학교로 승격
- 1984. 6. 2. 남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
- 1996. 3. 1. 남애초등학교로 개칭
- 2010. 2.12. 제42회 졸업식 거행(졸업생총수 1,368명)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행정실직원			무기계약직직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1	4	5	30(4)	18(3)	12(1)	7	3	4	2	1	1	2	-	2

※ ()의 숫자는 병설유치원 원아수임.

(6) 역대 교장

제1대 강태집 제2대 정충시 제3대 김두열 제4대 김남제 제5대 송해석
 제6대 김윤중 제7대 이영균 제8대 김진태 제9대 양정식 제10대 김진웅
 제11대 박상남 제12대 이규환 제13대 전영상

14) 상평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상평리 18번지
- (2) 규 모 : 대지면적 : 13,641㎡ / 건물면적 : 1,101.6㎡ / 구조 : 벽돌조 슬라브 2층
- (3) 기구(조직,구성)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유치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34	1	50	6	50	23	27	14	7	7	4	-	4	16

(4) 기능 및 사업

기 구	기능 및 사업
상평초등학교 교무부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상평초등학교 행정실	학교 회계 및 시설관리
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 교육과정 및 원아 인성교육 및 관리
상평초등학교 공수전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분교관리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분교관리

(5) 연혁

- 1934.10.10. 상평공립보통학교 개교
- 1961. 9. 1. 장승분교 설립
- 1981.10.27. 병설유치원 개설
- 1989. 3. 1. 공수전 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편입
- 1992. 3. 1. 현서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편입
- 1992. 3. 1. 갈천분교장 편입
- 2005. 3. 4. 6학급 편성
- 2010. 2.11. 제66회 졸업식 거행
- 2010. 3. 1. 제30대 교장 김시권 부임

(6) 역대 기관장

제1대 장우태랑 제2대 하함익태랑 제3대 강두유 제4대 남라석 제5대 서창하
 제6대 박희준 제7대 김명열 제8대 이성항 제9대 이종우 제10대 박유용

제11대 김우영 제12대 최승조 제13대 권혁주 제14대 김기열 제15대 박영성
 제16대 최종남 제17대 조이현 제18대 최명수 제19대 이건오 제20대 김태환
 제21대 오세하 제22대 김인영 제23대 조규홍 제24대 최병돈 제25대 권우석
 제26대 최명길 제27대 전상범 제28대 최명환 제29대 최홍길 제30대 김시권

15) 상평초등학교 공수전 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 (2) 규모 : 대지면적 : 4,146㎡ / 건물면적 : 349.13㎡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3) 기구(조직,구성)

연도	공립교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46	1	26	3	26	21	5	4	4				

- (4) 기능 및 사업

기 구	기능 및 사업
상평초등학교 공수전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분교관리

- (5) 연혁

- 1946. 5.25. 설립
- 1953.12.31. 공수전 국민학교로 승격
- 1970.12.10. 3교실 개축
- 1984. 2.18. 제31회 제 31회 졸업식 거행
- 1989. 3. 1. 상평초등학교 공수전 분교장(편입)

- (6) 역대 기관장

제1대 최창하 제2대 박희준 제3대 이정상 제4대 양재선 제5대 김준열
 제6대 정달인 제7대 김교진 제8대 김석년 제9대 김남희 제10대 최정규
 제11대 강태집 제12대 이윤기 제13대 박준열 제14대 최운철 제15대 김영록
 제16대 김진용 제17대 김형열 제18대 장용하(1989. 2.28.)

16)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서림리 78-1
- (2) 규모 : 대지면적 : 4,767㎡ / 건물면적 : 400.8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 (3) 기구(조직,구성)

연도	공립교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42	1	5	2	5	5		3	2	1	1		1

- (4) 기능 및 사업

기 구	기능 및 사업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분교관리

- (5) 연혁

- 1942. 9.20. 현서초등학교 개교
- 1956. 9.26. 교실 4개 개축
- 1976. 7.24. 교사 신축
- 1992. 3. 1.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편입
- 2005. 8.17. 현서분교 현 교사 준공
- 2005. 2.17. 현서분교장 57회 졸업

- (6) 역대 기관장

제1대 김주경	제2대 김동시	제3대 안광형	제4대 최창학	제5대 김홍배
제6대 이영모	제7대 정달인	제8대 김준열	제9대 신갑영	제10대 최정규
제11대 강영화	제12대 운동만	제13대 홍진표	제14대 전영찬	제15대 김남제
제16대 김도석	제17대 김윤중	제18대 심상집		

17) 상평초등학교 갈천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갈천리

- (2) 교지 : 2,777m² / 대지 : 551m² / 체육장 : 2,226m²
- (3) 교사 : 110m² / 구조 : 목조 / 규모 : 1학급(복식학급) 3개 학년
- (4) 연혁
 - 1949. 3.31. 개교
 - 1992. 3. 1. 갈천분교장으로 격하
 - 1999. 2.10. 상평초등학교로 통합

18) 상평초등학교 장승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장승리 366
- (2) 대지 : 13,923m²
- (3) 교사 : 2,478m² / 구조 : 벽돌, 슬라브 단층
- (4) 규모 : 단층 6개 교실, 숙직실 1동, 숙사 2동, 창고 1동(폐교 후 철거됨)
- (5) 연혁
 - 1956. 3. 1. 상평국민학교 장승분실(4학급)
 - 1972. 3. 1. 상평국민학교 장승분교장 인가(4학급)
 - 1973. 3. 1. 장승분교 6학급 인가
 - 1994. 3. 1. 상평초등학교로 통합

19) 손양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41번지
- (2) 교지 : 22,694m²
- (3) 교사 : 952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2층 / 기구 : 6학급
- (4) 연혁
 - 1934. 4. 1. 개교(1,2학년 복식학급)
 - 1952. 6. 5. 송포, 상운분교 개교

- 1954. 1.31. 송포, 상운교 승격분리
- 1996.12.16. 교사 신축
- 2007.11. 4. 교실 2칸 증축
- 2010. 2.11. 제71회 졸업식 거행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6	7	55	29	26	10	6	4	4	4		71	2,994

(6) 역대교장

- | | | | | |
|----------|-----------|----------|----------|----------|
| 제1대 소야무 | 제2대 적벽원지보 | 제3대 교 장 | 제4대 정년옥 | |
| 제5대 최지영 | 제6대 박유용 | 제7대 박희준 | 제8대 오재정 | 제9대 장두순 |
| 제10대 김주경 | 제11대 최중현 | 제12대 김교진 | 제13대 김재길 | 제14대 최승조 |
| 제15대 최종남 | 제16대 김남구 | 제17대 강태집 | 제18대 김창남 | 제19대 김무열 |
| 제20대 김진을 | 제21대 최갑규 | 제22대 홍현일 | 제23대 조규명 | 제24대 최윤철 |
| 제25대 민홍식 | 제26대 전영주 | 제27대 마종학 | 제28대 전문식 | 제29대 장종대 |

20) 상운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345번지
- (2) 교지 : 13,047㎡
- (3) 교사 : 516㎡ / 구조 : 벽돌 슬라브 단층 / 기구(조직, 구성) : 6학급
- (4) 연혁
 - 1952. 6. 1. 손양국교 상운분교 인가
 - 1953.12.31. 상운국민학교로 승격
 - 1981. 3. 5. 병설유치원 개원
 - 1999. 2.19. 제44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377명)
 - 1999. 8.31. 손양초등학교와 통합

(5) 역대교장

제1대 장진국	제2대 원봉상	제3대 송해석	제4대 김무길	제5대 최창탁
제6대 최돈기	제7대 권혁용	제8대 박귀학	제9대 선갑영	제10대 심상신
제11대 최연화	제12대 운동만	제13대 오제정	제14대 이영익	제15대 김창남
제16대 박재원	제17대 전병선	제18대 최원길	제19대 황용한	제20대 최종열

21) 송포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2-1

(2) 교지 : 8,836㎡

(3) 교사 : 991㎡ / 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 / 규모 : 4학급

(4) 연혁

- 1951. 9. 1. 손양초등학교 송포분교장 설립인가
- 1953. 9.30. 송포초등학교 승격
- 1955. 3.21. 제1회 졸업식 거행
- 2007. 3. 1. 제23대 교장 김진화 부임
- 2007.12.31. 2007 강원도교육활동유공학교 표창장 수상
- 2009.12.15. 제8회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상 수상
- 2010. 2.10. 제56회 졸업식(졸업생총수 1,625명)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4	8	32	15	17	6	4	2	2	1	1	56	1,625

(6) 역대 교장

제1대 한용한	제2대 최병욱	제3대 장계동	제4대 박대균	제5대 최창학
제6대 최 상	제7대 이영모	제8대 장영복	제9대 박준열	제10대 이윤기
제11대 최명수	제12대 조수현	제13대 양정식	제14대 김화기	제15대 김경남

제16대 최두규 제17대 박경원 제18대 김진익 제19대 전영주 제20대 신성만
제21대 홍렬표 제22대 조운신 제23대 김진화

22) 양양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20번지
- (2) 교지 : 43,364m²
- (3) 교사 : 45실, 급식소 및 체육관 1,769m²
- (4) 구조 : 철근콘트리트 3층, 일부 2층
- (5) 기구 및 규모 : 일반학급- 30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1학급
- (6) 연혁
 - 1906. 9. 8. 사립 현산학교 설립
 - 1910. 4. 1. 양양공립보통학교 개교
 - 1951. 9. 1. 수복 양양국민학교로 개교
 - 1993. 3. 1. 화일본교장 통합
 - 1996. 3. 1. 양양초등학교로 개칭
 - 2005. 8.22. 현산관 준공(체육관, 식당)
 - 2006. 9. 8. 백년관 개관 및 백주년 기념식
 - 2007. 9. 1. 제29대 교장 전관홍 취임
 - 2008. 3. 1. 남천초등학교 통합
 - 2010. 2.11. 제88회 졸업식(총 11,193명)
- (7) 학교 현황 (2010. 3. 1. 현재)

구분 \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유치원
학급수	4	4	5	6	5	5	1	31	1
남	62	54	77	76	77	96	2	442	16
여	53	45	63	87	61	57	1	366	12
계	115	99	140	163	138	153	3	808	28

(8) 직원 현황

()는 부장교사

직급 구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담임 교사	전담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영어 체험 장	행정 실장	행정 실	수영 코치	보조 원	조리 종사	계
남	1	1	2	6(1)	1(1)	·	·	·	·	·	1	1	3	·	1	·	15
여	·	·	4	24(2)	4(2)	1	1	1	1	1	3	·	3	1	10	8	57
계	1	1	6	30(3)	5(3)	1	1	1	1	1	4	1	6	1	11	8	72

(9) 시설 현황

(단위: m², 실)

교지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교사연구지원시설		기타
총면적	운동장	일반 학급	특수 학급	유치원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 실	교장실	행정실	보건실	방송실	교무실	전담실	급식소 체육관
40,982	2,382	30	1	1.5	2	1	2	1	1	0.5	0.5	1.5	0.5	1,769

(10) 역대 교장

제1대 남궁억(1906. 9. 8.) 제2대 국수정길(1919. 4. 1.) 제3대 중촌태량(1941. 3.25.)
 공산치하(1945.~1950.) 제4대 박유룡 제5대 함종악 제6대 최지영
 제7대 김태선 제8대 최지영 제9대 김종극 제10대 장두순 제11대 김종극
 제12대 이봉수 제13대 김홍근 제14대 정정일 제15대 김준열 제16대 박영성
 제17대 김재순 제18대 박익훈 제19대 김인영 제20대 김헌기 제21대 이석기
 제22대 김태환 제23대 전형표 제24대 최두규 제25대 임만근 제26대 조병률
 제27대 김성영 제28대 전상범 제29대 전관홍

23) 양양초등학교 화일분교장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120~2번지

(2) 연혁

- 1940. 4. 1. 양양동심상소학교 화일간이학교 개교
- 1955. 9. 1. 양양국민학교 화일분실
- 1965. 8. 9. 양양초등학교 화일분교장 인가

- 1966. 3. 7. 양양초등학교 화일분교장 개교
- 1970. 8.12. 교사 신축 준공(숙직실 1동 포함)
- 1980. 3. 1. 2학년 편성 인가
- 1983.11.15. 교사 1동 신축
- 1993. 3. 1. 양양초등학교에 통합

24) 남천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도리 33번지
- (2) 교지 : 11,055㎡ / 대지1,443㎡ / 체육장8,824㎡
실습지1,070㎡ 학교림48,906㎡
- (3) 교사 : 492㎡
- (4) 구조 : 벽돌 슬라브 1층
- (5) 연혁
 - 1955. 3.29. 현성초등학교 장리분교 개교
 - 1961. 4. 1. 남천국민학교로 승격 개교
 - 1996. 3. 1. 남천초등학교로 개명
 - 1998.10.27. 교사 개축 준공(614㎡)
 - 2004. 6. 9. 급식소 준공
 - 2008. 2.15. 제47회 졸업식 거행(졸업자수 총 859명)
 - 2008. 3. 1. 양양초등학교에 통합
 - 2008. 3. 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남천체험학습장 개장
- (6) 역대 교장

제1대 최종남	제2대 김형열	제3대 김태환	제4대 정호선	제5대 구태현
제6대 전영찬	제7대 김순경	제8대 박형식	제9대 이진우	제10대 신익순
제11대 고광진	제12대 어명훈	제13대 장 욱	제14대 조이현	제15대 이종우
제16대 김학근	제17대 최돈운	제18대 김진근		

25) 오색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오색1리 307-1
- (2) 교지 : 6,862㎡
- (3) 교사 : 342.8㎡ 연건평 : 342.8㎡
- (4) 구조 : 벽돌조 스라브
- (5) 규모 : 단층 3학급
- (6) 연혁
 - 1958. 4. 4. 사립학원 설립
 - 1960. 4. 1. 공수전 국민학교 분실 지정
 - 1961. 4. 1. 공수전초등학교 오색분교장 인가
 - 1961.11. 1.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장 개편
 - 1968. 3. 1. 오색국민학교로 승격
 - 1968. 4. 1. 오색초등학교 개교식 거행
 - 1983. 3. 1. 오색초등학교 6학급 인가
 - 1996. 3. 1. 오색초등학교로 개명

(7) 학교현황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3	4	10	6	4	4	2	2	2	1	1	42	479

(8) 역대 교장

제1대 전규진	제2대 홍양표	제3대 김경호	제4대 최명수	제5대 전석규
제6대 김형열	제7대 최종욱	제8대 박희순	제9대 김진범	제10대 민용기
제11대 김영찬	제12대 김남제	제13대 윤중학	제14대 최선익	제15대 이정식
제16대 최홍영	제17대 최돈균			

26) 인구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인구1리 27번지
- (2) 교지 : 31,560m²
- (3) 교사 : 1,165m²
- (4) 구조 : 벽돌,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
- (5) 규 모 : 7학급
- (6) 연혁
 - 1922. 8.24. 인구보통학교 설립인가
 - 1923. 5.10. 개교
 - 1924. 3.23. 제1회 졸업식 거행
 - 1981. 3. 1. 병설유치원 개원
 - 2010. 2.13. 제85회 졸업식
- (7)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7	12	73	33	40	13	4	9	3	2	1	85	5,868

(8) 역대교장

제1대 안천민지필 제2대 귀충도성 제3대 상도고차낭 제4대 굴강열삼
 제5대 석원도 제6대 수곡영우 제7대 길전풍치 제8대 서천오낭 제9대 송정무
 제10대 우강시십낭 제11대 김종오 제12대 이치억 제13대 홍순창
 제14대 홍순각 제15대 김주경 제16대 최달규 제17대 손충구 제18대 정정일
 제19대 박대균 제20대 권중갑 제21대 최종남 제22대 오세하 제23대 정중훈
 제24대 고석주 제25대 김좌기 제26대 최오규 제27대 황부남 제28대 최복길
 제29대 최종국 제30대 이종민 제31대 이성환 제32대 정호익 제33대 김학근
 제34대 차상덕 제35대 황철수

27)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258-2
- (2) 교지 : 11,421㎡
- (3) 교사 : 637.30㎡
- (4)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스투브 단층
- (5) 규 모 : 3학급
- (6) 연혁
 - 1941.12. 8. 인구국민학교 임호간이학교 개교
 - 1943. 6.15. 임호국민학교로 승격 개교
 - 1958. 8.27. 월천분교장 설립인가
 - 1963. 1. 7. 남애분교장 설립인가
 - 1984. 3. 1. 월천분교 4학급 편성
 - 1984. 8.24. 병설유치원개원
 - 2000. 3. 1. 분교장 격하(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 (7)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7	14	3	11	3	0	3	2	2		55	2,072

(8) 역대 교장

제1대 김백순	제2대 김봉익	제3대 홍순각	제4대 서금택	제5대 이덕희
제6대 김재순	제7대 권중갑	제8대 이규천	제9대 고석주	제10대 권혁주
제11대 김윤중	제12대 박귀학	제13대 최복길	제14대 최장관	제15대 권중갑
제16대 최정규	제17대 박귀학	제18대 한준호	제19대 조일현	제20대 전재영
제21대 정총시	제22대 이건오	제23대 전동국	제24대 전영찬	제25대 김종성
제26대 강태홍	제27대 김진을	제28대 김이상	제29대 우종숙	제30대 김진국
제31대 최승만	제32대 김진목			

28) 임호초등학교 월천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월천리
- (2) 교지 : 4,920㎡
- (3) 교사 : 232㎡
- (4) 구조 : 벽돌 스투브(폐교 후 철거됨)
- (5) 규 모 : 3학급
- (6) 연혁
 - 1985. 8.27. 임호국민학교 월천분교설립인가
 - 1984. 3. 1. 월천분교 4학급 편성
 - 2000. 3. 1. 임호분교장으로 통합

29) 조산초등학교

- (1) 위치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50-5
- (2) 규모 : 대지면적 : 20,953㎡ / 건물면적 : 2,20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기구(조직, 구성)

○ 학생현황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유치원
남	5	8	6	9	8	7	43	6
여	4	3	8	10	6	12	43	4
계	9(1)	11(1)	14(1)	19(1)	14(1)	19(1)	86(6)	10

○ 교직원 현황

구 분	교 원			행정직		기타직	계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기능직		
남	1	1	2	1	2	-	7
여	-	-	7	-	1	6	14
계	1	1	9	1	3	6	21

(4) 기능 및 사업 : 교육사업

(5) 연혁

- 1944. 4.10. 조산공립초등학교 개교
- 1996. 3. 1. 조산초등학교로 명칭변경
- 1999. 9. 1. 적은분교장 폐교통합
- 2001.12.27. 강원도교육청 선정 새학교문화 최우수학교 표창
- 2003. 9. 1. 제25대 교장 박창섭 부임
- 2004.12.31. 강원도교육청 선정 학교평가 우수교
- 2005.12.29. 우수연구학교 우수상 수상(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
- 2007.12. 5. 제6회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상 수상(강원도교육감)
- 2008. 1.16. 행복한 학교 가꾸기 강원도교육감표창 수상
- 2009. 2. 4. 조산초등영어체험교실 개관
- 2009.12.21. 2009생활지도 유공학교 강원도교육감 표창
- 2010. 2.10. 제59회 졸업식(총 2,407명)

(6) 역대교장

제1대 김봉만	제2대 김주형	제3대 김동각	제4대 김명열	제5대 최병옥
제6대 김남섭	제7대 김택용	제8대 문명달	제9대 이종하	제10대 백운하
제11대 김헌기	제12대 조병석	제13대 이건오	제14대 정중훈	제15대 김종영
제16대 이강국	제17대 김태환	제18대 김형열	제19대 김규린	제20대 조병률
제21대 김봉남	제22대 김규린	제23대 정호익	제24대 강희명	제25대 박창섭

30) 조산초등학교 적은분교장

(1) 소재지 : 양양군 강현면 적은리 84번지

(2) 교지 : 7,092m²

(3) 교사 : 438m²

(4) 구조 : 벽돌, 슬라브 1층

(5) 규 모 : 5학급, 교사1, 숙직실1, 숙사2, 목욕탕1, 관사1, 화장실1

(6) 연혁

- 1942. 4. 1. 적은국민학교 개교
- 1954. 9. 1. 강현국민학교 금풍분교 개교
- 1952. 4. 1. 적은국민학교 인가(6학급)
- 1981. 8. 1. 교사 개축(7교실)
- 1992. 3. 1. 조산국민학교 적은분교장으로 격하
- 1999. 2.17. 제45회 졸업식 거행
- 1999. 9. 1. 조산초등학교로 통합

(7) 역대교장

제1대 김호경	제2대 조규동	제3대 최영조	제4대 김기형	제5대 황의겸
제6대 고석주	제7대 최진집	제8대 정달인	제9대 김남섭	제10대 김흥배
제11대 강태집	제12대 박형극	제13대 김영순	제14대 김도석	제15대 김영순
제16대 김규인				

31) 한남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용천리 505

(2) 대 지 : 8,343m²

(3) 교사 : 483m² 연건평 : 859m²

(4) 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 슬라브

(5) 규 모 : 교실8실, 관사1동, 숙직실1동, 다목적실1동, 창고1동

(6) 연혁

- 1952. 4. 5. 상평국민학교 용천분교장 설립 인가
- 1953. 4. 1. 한남국민학교 개교
- 1989.10.14. 교실 7동 개축
- 1996. 3. 1. 한남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 2002. 8.31. 태풍 “루사”로 건물5채완파, 교사1층침수, 물품피해2억원
- 2005.11.23.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완공
- 2008.10. 2. 다목적실 준공
- 2009. 4.27. 학교도서관 개관
- 2010. 2.10. 제53회 졸업식 거행

(7) 학교현황

연도	선립별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공립	6	8	19	25	44	10	4	6	3	1	2	56	1,340

(8) 역대교장

- | | | | | |
|----------|----------|----------|----------|----------|
| 제1대 김기형 | 제2대 김준열 | 제3대 김해룡 | 제4대 최 상 | 제5대 김진용 |
| 제6대 김진무 | 제7대 강영화 | 제8대 김준열 | 제9대 김태환 | 제10대 김형렬 |
| 제11대 김창남 | 제12대 김중영 | 제13대 김진유 | 제14대 전형표 | 제15대 김원식 |
| 제16대 이규홍 | 제17대 손각규 | 제18대 이재풍 | 제19대 김만기 | 제20대 이창식 |
| 제21대 김영금 | 제22대 이철수 | 제23대 김종영 | 제24대 신재하 | |

32) 현북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577

(2) 교지 : 47,917m³

(3) 교사 : 673.62m³ / 구조 : 시멘트벽돌조슬라브 2층 / 학급편성 : 3학급

(4) 연혁

- 1931. 4. 1. 현북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 1931. 4.23. 현북공립보통학교 개교
- 1937. 4. 1. 현성간이학교 분리
- 1966.11.11. 광정초등학교 분리
- 1996. 3. 1. 현북초등학교로 명칭 개칭

○ 2007. 9. 1. 제 43대 권혁용 교장 취임

(5) 학교현황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3	13.5	17	5	3	2	5	2	3	64	2,016

(6) 역대교장

- 제1대 김순석 제2대 천천태랑 제3대 일류무웅 제4대 전구주덕 제5대 영목용웅
- 제6대 구보주차 제7대 안광형 제8대 오세풍 제9대 변종덕 제10대 정경화
- 제11대 신태운 제12대 탁두호 제13대 최용건 제14대 오제정 제15대 김동각
- 제16대 이종우 제17대 박유용 제18대 최창학 제19대 박희준 제20대 김학경
- 제21대 김기형 제22대 최진집 제23대 김완식 제24대 권중갑 제25대 박귀학
- 제26대 최정규 제27대 강영화 제28대 홍무표 제29대 박준열 제30대 구태현
- 제31대 김남제 제32대 황하근 제33대 오제정 제34대 황근각 제35대 조수현
- 제36대 김진학 제37대 황영주 제38대 최돈빈 제39대 최돈창 제40대 최호철
- 제41대 이정식 제42대 윤정태 제43대 권혁용

33) 현성초등학교

(1) 소재지: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531번지

(2) 교지 : 21,595㎡

(3) 교사 : 6,194㎡ / 구조 : 벽돌, 스라브 1층 총 10동 / 규모 : 3학급

(4) 연혁

- 1934.10. 1. 현북공립보통학교 부설 현성간이학교 개교
- 1937. 4. 1. 현성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인가 개교
- 1966. 3. 1. 면옥치분교장 설립
- 1973. 3. 1. 범수치분교장 설립
- 1986. 9. 1. 병설유치원 개원

- 1997. 2.28. 면옥치분교장폐교
- 2007. 2.28. 법수치분교장폐교
- 2010. 2.10. 제64회 졸업식 거행(1,220명 졸업)
- 2010. 3. 1. 제33대 교장 김홍열 부임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졸업생수		유치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2010	1	3	6	36	16	20	5	3	2	6	3	3	64	4	10

(6) 역대 교장

- | | | | | |
|----------|----------|----------|----------|----------|
| 제1대 장태갑 | 제2대 김정열 | 제3대 안광형 | 제4대 이석수 | 제5대 이윤기 |
| 제6대 권중갑 | 제7대 신원식 | 제8대 날현기 | 제9대 김석년 | 제10대 임원감 |
| 제11대 이영기 | 제12대 최 상 | 제13대 추종두 | 제14대 김기형 | 제15대 최익환 |
| 제16대 박광휘 | 제17대 김남섭 | 제18대 최종두 | 제19대 오세하 | 제20대 김승호 |
| 제21대 오제정 | 제22대 박형식 | 제23대 고광진 | 제24대 김도식 | 제25대 박재원 |
| 제26대 김홍식 | 제27대 강창우 | 제28대 강창우 | 제29대 김덕기 | 제30대 전세남 |
| 제31대 박재근 | 제32대 김시권 | 제33대 김홍열 | | |

34) 현성초등학교 면옥치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 (2) 교지 : 5,533m² 운동장 4,473m² 실습지 1,565m²
- (3) 교사 : 165m² / 구조 : 벽돌, 슬라브 / 기구 : 2학급
- (4) 연혁
 - 1966. 3. 1. 면옥치분교 개교
 - 1996. 2.16. 제23회 졸업식 거행(총 75명)
 - 1997. 2.28. 현성초등학교로 통합

35) 현성초등학교 범수치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범수치리 102
- (2) 교지 : 6,423㎡
- (3) 교사 : 882㎡ / 구조 : 벽돌, 슬라브 단층 / 기구 : 2학급
- (4) 연혁
 - 1973. 3. 1. 범수치분교 개교
 - 1973.12.28. 2교실 준공
 - 1999. 2.18. 제19회 졸업식 거행(총56명)
 - 2007. 3. 1. 현성초등학교로 통합

36) 회룡초등학교

- (1)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190
- (2) 규모 : 대지면적 : 13,523㎡ / 건물면적 : 1,216㎡ / 구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층
- (3) 기능 및 사업 : 미래 사회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인성교육실시
- (4) 연혁
 - 1936. 4. 1. 강현공립학교 부설 회룡간이학교 개교
 - 1945. 4. 1. 회룡국민학교 설립인가
 - 1996. 3. 1. 회룡초등학교 개명
 - 2010. 2.11. 제56회 졸업식 거행(총 졸업생 1,680명)
- (5) 역대교장

제1대 이영식	제2대 정대규	제3대 김대하	제4대 김교진	제5대 김준열
제6대 최승조	제7대 김종극	제8대 한준호	제9대 김남섭	제10대 윤동만
제11대 김형열	제12대 최태근	제13대 최영옥	제14대 김순경	제15대 박형식
제16대 신두승	제17대 권태경	제18대 장 호	제19대 정권철	제20대 종영창
제21대 김남익	제22대 최현식			

참고문헌

- 강릉대학교 박물관. 강원도 양양군, 1994,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5책: 289.
- 강원도 교육위원회, 1980, 강원교육사.
- 권오석, 1994, 「서당교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10, 서지학회.
- 김익열, 1996, 「양양군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김종철, 1990,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철수, 「양양지방의 초등교육발달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8.
- 양양군, 2006, 『양양백서』
- 양양군, 2008, 『양양군통계연보』
- 양양군교육청, 1968, 『향토지』
- 양양문화원, 1976, 『향토지』
- 양양문화원, 2000, 남궁역의 계몽운동과 민족교육. 양양문화원.
- 양양여자고등학교, 2009, 2009학년도 양양여고 학교교육계획서.
- 양주시편찬위원회, 1990, 『襄州誌』, 양양군.
- 이시용·괴정만, 2000, 지방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조성일·신재흠, 2005, 한국교육행정사 발달연구, 서울: 집문당.
- 정원식·박성수편, 1999, 한국교육문제론, 서울: 교육과학사.

〈참고자료〉

- 東溟書院奉安文(동명서원봉안문).
- 東溟書院重創記(동명서원중창기).
- 東溟書院遺墟碑文(동명서원유허비문).
- 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1906. 8. 17).

〈인터넷자료〉

- <http://www.unityinfo.co.kr/bbs.html> · Table=ins_bbs3&mode=view&uid=33&page=12§ion=.
- <http://blog.naver.com/nlboman/68308440>.



II. 불교

1. 머리말

양양군의 지세는 동쪽은 동해에 면하고 북쪽과 서·남쪽은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한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설악산 연봉으로부터 발원한 남대천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하천들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요건들은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으로 다른 지역보다 유구하고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많다. 즉 손양면 도화리의 구석기시대 유적과 오산리·송전리·남양리 등지의 신석기시대 유적들이 산재하고 신라시대의 고분군이 여러 곳에 있으며 진전사와 그 옛터, 선림원 옛터, 오색석사 옛터, 신흥사, 영혈사, 명주사 등의 고찰(古刹)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에 불교가 수용된 것은 고구려에서 소수림왕 2년(372년)에 백제에서는 침류왕 원년(384년)에 신라는 법흥왕 15년(528년)에 이차돈이 순교한 후 공인되었음을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렇듯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4세기 후반부터 불교가 수용되었는데 처음에는 삼국이 그들의 왕도에서 인정 포교되면서 점차 각 지방으로 알려져 교세가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삼국기 말까지는 대체로 전국토에 불교가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어떠한 곳이든 모든 지역에 불교의 교세가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또는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쉽게 수용된 곳도 있고 어렵게 전파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라에서는 이차돈의 순교가 있어 비로소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양군의 불교를 생각해 볼 때 「양양군」이라기보다는 「양양지역」이라 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 불교가 전파될 당시에는 삼국 중 어느 나라의 영

역이었던가를 밝히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대가 올라갈수록 군계(郡界)를 알 수 없으며 국경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양지역의 불교」 즉, 지금의 양양군역을 중심한 주변 일대의 불교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불교가 넓게 전파된 삼국시대 말엽에는 이곳이 신라의 영역에 속했던 지역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양지역의 불교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고대문헌을 비롯한 근·현대까지의 각종 문헌에 보이는 사찰의 존재와 존속사실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찰들이 각 시대를 거치면서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되었던가를 최대한 밝혀 보고자 한다.

2. 문헌에 보이는 옛 사찰

고대의 문헌들을 비롯하여 근·현대까지의 문헌들에게 양양지역의 사찰관계 내용을 알기 위하여 사찰명(寺刹名)을 열거하려고 한다. 우선 문헌들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조당집』을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국여지지』, 『범우고』, 『관동지』, 『대동지지』, 『관동읍지』, 『사찰사료』, 『건봉사본말사적기』, 『한국사찰전서』, 『강원도지』, 『현산지』 등 여러 가지 문헌에 사찰 혹은 불교와 관계된 기록이 있는데 이들 기사에서 개창되었던 사찰만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사찰이 양양지역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괄호 안의 내용은 위치와 현재까지의 존속 여부를 밝힌 것임을 부언한다.

- 낙산사 : 동쪽 15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 영혈사 : 서쪽 2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 명주사 : 남쪽 5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 신흥사 : 북쪽 5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 내원암 : 신흥사 북쪽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 계조암(굴) : 동북쪽 5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 진전사 : 서북쪽 30리에 위치함.(최근에 복원함)

- 도적사 : 서남쪽 40리 정족산에 위치했던 사찰.(폐사됨)
- 서선사 : 존재만의 기록으로 위치표시가 없음.(폐사됨)
- 사용사 : 북쪽 50리에 위치했던 사찰.(폐사됨)
- 소림암 : 신흥사 동쪽에 있던 암자임.(폐사됨)
- 원통암 : 명주사 동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보련암 : 명주사 북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개운암 : 남쪽 60리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오색석사 : 오색천 상류 남설악골에 있던 사찰임.(폐사됨)
- 안심암 : 내원암 서쪽 계곡에 있던 암자임.(폐사됨)
- 향노암 : 운문암 위쪽에 있던 암자임.(폐사됨)
- 취원암 : 영혈사 서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백학암 : 영혈사 서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길상암 : 개운사 서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둔전사 : 서북쪽 30리에 있던 사찰임. 진전사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폐사됨)
- 현곡사 : 오색천 상류에 있었던 암자라 하였는데 오색석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폐사됨)
- 학소암 : 진전사 북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사림사 : 서쪽 40리에 위치했던 사찰인데 선림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폐사됨)
- 서림사 : 서쪽 30리에 위치했던 사찰(폐사되었으나 석탑과 석불이 남아있음)
- 선정사 :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제16대 인조 22년(1644년)에 이전하여 신흥사가 되었다.(신라시대의 3층 석탑이 남아있음)
- 인월암 : 이화정 남쪽 언덕에 있었던 암자(폐사됨)
- 화엄사 : 북쪽 50리에 위치함.(폐사됨)

이상과 같이 문헌에 보이는 사찰들을 열거하여 28개의 사찰의 명칭을 기록하였으나 대부분이 폐사되고 현재까지 범등을 밝히고 있는 사찰은 7개소에 불과하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된 뒤에 다시 일으키는 중창불사가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웠던 때

문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런데 양양지역에만 28개소의 사찰이 개창되고 그 중 7개소의 사찰이 오늘날에도 등축을 밝히고 있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의 교세가 일찍부터 강했었으며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양양군내 곳곳에서 법등을 밝히고 목탁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3. 삼국시대

양양지역은 삼국기 이전에 예(濊)나라였으나 고구려 강성기에는 고구려에 편입되었으며 5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러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다툼으로 격전장이 되기도 하였다. 5세기 말엽부터 6세기에 들면서 신라가 북진정책을 펴나가 양양지역은 신라의 영향력하에 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불교가 양양지역까지 포용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의문일 것인데 여기에는 자장율사(慈藏律師)와 오대산 월정사 창건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오대산 월정사(月精寺)를 신라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창건 당시에는 임시로 작은 암자를 지어 주석하면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유동보살(儒童菩薩)의 화신이라고 전하는 신희거사(信孝居士)가 이 절에 머물렀고 범일국사의 제자였던 신의(信義)는 자장율사가 주석하던 이곳을 찾아와서 암자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다. 한편 낙산사의 사적을 살펴보면 신라 문무왕 11년(671년)에 의상(義湘)대사가 창건하였는데 의상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자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이 낙산의 동쪽 바닷가 굴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친견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아왔다. 이후 동해의 용이 여의보주(如意宝珠) 한 알을 받치니 의상은 이 보주를 모셔 7일간 재계하고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보았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이르기를 “좌상(座上)의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였다.

의상은 그곳에 금당(金堂)을 짓고 관음상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절 이름을 낙산사(洛山寺)라 하였다. 창건 후에 원효대사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이곳 낙산사를

방문하였다는데 원효가 절에 이르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만나게 되었으나 알아보지 못하였고 낙산사에 가서도 풍량이 심하여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굴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곳의 사찰은 월정사가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창건되었고 낙산사가 문무왕 11년(671년)에 개창되었다는 것으로 때는 삼국기 신라 하대로부터 말엽에 이른다. 예컨대 신라의 불교 공인이 법흥왕 15년(528년)이라 하나 기록과 현지의 답사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 때(417~457년)에 낙동강 유역인 일선군(一善郡 :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을 말함) 모례장자(毛禮長者) 집에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와서 기거하였으며 도리사(桃李寺)를 창건하여 일찍부터 불교가 신라의 변경지방에 전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양지역에도 7세기 중반부터 사찰이 두 곳에 창건되었으니 어느 정도의 불교 전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장율사와 의상대사, 원효대사들이 모두 당시의 고승으로 삼국기말부터 통일신라시대의 초엽에까지 활동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렇듯 양양지역은 삼국기말부터 불교의 교세가 자리잡고 있어서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여러 사찰이 창건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신흥사에 대해서도 현재는 속초시의 관할이나 본래는 양양군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찰의 사적을 살펴볼 때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칭하였으며 당시 계조암과 능인암도 함께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는 효소왕 7년(698년)에 능인암과 함께 불에 탔으며 이 자리에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대사가 능인암 옛터로 사찰을 옮기어 향성사를 중창하고 절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개칭하였다. 이때에 의상대사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으며 이후 선정사는 오랫동안 번창하였다. 이러한 사적을 보았을 때 신흥사도 그 초창은 삼국기 신라의 하대 후반이 되므로 이 지역의 불교가 삼국기부터 수용되어 포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통일신라시대

7세기 중반인 삼국시대 후반부터 양양지역은 고신라의 영역이 되어 당시 신라불교가 전파되고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양양지역에 사찰이 창건되고 불교가 자리잡으며 교세가 떨쳤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의 사찰들이 창건조사(創建祖師)로 자장율사와 의상대사, 원효대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들 3조사는 당시의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제일의 고승이었으므로 어떠한 사찰이나 암자에서도 창건조사를 이 3조사 중의 한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즉 자장율사(진평왕 12년, 590~태종무열왕 5년, 658년)는 7년간 당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와 대국통(大國統)이라는 승려최고의 자리에 임명되었으며 신라 국보인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것은 불력(佛力)에 의하여 나라를 지킨다는 신앙심만이 아니라 신라의 수도인 경주 중심부에 거대한 탑을 세움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신라의 국력을 과시하고자 한 큰 뜻이었으니 과연 자장율사의 위치가 절대적이었음을 곧 알 수 있다. 그리고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도 자장율사의 뒤를 이어 통일초기의 불교를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은 당시 최고의 고승대덕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국적으로 사찰의 창건조사를 거론할 때 대부분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은 모든 사찰이 그들의 위상과 법통의 전통성을 자랑하며 높이려는데 있는 것이다.

앞에서 고대로부터 양양지역에 창건되었던 사찰들로 28사를 열거하였으나 존재하였다는 것뿐이지 창건이후의 사적과 관계내용에 관하여는 전해지지 않는 사찰들이 훨씬 많다. 그리하여 현재도 등축을 밝히고 있는 사찰, 옛절터와 사찰명이 정확한 옛절, 절터와 그의 사적, 문헌기록이 일치하는 사찰들만을 선택하여 그 사찰들의 사적을 살펴봄으로써 양양지역의 통일신라시대 불교를 조명하려는 바 이러한 사찰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 낙산사 | 2) 신흥사 | 3) 진전사 | 4) 영혈사 |
| 5) 화엄사 | 6) 내원암 | 7) 계조암 | 8) 오색석사지(현곡사) |
| 9) 선림원지(사림사) | 10) 둔전사(진전사) | | |

1) 낙산사(강현면 전진리)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위치한 낙산 상봉 가까이에 자리잡은 사찰이다. 양양읍에서 북쪽으로 약 7km 거리인데 지리적으로 동해와 접하고 있으며 낙산[일명 오봉산이라고도 함]의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경사면의 가장 평탄한 능선 위에 가람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사찰의 주축 방향은 낙산의 산세에 따라 북서쪽에서 남동을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낙산사는 천하 제일의 명당 자리에 세워진 사찰로 전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문무왕 11년(671년)에 통일신라 초기 제일의 고승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한다. 낙산사의 사적에 대해서는 만해 한용운 저술의 『낙산사사적(洛山寺事蹟), 1928』 외에 여러 기록이 있으나 이들 사료는 모두 조선시대 이후에 편찬된 것이며 창건 후 고려시대까지의 내용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낙산사에 관계된 조선시대의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고도 많은 편이며 화재로 소실되고 중창된 사실이 많아 창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340년간 어느 사찰보다도 변화가 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낙산사는 창건 배경과 역사성, 그리고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 등으로 이름났거니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의상대사가 직접 이곳에 와서 낙산사의 위치를 점지하고 창업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찰이다. 의상대사는 신라 진평왕 47년(625년)에 탄생하여 성덕왕 원년(702년)에 입적한 한국 화엄종의 개조(開祖)로 당시 원효대사와 쌍벽을 이루었던 고승이다. 성은 김씨이고 한신(韓信)의 아들이다. 19세 때 경주 황복사에 출가하였는데 그 후 중국으로 구법하기 위하여 원효대사와 함께 요동으로 갔으나 고구려의 순라꾼에게 잡혀 정탐자로 오인을 받고 수십일동안 감금되었다가 신라로 돌아왔다. 10년 후인 문무왕 원년(661년)에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의 당나라에 도착한 후 처음 양주(揚州)에 갔을 때 주장(州將) 유지인(劉至仁)이 그를 관아에 머무르게 하고 성대히 대접하였다고 한다. 그 후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에 가서 지엄(智儼)에게 청하여 화엄공부를 하였는데 당시 지엄은 중국 화엄종의 제2조(第二祖)로 화엄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며 7년 동안 의상에게(38세~44세)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다. 이로써 터득한 의상의 화엄사상은 넓고도 깊이 있는 것이었다. 문무왕 11년(671년)에 신라

에 귀국하였는데 이때 귀국한 동기에 대해서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나라 고종이 신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소식을 본국에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며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화엄대교를 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설에 대하여 신라사에서는 사천왕사와 망덕사의 창건을 고려하여 당나라의 소식을 본국에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설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즉시 낙산사의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의 발원문인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은 그의 관음신앙을 잘 알게 해준다. 그 후 문무왕 16년(676년)에 부석사를 창건하기까지 전국의 산천을 두루 살폈는데 이러한 순방은 화엄사상을 펼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한편 의상은 표훈(表訓), 진정(眞定) 등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전국을 역방하면서 지리산화엄사, 가야산해인사, 계룡산감사, 금정산범어사 등 화엄 10찰을 창건하고 이밖에 불영사, 삼막사, 초암사 등 많은 사찰을 개창토록 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찰이 창건조사를 의상대사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승이 창건한 낙산사이므로 그의 위상은 대단하였으며 화재나 외침으로 인하여 사찰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중창 혹은 보수하여 오늘에까지 법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낙산사는 이후 원성왕 2년(786년)에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찰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 후 현안왕 2년(858년) 범일국사가 3칸의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상을 봉안하였다고 하는데 이렇듯 낙산사는 화재로 인한 재난을 겪고도 법등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었다.

현재 낙산사에는 창건 당시와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의상대(義湘臺)와 홍련암(紅蓮庵)이 있어 당시의 정경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의상대는 낙산사 중심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 동해 바닷가에 위치하였는데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낙산사에서 홍련암의 관음굴로 가는 해안 언덕에 자리하였는데 멀리 동해를 바라보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할 때 머무르면서 좌선 하였던 곳이며 본래는 암자가 있었다고 하나 한때 폐허가 되었다. 그러므로 1925년에 이 자리에 정자를 짓고 의상대사의 수행처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에서 의상대라 칭하였던 것이다. 평면 6각의 아담한 정자로 주위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낙산사를 거론할 때는 반드시 의상대를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이고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홍련암은 낙산사의 부속 암자로 의상대 북쪽 300m 지점에 위치하였다. 문무왕 11년(671년)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고 대나무가 솟은 곳에 건축한 불전이라 한다. 일설에는 의상대사가 이곳을 참배할 때 푸른 새를 만났는데 새가 석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이상하게 여겨 굴 앞에서 밤낮으로 7일 동안 기도를 하였다. 7일 후 바다 위에 홍련이 솟아 그 가운데 관음보살이 현신하였으므로 이 암자 이름을 홍련암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법당은 바닷가 암석 굴 위에 건축하였는데 법당 마루 밑을 통하여 출렁이는 바닷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의상대사에게 여의주를 바친 용이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이와 같이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구를 짐작케 하는 것은 통일신라 초엽에 창건된 경주 감은사지의 법당인데 감은사법당은 죽어서 용으로 화신(化身)한 문무대왕의 영혼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역시 법당 밑에 바닷물이 통하도록 하였던 예임을 기록과 현지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건물들은 근·현대의 건축물이며 현재 홍련암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6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2) 신흥사(속초시 설악동)

현재의 위치는 속초시 설악동으로 설악산 어구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속초시에 속하나 이곳 일대와 설악산은 본래 양양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양양지역의 불교를 논함에 있어 신흥사는 당연히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사의 사적은 진덕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칭하였는데 이때 계조암과 능인암도 함께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 건너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경주 한복판에 9층목탑을 건축하였는데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모시고 온 불사리(佛舍利)를 이 9층목탑에 봉안하였으며 9층목탑의 건립은 신라를 중심한 주위 9나라를 복속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렇듯 고승의 창건 사찰이므로 신흥사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향성사는 효소왕 7년(698년) 능인암과 함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3년간 폐허로 남아있었다.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대사가 자리를 능인암터로 옮겨서 향성사를 중

창하고 절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개칭하였다. 이때 의상대사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상을 조성하여 선정사에 봉안하였으며 이후 선정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전기까지 크게 번창하였다. 신흥사라는 사찰 명칭은 조선시대에 중창 불사를 일으키면서 개칭한 사찰 명칭이다. 현재 설악동 입구에는 향성사지 3층석탑(보물 제443호)이라는 지정 명칭으로 통일신라시대의 3층석탑 1기가 건립되어 있으며 이곳 일대에서는 신라시대의 건물지 초석들과 장대석이 출토되고 많은 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기와, 인동당초 문양의 암막새기와, 여러 가지 문양이 시문된 신라시대의 평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 향성사의 유적을 살필 수 있다.

3) 진전사(강현면 둔전리)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 진전사 옛터가 남아있고 근년에 새로이 건립한 진전사 법당과 요사체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양양읍에서 속초행 큰길로 약 12km되는 강현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쪽으로 통한 도로로 7km쯤 가면 둔전리이고 이 마을에서 서편 계곡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속칭 탑골[塔谷]이라는 곳인데 현재 둔전리 100번지 밭 가운데 3층석탑 1기가 건립되어 있어 주변 일대가 옛 절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약 600m 지점에 둔전저수지가 있고 그 동북쪽 산 중턱에 석조부도 1기가 건립되어 있으며 그 서쪽 밑으로 건물지로 추정되는 넓은 대지가 있는데 경작지로 변했었다. 진전사 옛터는 석탑과 부도가 건립되어 있는 일대가 될 것인바 동리에서도 「진저사터」라고 구전되어 온다는데 이 지역에서 진전「陳田」이라 음각된 기와편도 수집된바 있어 진전사 옛터임을 틀림없다. 다만 과거 사찰의 존속 여부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범우고』 등의 기록에 없는 점으로 보아 폐사된 지는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 오랫동안 사원으로서의 존재는 전해지지 않았고 그 옛터에 남아있는 3층석탑과 석조부도만이 있어 옛 절터임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 후 수복지구이어서 일찍이 조사된바 없었으며 1965년도 3월과 12월의 두 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면서부터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후 3층석탑은 국보 제122호로, 석조부도는 보물 제439호로 각각 지정 보호하게 되었다.

진전사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하여 창건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진전사를 말할 때 신라 최초의 선사(禪師)인 도의국사(道義國師)와 관계가 깊었던 사찰이므로 도의국사의 행적과 관련시켜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진전사와 도의국사에 관해서는 『조당집(祖堂集)』,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의 기록과 이밖에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등의 비문에 의하여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도의국사의 정확한 출생과 입적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가 생애였던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도의국사는 신라에 최초로 중국의 남종선(南宗禪)을 전한 신라의 고승이다. 성은 왕(王)씨이고 법호는 명적(明寂)이며 시호는 원적(元寂)이다. 도의는 법명이며 북한군(北漢郡)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임신한지 39개월만에 태어났다고 한다. 선덕왕 5년(784년)에 해로로 당나라에 갔으며 오대산을 찾아가서 공중으로부터 종소리를 듣는 등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고 한다. 그뒤 광부(廣府)의 보단사(寶壇寺)에서 비구계를 받고 조계(曹溪)로 가서 혜능(慧能)을 모신 조사당(祖師堂)을 참배하였는데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한다. 이후 강서의 개원사(開元寺)로 가서 지장(地藏)에게 법을 물어서 의혹을 풀고 지장의 법맥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뒤 백장산(百丈山)의 회해(懷海)를 찾아가서 법요를 강의 받았는데 회해는 말하기를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하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도의국사는 3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무르며 선법(禪法)을 터득하고 헌덕왕 13년(821년)에 귀국하였다. 도의는 신라에 돌아와 선법을 펴고자 하였으나 당시 불교는 교종으로 사람들이 교학만을 숭상하고 무위법(無爲法)을 즉 선(禪)을 믿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말에 천책(天頤)이 지은 『선문보장록』에 도의가 승통 지원(僧統智遠)에게 한 법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법문에는 그가 법계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심인법(心印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도의국사의 선법에 대하여 당시의 불교계는 마어(魔語)라고 하여 비웃으며 비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도의국사는 아직 선법의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북으로 북으로 향하여 신라 변경에 해당하는 설악산 진전사에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은둔하였던 것이다. 진전사의 장로(長老)로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제자인

염거화상(廉居和尚)에게 남종선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염거화상은 제자 체징화상(體澄和尚)에게 선을 전하니 체징은 전라남도 장흥의 가지산 기슭에 보림사를 창건하여 가지산파(迦智山派)의 도량으로 크게 선풍을 떨쳤다. 그리하여 도의국사를 선종의 1조(一祖), 염거화상을 2조(二祖), 체징화상을 3조(三祖)로 받들어 도의국사를 가지산파의 개산조사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821년에는 이미 진전사가 자리잡고 있었으니 그 시창은 늦어도 8세기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현지에 건립되어 있는 3층석탑의 각부 양식과 기법을 고찰해 볼 때에도 8세기 후반에 건립된 석탑이므로 이때에 이미 진전사가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宗祖)로 도의국사를 모시고 있다. 즉, 조계종의 종헌(宗憲)에 ‘본종(本宗)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대사(曹溪慧能大師)의 증법손 서당 지장선사(曾法孫西堂智藏禪師)에게서 심인(心印)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중흥조(中興祖)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淸虛浮休兩法脈)을 계승승한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오늘날의 조계종의 종조 도의국사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선종의 초조(初祖)로서 추앙을 받았으며 이후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엽에 이르기까지 정착된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가장 앞섰던 가지산문의 조사로 그 법통을 염거화상에 이어 체징화상에게 계승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진전사를 생각해본다면 신라 선종의 창시자 도의국사가 안좌하고 있으니 진전사를 찾는 법사들이 많았을 것이고 특히 염거화상이 법통을 이어 신라 선종의 제2조, 다음 체징화상이 제3조로 전통을 수립 계승하였으므로 당시의 진전사는 신라 선종의 근본 대도량으로 이로부터 선풍이 전국 각지에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현지에 남아있는 3층석탑은 신라시대 전형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는 국보 탑으로 하층기단 면석에 천인상들, 상층기단 면석에 8부신중들, 초층탑신 4면에 사방불을 배치 양각하여 석탑 자체를 생각해 볼 때에도 8세기 후반의 건립으로 가히 국보적인 표면 장식의 특별한 조형임을 느끼게 한다. 과연 선종의 조사인 도의국사가 진좌하여 많은 제자와 학승들이 운집할만한 사찰이고 교세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석조부도는 도의국사의 영탑(靈塔)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부도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선

종의 시발이 도의국사로부터였던 것과 같이 이후 신라의 석조부도 양식이 도의국사의 영탑을 시원 양식으로 모범하고 있으므로 현지의 석탑과 석조부도가 당시 진전사의 위상과 변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선종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영탑

진전사는 폐사된 지 수백 년 황무지로 변하거나 때로는 경작지로 활용되

었던 바 1965년 이후 정영호 교수의 꾸준한 현지 답사로 모든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된 후 1974~1979년의 6년 동안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연차적인 발굴조사계획에 따라 석탑을 중심한 경작지 일대를 발굴조사하여 가람의 배치 등을 파악하고 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의 평기와를 다량으로 수습하였다. 석조부도가 위치한 경작지 발굴에서는 파손된 3층석탑의 부재들을 수습한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임을 알게 되었고 1석으로 조성한 석재가 석비의 이수석(螭首石)임이 밝혀져 곧 도의국사 영탑의 탑비 이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 인동당초문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이 그려져 있는 평기와들, 토기파편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통일신라시대의 진전사는 크게 변형하였으며 특히 선종의 총본산으로 불교사는 물론 당시의 사상사를 연구함에 있어 도의국사의 사적과 관련 지어 깊고도 넓은 학문적인 바탕이 되는 곳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4) 영혈사(양양읍 화일리)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설악산 동남쪽 관모봉 밑에 건립되어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인데 그의 역사는 오래인 것으로 전한다. 즉 원효대사가 설악산에 이르러 처음에는 일출암(日出庵)을 짓고 2년 후인 신문왕 9년(689년)에 영혈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이어서 청련암(靑蓮庵)을 세웠다고 하는데 원효대사가 입적

한 때가 신문왕 6년(686년)이므로 이곳 사찰들의 창건 연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창건 연혁의 연대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승대덕을 창건조사로 모심으로써 각기 사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에 의하면 영혈사가 번영하였을 때 일출암, 청련암, 취원암, 학소암, 백학암 등이 세워졌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나 모두 폐사되었다. 영혈사에는 사찰의 명칭이 영혈(靈穴)이어서 「영험한 굴」이 있다는 것인데 이곳에는 언제부터인지 영천(靈泉)이라 하여 샘이 솟고 있는 바위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영천사라고 하였다는데 지금도 이 신령스러운 샘[泉]에서는 깨끗하고도 맛있는 약수가 솟아나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신라시대의 유적 유물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5) 화엄사(옛 토성면 신평리)

만해 한용운이 지은 『건봉사본말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혜공왕 5년(769년)에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설악산의 북쪽 기슭에 화엄사를 창건하였다고 하며 이 화엄사 남쪽에는 지장암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사찰의 위치를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라 하였으니 현재는 고성군 지역이 되었으나 신라시대에는 양양지역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이미 낙산사와 신흥사, 진전사, 영혈사 등 큰 사찰이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화엄사의 창건을 무리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 내원암(속초시 설악동)

양양군 설악산 신흥사 산내에 대본산 건봉사 말사로 내원암이 있다고 전하며 특히 『범우고』에는 신흥사 북쪽에 있다고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한편 『건봉사본말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능인암(能仁庵)이라 칭하였으며 이후 효소왕 7년(698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뒤에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내원암이라 사찰 명칭을 고쳤다고 한다.

7) 계조암(속초시 설악동)

현재 신흥사의 부속 암자로 설악산 산속에 위치한 암자이다. 이 암자도 현재는 속초시에 속해있으나 본래는 양양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와 함께 창건하였다고 한다.

자장율사 이후 동산(東山), 각지(覺知), 봉정(鳳頂) 등이 주지를 계승하여 주석하였다. 이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대덕들이 계속하여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므로 사찰의 명칭이 계조암(繼祖庵)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울산바위 아래에 위치한 석굴사원으로서 그 구조가 특이하다. 오랜동안 자연의 석굴을 이용한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많은 수도승들이 주목하여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흔들바위와 약수라 일컫는 샘물이 유명하다. 그러므로 수행 승려들의 순방처는 물론 관광객들의 방문처로서도 유명하여 계조암이라 하면 곧 흔들바위를 생각하게 한다.

8) 오색석사와 그 옛터(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남설악 골짜기에 경영되었던 사찰이다. 전하건대 신라말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파의 개산조사인 도의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찰의 후원에 한 그루의 이상한 나무가 있어 다섯 가지 색의 꽃이 피었으므로 절의 명칭을 오색사라 하고 이곳의 지명을 오색리라 하였으며 절 어구에 있는 약수도 오색약수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오색리의 오색약수(五色藥水)는 탄산수로 유명하며 주위의 돌 색깔이 모두 붉은색이다. 그러나 불가(佛家)에서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5색을 정색(正色)으로 삼고 있어 이들 다섯 가지 색에서 절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편 이곳 오색석사는 창건 이후 신라시대에 유명했던 선찰(禪刹)이었으니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파(聖住山派)의 개산조 무염선사(無染禪師)가 이 절에서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국보 제8호, 현재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 옛터에 건립되어 있다)의 비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무염선사는 신라 애장왕 2년(801년)에 출생하여 진성여왕 2년(888년)에 입적한 당시 제일의 고승이었다. 성은 김씨, 호는 무량(無量), 또는 무주(無住)라고도 한다. 태종무열왕의 8대손이며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뛰어나 해동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12세에 출가하여 이곳 오색석사에 들어가 법성(法性)의 제자가 되었다. 이때에 법성대사는 당나라에서 소승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무염에게 한문과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당나라 유학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 후 무염은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려 했으나 도중 풍랑으로 배가 흑산도에 기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헌덕왕 13년(821년)에 다시 정조사(正朝使)를 따라 당나라에 가서 성남산 지상사(至相寺)의 화엄강석(華嚴講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때 당에서는 이미 선종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무염도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서 선법을 문의하였다. 무염을 맞이하여 선법을 논한 뒤 여만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와 같은 신라의 젊은이는 본적이 없다. 훗날 중국이 선풍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신라로 가서 선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무염은 마곡산의 보철(麻谷山寶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 법맥을 이어받고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독한 사람,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이렇듯 10여 년간 보살행을 실천하니 그의 이름은 당나라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무염을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신라 문성왕 5년(845년)에 귀국하였는데 이때에 왕자가 성주사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였다. 이후 무염은 성주사에 주석하면서 이 절을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40여 년간 교화하였다. 성주사자리에서는 백제시대의 연화문 솟기와 등백제의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어 백제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량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에 이르러 무염선사가 선문의 본산으로 삼을만한 곳이다. 이후 문성왕, 헌안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등 6국왕이 모두 그를 존경하며 법을 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도를 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때 최고의 고승인 무염이 출가한 역사적인 사찰이 바로 오색석사인 것이다.

현재 오색석사 옛터에는 법당 자리와 많은 초석들, 신라 3층석탑(보물 제497호)이 건

립되어 있고 별도의 석탑재와 석사자, 장대석 등이 남아있으며 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와 당초문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진 평기와 등이 수습된 바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법당 1동을 지어 한 때에는 성국사(城國寺)라 하였으나 사찰 규모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3층석탑의 건조양식은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부에 상륜을 장식한 신라식 일반형이다. 이 석탑은 9세기에 이르러 유행된 양식과 기법을 보이고 있어 오색석사가 범등을 크게 밝히고 있을 때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른 기록에 현곡사(玄谷寺)가 오색천 상류에 있다고 하였는데 오색석사 옛터 이외에 상류에 올라갈수록 골짜기 좁아졌으며 사찰을 건립할만한 대지가 없으므로 오색석사지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9) 선림원지(서면 황이리 미천곡)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있었던 사찰로 일명 사림사(沙林寺)라고도 칭하는데 현재는 절터만이 남아있다. 선림원 절터 조사에서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 등이 창업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연대는 신라 애장왕 5년(804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대추정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으나 1948년에 이 절터에서 신라시대의 범종이 출토되었으며 이 범종의 주조연대가 애장왕 5년(804년)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절도 이때에 창건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범종은 「정원(貞元) 이십연명동종(二十年銘銅鍾)」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



선림원지(불전들의 옛터)

림원지에서 출토되어 그 후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져 월정사에서 타종하고 있었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된 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다. 선림원지는 이러한 사실로 알려지게 되었다. 절터의 위치가 38° 선의 접경이므로 이곳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범종만을 옮겨왔을 뿐 전무하였는데 1965년부터

터 수복지구의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곳의 유적유물을 발견조사하여 학계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처음 이곳을 답사하여 여러 석조 유물을 조사한 정영호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석물들이 도괴되고 원위치를 이탈한 유물도 있어 이들의 보존책이 강구되었다. 현지조사 결과 도괴된 석재들을 수습하여 3층석탑(보물 제444호)을 필두로 석등(보물 제445호),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보물 제446호), 홍각선사부도(보물 제447호) 등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원위치에 보존하게 된 것이다.

순응법사가 창건한 사실은 출토된 범종의 명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창건연대도 범종이 주조된 80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건 당시에 이 절은 화엄종의 사찰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 경문왕 무렵에 고승 홍각선사(弘覺禪師)가 이 절에 주석하게 되었고 현강왕(875~885년) 때에 크게 중창하여 선종의 도량으로서 많은 교화를 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각선사는 신라 현강왕 때의 이름난 선사이나 그의 탄생과 입적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홍각선사의 생애와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혀있는 석비가 서면 미천골의 바로 이 절터에 있었으나 파손된 상태로 양양 관아에 옮겨졌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비제(碑題)는 홍각선사비명(弘覺禪師碑銘)이라 하였는데 비신이 심하게 파손되고 마멸되어서 판독이 어렵다. 그리고 결락부분이 많아 깨진 부분의 명문을 알 수 없어 전체 내용을 판독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그러나 홍각선사가 서사(書史)에 해박하며 불경을 깊이 연구한 뒤 영산(靈山)의 선석(禪席)을 두루 찾아다니며 수행하였고 수양이 깊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법도를 구하였던 당시의 고승이었다는 사실만은 판독하여 알 수 있다. 이 석비는 현강왕 12년(886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철(雲徹)선사가 왕명을 받들어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모아 비문을 찬하였다는 것이다. 이 석비는 홍각선사에 관한 내용으로 같은 경내에 건조한 홍각선사부도탑에 따른 석비인 것이다.

선림원이 세워지고 홍각선사가 활동할 9세기 중엽은 도의국사가 진전사 장로로 진좌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교화를 베풀었던 시기이므로 선림원의 불사도 선종의 근본도량이 진전사와 오색석사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개창되었던 때이므로 이들과 함께 통일신라 말까지 선종사찰로 크게 번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현지에

남아있는 여러 유적 유물들이 크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즉 선림원 옛터는 미천골에서 제일 넓은 대지에 견고한 석축을 구축하고 가람을 배치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기의 석조건조물이 국가 보물로 지정 보존되어 있다. 우선 3층석탑을 살펴보면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부를 장식한 신라식 일반형의 석탑이다. 상층기단 각 면에 8부신중을 배치한 표면장식의 특수한 형식일지나 진전사의 3층석탑에 비교하면 훨씬 뒤진 조형이다. 역시 9세기에 이르러 건립한 석탑인 것이다. 한편 석등에 있어서도 간석과 화사석 등에 장식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특수하게 여겨지나 석등의 연화문과 각부의 양식 수법에서 9세기의 조형으로 보인다. 홍각선사탑비는 발견 조사하여 보물로 지정할 당시에는 비신은 결실되고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비신의 결락된 부분은 무명(無銘)으로 평평하게 다듬고 명문을 판독할 수 있는 부분만을 각자하여 비신석을 세워 놓았다. 이 석비의 건립을 현강왕 12년(886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귀부의 귀갑문과 용두, 이수의 용틀임과 여러 조각들을 살펴볼 때 신라 하대의 조성을 느끼게 한다. 석조부도는 선림원지부도라는 명칭으로 보물의 지정은 받았으나 명칭에 있어서 홍각선사부도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이 부도는 산중턱으로 올라가는 원위치에서 도괴된 채 산재한 부재들을 모아 산기슭에 기단부만을 건립해 놓았다. 탑신석과 옥개석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하대석의 복련과 상대석의 양련, 중대석의 용틀임 등은 역시 섬약에 흘러 9세기 중반 이후의 양식으로 보인다. 이곳에 보존되어 있는 4기의 석조 보물들은 선림원이 번성하였던 9세기 중반 후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아 선림원이 신라 시대에 크게 알려져 번영하였던 도량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절터에서는 연화문 수막새, 인동당초문의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는 평기와들이 많이 수습되어 모두 신라 하대의 유물로 생각되어 선림원이 번영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이 석탑이 도괴되어 사리공에 봉안했었던 납석제소탑(小塔)들이 상당수 문혀있던 것이 석탑재의 수습과정에서 발견조사되어 현재 몇 곳에 보존되고 있다. 이들 납석제소탑 역시 신라 하대의 양식을 잘 보이고 있어 선림원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유물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선림원을 거론할 때 신라의 범종이 출토 수습된 사실을 반드시 부언하게 된다. 이 「정원이십년명 신라범종」이 출토된 자리는 법당지 뒤편쪽이 되는데 당시 범종수습 작

업에 참가했던 이곳의 이춘우(李春雨) 이장(里長)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솥을 굽는 사람들이(4명으로 기억함) 참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솥 굽는 구덩이를 파는 도중에 범종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때 범종은 솥을 밑에 깔고 종속에도 솥을 넣고 솥으로 종신을 에워싸듯 했는지 주변에서 솥이 잔뜩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때 솥 굽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솥을 구웠다고, 즉 솥 굽는 옛날자리라고 환호하였으나 이어 큼직한 범종이 발견되자 깜짝 놀라며 이곳의 절[寺刹]이 난리나 화재 혹은 변을 당하게 되자 범종은 무거워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이 땅속에 묻고 피신 혹은 피난 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말은 대단히 뜻있는 말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절터를 발굴 조사할 당시 솥이 많이 나오면 부엌쪽이고 아니면 솥속에서 금속품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일은 솥은 습기를 흡수하는 제습제로 예부터 가정에서도 솥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 선림원지에서의 범종출토는 선림원의 승려들이 변(난리)을 피할 때 무거운 동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음으로 제습제인 솥을 깔고 동종을 묻어 녹이 썩지 않도록 솥을 가득히 채운 뒤 흙을 덮어 평지조성을 하고 피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정원이십년명범종」은 뜻밖에 발견된 8·15광복 후 최대 최고의 큰 수확이어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출토사실이 중앙당국에 알려지자 곧 후방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그때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었던 국군에 의하여 썰매에 싣고 오대산쪽으로 왔다. 처음 상원사에 들려 종을 현수하여(매달고) 타종하려고 하였으나 이곳에는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신라 성덕왕 24년(725년)]이 이미 걸려 있으므로 범종이 없었던 월정사로 옮기도록하여 월정사는 뜻하지 않았던 신라의 범종을 수장, 타종하게 되었던 것이다. 월정사 범당의 종가(鍾架)에 현수하여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올릴 때면 신라의 종소리가 오대산 골짜기는 물론 멀리 밑의 마을까지 울리어 활기찬 월정사의 정경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희망찬 종소리와 미려(美麗)한 범종의 모습은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즉 6·25한국전쟁으로 월정사의 여러 건물이 불타는 불바다 속에서 동종은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었던 것이다. 이 범종이 출토되어 월정사로 옮겨졌던 당시 이 범종을 실측하며 자세히 조사했던 이흥직박사와 황수영 박사의 낙심과 애통한 심정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미인박명, 박명의 신라종」이라 하면서 슬픈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1953년 늦가을 오대산지역의 답사를 떠나는데 황수영 박사께서 「월정사에 가서는 반드시 신라종을 찾아보라」는 부탁이 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월정사건물들이 모두 타버렸다는데……신라종이라고 안전했을까? 화재가 났을 때 마당에 굴러 떨어트렸더라면, 기운이 모자라면 발로라도 차서 화염을 피했으면 신라종이 살았을 것인데……” 말씀하며 현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필자 정영호는 그때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것은 신라종에 대한 애착과 집착, 만약에 살아남았을 간절한 실낱같은 바람의 표현이자 애끓는 호소이기도 하였다. 교통불편으로 만이틀[2日間]이나 걸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소재지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아침 30리 길을 걸어 월정사에 당도하여 사찰경내에 올라서니 건물은 하나도 없으며 석탑 하나가 서 있고 그 앞에 석조보살좌상이 석탑을 향하여 공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저 석탑이 석재가 아니고 목탑이나 전탑이었다면 이렇듯 온전하게 남아있을까? 석조보살좌상도 석재가 아니었다면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물끄러미 석탑을 바라보고 있는데……문득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일까…… 하며 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어 잣더미를 헤치면서 경내를 이리저리 다녔다. 이때에 월정사 8각 9층석탑을 견학한 계기가 석탑연구에 힘을 쏟게 되었고 석조보살좌상을 친견함으로써 석조미술을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닌가한다.

깨진 기와조각들과 회진된 건물터를 이리저리 작대기로 헤치는데 화염에 조각난 범종의 파편들이 잣더미 속에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무도 없는 잣더미의 절터에서 한숨만 쉬면서 많은 파편들을 찾아냈으며 이 범종의 조각난 잔해들을 수습하고 사진촬영과 실측조사 등을 진행해야 할텐데……시간은 오후4시가 되고 여인숙집에서 먹어보라고 준 강원도 감자떡이 맛은 좋았으나 이 떡 5개로는 점심량에 차지 않았다. 산골의 오후는 일찍이 해가 저문다. 시장기가 심해오고 날도 어두워질 것 같아 본격적인 조사는 내일로 미루고 월정사 아랫동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로 내려와 당직선생님의 안내로 이 마을 이장택을 찾아가 보따리를 끌러놓은 때가 5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마을에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이장도 환갑에 가까운 중노인으로 강원도 특유의 친절을 베풀어주어 편안한 하루를 지냈다. 그런데 호롱불 밑에서 이야기 저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월정사를 찾게 된 큰 이유를 말했더니……깜짝 놀래며 “절이 저모양으로 불바다가 되었었으니 아무리 신라시대의 종이라 해도 불길에 남아났겠느냐”는 것이었으며 화재의 원인, 스님들의 상황 등을 물어본즉 “전쟁통에 불이 났고 불끄는 사람이 없고, 스님들은 모두 피난 갔으니 법당에 매달은 종도 불에 타 녹아버린 조각들이 깃더미 속에 묻혀 있겠지요 뭐……”, “그 종이 유명한 것이어 종소리도 좋았대요, 이 마을에서도 새벽녘이면 절의 종소리를 들었었는걸요……”하며 그당시의 일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는 듯 한숨을 쉬곤 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저 웃집에 와서 사는 사람이 양양쪽에서 피난 나왔는데 ……언젠가 그는 월정사종이 땅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님들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장의 주선으로 양양에서 왔다는 피난민을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이십년명동종」의 출토당시와 후방으로 옮기게 될 때까지의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 바 그 내용들은 앞에서의 내용과 같았다. 그때의 양양군 서면 황이리의 이춘우 이장이 바로 이 피난민이어서 직접 현지에 있었기에 당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랜 뒤의 일이지만 2004년도가 이 범종이 주조된 지(A.D.804년) 1200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양양문화원(당시의 원장:고경재)에서 이 「신라범종」에 관한 학술회의가 열렸었다. 학술강연에서 황박사께서는 「미인 박명, 박명의 신라종, 광복후 최대의 수확, 신라종의 역사적 의의」 등을 말씀 하셨고 필자도 동종에 관한 강연을 갖기도 하였다. 이때 이 범종의 출토지인 선림원 절터를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이리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 때의 이춘우 이장이 이곳에 들어와 또 만났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인연이었다. 그 때 또다시 범종의 출토당시와 후송하게 된 때까지의 상황들을 또한번 듣게 되어 감회가 깊었다. 80세가 되었다는데도 신라종에 대해서는 하도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1953년도 늦가을인데도 한낮은 햇빛이 쨍쨍하여 더위까지 느꼈다. 여러 점의 범종과 편들을 촬영과 실측조사하는데 산판에서 나무일을 하는 중노인과 마을리장께 부탁하여 나의 조사진행을 도와주어 오전 중에 끝났으며 오후에 그곳을 떠났다. 상경 후 범종조각들의 사진을 정리하여 황 박사께 현지의 여러 상황을 보고 드렸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이사진은 범종의 하대부분, 요사진은 종신의 당좌부분 등……하나하나 지적하는

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에 명문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불행한 일이나 이 명문이 살아있어서 다소 위안이 되는군”하며 주성(鑄成)연기가 양각된 기명(陽刻紀銘)을 가리키었다. “대개의 경우 종신 표면에 음각하였지만 이 종은 종신 안쪽에 양각으로 명문을 각자(刻字)하였으니 더욱 주목되는 신라종인데 불에 녹아버렸으니 아름다운 형태를 볼 수 없게 되었구려”하며 눈물을 닦으셨다. 오늘에까지 60년 가까이 모시면서 선생님의 눈물은 처음이었다. 잠시 후 “좀 작지만 범종의 모습은 이것뿐이요”하며 사진 1장을 찾아 오셨다. 월정사에서 1950년 초반에 조사할 때 촬영한 기념사진이었다. 사실 선림원 출토 「정원이십년명」신라종의 사진은 이 한 장뿐이다.

양양 선림원 절터에 관한 내용을 살필 때 현지에 남아있는 석조물과 유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찰내용을 말하지만 이 신라종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언하여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밝혀 놓음으로써 역사의 한 줄로 포함시키고자 적고 있는 것이



선림원지 출토 정원이십년명 신라범종

다. 그것은 비록 신라종의 완전한 형태는 볼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범종 각부의 양식과 문양들, 주조법연구 등 양각명문에 의하여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기록에 없는 사실들을 파편잔해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동안 제기된 신라종에 대한 의문되었던 문제들을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고 이 종이 양양지역출토라는 점에서 반드시 거론하게 된다.

여하튼 선림원은 신라시대의 사찰로 많은 석조물과 범종까지 남기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는 크게 번창하였던 가람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심산유곡의 사찰이나 넓은 도량에 속함으로 많은 선승들이 주거하여 양양지역의 불교가 한층 빛났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10) 서림사(서면 서림리)

서림사(西林寺)는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들어서기 전 서림리에 있었던 사찰로 ‘서림리’라는 마을이름도 서림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현산지(峴山誌)에 보이는데 서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절터만 남아 넓은 경작지로 변화였고 여기에 있었던 석불좌상과 3층석탑은 현재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마당에 옮겨놓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제120호 서림사지삼층석탑의 명칭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절터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왓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신라하대의 조성으로 추정되어서 신라시대에 서림사가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절은 선림원으로 가는 도중으로 서림리 골짜기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선림원 도량으로 가기 전 또 하나의 신라사원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절이 고려시대까지는 법등을 밝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삼층석탑이 후대인 고려시대의 건립양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주변에서 고려시대의 기왓장편, 고려토기와 청자, 백자편들도 산재하고 있어서 서림사는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등축을 밝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현지 답사에서 수집되는 유물에 의한 것이며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11) 둔전사(진전사)(강현면 둔전리)

둔전사(屯田寺)는 현산지(峴山誌)에 보이는데 서북쪽 30리에 위치하며 탑이 서 있어 이 탑을 둔전동탑(屯田洞塔)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강현면 둔전리에는 진전사(鎭田寺)가 있고 이곳에 통일신라시대의 3층석탑이 국보 제12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둔전리의 절터가 통일신라시대의 진전사의 옛터임을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38°선 이북지역이어서 알 수가 없었다. 일제시대에도 이곳 둔전리의 절터는 조사한 적이 없었으므로 진전사는 문헌에만 보일뿐이었다. 그리하여 이곳의 진전사는 동리의 명칭이 둔전리이어서 그대로 「둔전사」라 칭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1962년도와 1965년도에 현지를 답사할 때 이 마을의 이장 추중삼(秋鍾

三)씨를 만났고 이곳의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모두 「둔전사」엿터라는 것이었다. 역시 「진전사」라는 절 이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곳 일대의 조사 후 신라시대에 창건된 진전사 엿터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 양양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불교사찰의 창건과 흥법, 신앙유포 등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표준적 근거는 우선 문헌에 보이는 사찰과 현재까지도 등축을 밝히고 있다는 사찰들을 방문하고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번성하였다고 전해지는 옛 절터들을 답사하여 현지 유적 유물들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양양지역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오래이고도 다양한 유적유물이 많다. 그리하여 삼국시대 이래 수용된 불교도 이 지역에서는 삼국기 후반부터 흥법되어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창건되어 불교문화의 자리가 굳건히 잡혔음을 알 수 있다.

즉 낙산사 신흥사 진전사 오색석사 선림원 등의 큰 사찰들을 비롯하여 영혈사 화엄사 내원암 계조암 서림사 등의 크고 작은 도량들이 이 지역에 많이 세워졌다. 이들 사찰에서는 사회 교화를 비롯하여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창달에서 특히 불교의 포교와 신봉에 따르는 조형미술을 비롯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던 것으로 현재도 옛 절과 절터에는 많은 유적과 유구·유물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불교문화의 기반이 있었고 당시에 불교를 이해하고 전도하는 상황에서 신라의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먼저 선(禪)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양양지역이 화엄종, 화엄사상에서 시작하였으며 이곳에 들어온 선풍(禪風)은 새로운 사상이고 종파였으나 이를 잘 수용할 수 있었던 사회적 교화와 불교문화의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의 왕도 경주에서는 도의국사가 승통 지원스님에게 한 법문, 즉 선(禪)에 대해 마어(魔語)라고 하여 비방하며 비웃고 있었으니 이러한 상황을 보고 도의국사는 이곳은 아직 선법의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북으로 향하여 마침내 양양 진전사에 들어와 주석하며 선풍을 일으켰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선풍은 신라왕도 보다 오히려 이 곳 양양이 앞섰던 것이다. 도의국사는 선종의 종조로서 진전사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니 염거화상, 보조선사 무염선사 등 고승 선사들이 이곳 양양에서 수행하여 각기 9산선문의 도량을 개창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양지역은 명산(名山) 설악산 동쪽의 비옥하고도 광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서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고 따라서 일찍부터 문화사회가 형성되고 특히 불교문화가 발달된 곳이었다. 이러한 불교문화사회는 곧 고려시대에 계승되었고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종으로서 그 시발이 바로 양양이고 종조로 도의국사를 추앙하며 모시고 있음은 통일신라시대 양양지역의 불교의 발달과 기반을 가히 알게 한다.

5. 고려시대

이 시대는 통일신라시대에 이어 불교국가였다. 즉 태조 왕건의 훈요십계(訓要十戒) 첫머리에 “우리국가의 대업은 제불(諸佛)의 호위하는 힘에 의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禪) 교(敎)의 사원(寺院)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분수(焚修)케 하고 각각 그 업(業)을 닦게 하라”고 하여 불교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역대의 제왕은 열성을 다하여 불교의 보호와 융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불교는 호국불교였고 동시에 기복신앙(祈福信仰)이 널리 성행하였다. 특히 신라하대부터 수용된 선종의 파급은 고려 초기에 이르러 9산선문이 성립되고 왕도중심의 교종은 존속하며 9산선문의 큰 도량들이 전국각지에 창건되면서 크게 유행하여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왕도중심의 귀족적인 불교상황이 교종으로부터 선종으로 옮겨져 지방호족들의 비호아래 선종의 선풍이 넓게 날리어 서민불교 대중불교로 지방화 되었다. 따라서 태조 이래 국가와 왕실의 번영과 융성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교행사가 각처에서 성행하였던 것이니 이로서 각 지방적 특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역마다의 독특한 양식과 조형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 각종 불교미술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러 특수한 형태과 기법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불교 왕성시대의 양양지역의 불교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이 이 장에서 살펴보려는 내용인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시대에 번창하였던 사찰들을 중심한 상황,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들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고려시대 양양지역의 불교를 조명해보려는 것이다.

1) 낙산사의 상황(강현면 전진리)

통일신라시대의 낙산사는 당대 최고승인 의상대사의 창건이므로 그 위상이 대단하였다. 즉 신라 원성왕 2년(786년)에 화재로 인하여 사찰이 크게 소실되었으나 이후 신라 9산선문중 명주의 한 도량인 사굴산 굴산사의 개산조사 범일국사가 현안왕 2년(858년)에 회진된 낙산사를 일으켜 3칸의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상을 봉안하였다. 이러한 교세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렀으나 10세기 중반, 고려 초엽에 관음보살상, 정취보살상을 봉안한 불전 외에 사찰 대부분이 소실된 것을 고려 중반인 13세기 초반에 이규보 등이 관음보살상을 보수하고 복장유물을 봉안하였다고 하는데 이렇듯 낙산사는 그 위상만치 복구의 힘이 크고 빨랐던 것이다. 그런데 제23대 고종 41년(1254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거의 전국토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이곳 낙산사도 몽고군의 침입을 받게 되어 관음상과 정취보살을 양주성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고려말까지의 사적은 남아 있는 기록이 없으나 법등은 밝히면서 법맥은 여전하였고 이후 조선시대를 맞아 크게 중창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편 고려시대 낙산사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크게 참고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려 초기에 이르러 낙산사는 산불로 인하여 모두 타버렸는데 관음보살과 정취보살을 모신 불전만은 화재를 면하였다고 한다. 특히 왕건 태조는 고려를 건국한 직후 봄철과 가을에 낙산사에 사자를 보내어 제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갑령(甲令)으로 삼았다. 그리고 속인들은 이 낙산의 굴 앞에서 예배를 하면 푸른 새[靑鳥]가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런데 제19대 명종 15년(1185년) 당시의 병마사였던 유자량이 굴 앞에서 예배를 하자 푸른 새가 꽃을 물고 날아와 갯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에 유자량이 푸른 새의 영험을 보고 지은 시는 현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어 볼 수 있다. 이후 몽고의 침략으로 이 절이 모두 타버릴 때 두 성상(聖像)을 모신 건물도 불타버렸고 여의주와 수정 염주는 이 절의 노비가 땅에 묻고 도망쳤다가 난이 평정된 뒤 파내어 명주감창사(監倉使)에게 바쳤다. 감창사 이녹수는 제23대 고종 45년(1258년)에 각유(覺猷)에게 어부(御府)에 모시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관음상은 이때 화를 당하여 형체만 남았고 복장 속의 보물은 몽고병에게 약탈당

했다. 이때 이규보 등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다시 관음상을 봉안할 때 심원경(心圓鏡) 2개와 오향(五香)·오약(五藥)·색실·비단주머니 등을 관음상의 복중에 넣고 겉모습도 복구하였다.

2) 신흥사의 상황(옛 양양군 도천면 장항리)

신흥사는 자장율사의 창건으로 향성사라 칭하였는데 이후 화재로 소실되어 3년간 폐허가 되었었다. 이후 의상대사가 효소왕 10년(701년)에 자리를 능인암터로 옮겨 향성사를 중창하고 이 때 사찰의 명칭을 선정사라 개명하였고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이름났던 도량이다. 신흥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후기에 크게 중창불사를 일으키고 개칭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사적에 대하여 별다른 기록은 없으나 의상대사의 중창 이래 약 천 년 간 번창하였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의 불교가 호국불교요 거족적인 불교였으므로 위상이 높았던 선정사(신흥사)의 법등은 크게 밝았을 것이며 도량도 많은 승려와 불도들로 번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사찰의 위치가 명산이며 성산(聖山)인 설악산 기슭인 점도 있다.

3) 진전사의 상황(강현면 둔전리)

신라 9산선문의 근본대도량이 진전사이며 신라선종(한국의 선종)의 대종조 도의국사가 바로 이곳 진전사에 진좌하여 많은 선승(禪僧) 고승대덕들을 길러 선법을 이어준 선법통(禪法統)의 근원적 도량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의 선풍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크게 날렸으니 그 근본도량인 진전사는 더욱 번창하고 굳건한 기반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중요한 기록에 보이는 진전사와 도의국사 관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소백산 비로사에 건립되어 있는 「비로암진공대사보법탑비(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의 비문에 의하면 진공대사(신라 문성왕 17년~고려 태조 20년, 855~937년)가 진전사에 이르러 도의국사의

유허를 답사하고 그 영탑(靈塔)에 예배한 뒤에 도의국사의 진영(眞影)에 추모하며 영원히 제자의 의식을 펴고서 기뻐했었다고 한다. 여기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당시 진전사에는 도의국사의 「영탑과 진영」이 모셔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영탑」이란 도의국사의 「부도」를 말하며 「진영」이란 도의국사의 「초상화」를 말하는 것이다. 초상화는 비단에 그렸거나 종이에 그렸을 것이므로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오늘에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겠으나 영탑은 남아있으니 바로 이곳의 석조부도가 영탑인 것이다. 신라 이래 선사(先師)들의 석조부도를 영탑이라 칭하여 「면례지탑(面禮之塔)」 즉 선학스님의 부도에 예를 올렸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진공대사가 진전사를 찾아가 답사하면서 영탑에 예배하고 진영에 예를 올려 영원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뻐했다니 여기의 「영탑」이란 곧 도의국사의 부도인 것이다. 진공대사는 신라 말 고려초의 유명한선승(禪僧)으로 「진전사를 찾아가 도의국사 영탑에 제자의 예를 올렸으며 그곳에서 수도하여 스승없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로 유명하다. 소백산 비로암에 주석할 때 고려 태조가 찾아와 법문을 청하였던바 그 설법에 크게 감화를 받아 후삼국을 통일한 뒤 대사를 초청하였으나 사양하고 비로사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一然)」선사와 진전사와의 관계이다. 현재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인각사(麟角寺)에 보존되어 있는 보각국사탑비(普覺國師塔碑, 보물 제428호) 즉 「고려국의흥화산(高麗國義興花山) 조계종 인각사가지산하보각국존비(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비문에 의하면 일연선사가 14세 때 이곳 설악산 진전사에서 삭발 득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연선사는 제21대 희종 2년(1206년)에 출생하여 9세 때 해양 무량사(無量寺)에서 공부한 뒤 14세 때에 진전장로 대웅(陣田長老大雄)으로부터 체도구를 수취하여 계를 받았다. 이러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니 신라시대에 이미 도의국사에 의하여 선종사찰로 이름난 이곳 진전사에서 일연이 체도수구(剃度受具)하였음은 곧 선사가 선문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지산 보림사의 개조(開祖)인 도의국사의 법통을 바로 진전사에서 전등(傳燈)하게 되어 도의의 유파(道義流波)가 가지산문(迦智山門)으로 불려짐에 일연스님도에 따르게 되었고 「삼국유사」초두에 「국존조계종가지산하인각사주지원경충조대선사

일연찬(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 「가지산하」라 하였으며 또 그의 석비명에도 「가지산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일연선사 때까지는 진전사가 선종의 큰 사찰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진전사의 사적을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즉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중대인 8세기말에는 법등을 밝히고 있어서 도의국사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헌덕왕 13년(821년)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이곳의 법통과 등축은 고려 일연선사 때를 거쳐 고려 말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끊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진전사는 선종사찰 중에서도 9산선문에 앞섰던 근본대도량이었던 것이니 신라시대 선종을 크게 일으킨 도의국사가 주석한 곳이 여기요, 또한 일연선사가 법통을 이어받은 선문이 이곳일진대 어찌 근본도량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전사는 8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오랫동안 선종의 중심사찰로 법통을 전등하여 양양지역 불교의 개화를 선도하였던 것이다.

한편 진전사에 대해서는 1962년 이래 지표조사를 몇 차례 실시한 후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상·하 두 곳의 옛터를 발굴조사하여 여러 종류의 유물과 유구, 특히 명문있는 기와들이 출토되어 이 기와에 의하여 몇 가지의 사적을 밝힐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상·하 옛 건물지에서 1975년도 발굴조사 때 「천경삼년계사사월일(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평기와의 출토되어 이때 제16대 예종 8년(1113년)에 중창과 번와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대덕삼년(大德三年)」명 평기와의 출토로 제25대 충렬왕 25년(1299년)에도 중창과 번와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역시 13세~14세기의 큰 도량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4) 영혈사의 상황(양양읍 화일리)

고려시대에 이르러 영혈사의 사적은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창불사가 있었다는 사실, 신라 원효대사의 창건이라는 사찰이어서 등축은 밝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화엄사의 상황(옛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

「건봉사본말사적」에 의하면 고려 왕건 태조 24년(941년)에 화엄사의 북쪽에 월영암(月影庵)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암자를 새로 세우고 사세(寺勢)를 떨쳤으므로 불교전성시대였던 고려시대에 있어서 화엄사는 상당히 번창하였으리라 생각된다.

6) 내원암과 계조암의 상황

자장율사의 창건이고 심산유곡의 암자이어서 수도승들의 내왕이 많았던 곳이다.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불교옹호 정책하에서 이들 암자는 더욱 번창하여 항상 등축을 밝히고 있었으며 불도들의 심방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오색석사의 상황

신라 9산선문 중 큰 산문의 도량인 보령 성주사산문의 개산조사 무염선사가 이 절에서 수행하였던 선찰이니 고려시대에도 크게 번창하였던 사찰이었다. 옛터에는 고려시대의 석탑부재와 난간석, 석수, 고려시대의 막새기와와 평기와, 자기 파편들이 산재하여 고려시대에도 성찰이었음을 알게 한다. 특히 장대석들은 건물의 부재들로 주목되어 중창불사를 추정케 한다.

8) 선림원 상황

명산 설악산의 선종 사찰에서도 이곳 선림원 도량은 크게 번창했던 것이니 오늘날 당시의 우수한 석조물 4기가 국가 보물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절에서 「정원이십년」명 신라법종이 출토된 사실은 선림원을 더욱 평가하게 한다. 신라하대의 중창불사로 큰 도량이 이루어져 여기에 많은 수도승려와 불도들이 운집하였던 바 이 여세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을 것임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미천곡

계곡의 넓은 대지에 경영되어서 산사를 전전하여 불교가 전파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으로 대자연속에서 선을 깨닫는 도량으로는 최상이었으니 고려시대의 사세 역시 광대하였을 것이다.

9) 서림사의 상황

선림원으로 가기 전 도중에 자리하고 있어서 선림원의 변창에 따랐을 것이다.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서림사 옛터에는 지금도 고려시대의 석탑이 남아있고 주변 경작지 일대에서 고려시대의 기와와 자기편들을 수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일반형의 이 석탑은 서림사의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석탑의 규모를 보아 작은 도량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0) 명주사의 창건(현북면 어성전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만월산에 자리하고 있는 도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에 속해있다. 제7대 목종 12년(1009년)에 혜명(惠明)대사와 대주(大珠)스님이 절을 창건하고 사찰의 명칭을 두 스님의 이름 한자씩을 따서 명주(明珠)사(寺)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건봉사본말사적」기록에 의하면 이 두 스님이 명주사를 창건하고 「비로자나불상」을 조성 보안하였다고 하나 그동안의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는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 기록에 제17대 인종 원년, 계묘(癸卯, 1123년)에 청연암(靑蓮庵)과 운문암(雲門庵)을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고려시대에 이르러 현북면을 중심으로 명주사 도량이 창업되고 주변에 암자까지 창건배치 하였음은 이 시대 이 고장의 불교가 크게 번영하였음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양양지역의 불교가 어느 정도의 교세로, 어떠한 상황의 불교사회였을까 하는 것을 옛기록과 관계 사적기들, 그리고 사찰들의 현지답사에서 남아있는 당시의 유적유물들을 조사하여 종합 고찰해 보았다.

양양지역은 삼국기 불교수용 이후 7세기에 들면서 고승들의 창건사찰이 여기저기에

정초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더욱 많은 도량이 개창되었다. 이후 고려 시대는 불교가 호국불교, 국민불교로서 거족적인 종교가 되었으니 최성기의 불교사회였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각 사찰별로 각기의 상황을 살펴본 가운데서 대략을 언급하였다. 더욱이 고래로부터 승계된 사찰 이외에 새로운 도량이 개창된다는 사실은 불교의 기운을 크게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6. 조선시대

불교사에서 「조선시대」라고 하면 가장 컸던 불교의 수난시대였다고 말하게 된다. 즉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국시(國是)로 배불승유(排佛崇儒)를 내세웠으니 불교의 위축은 국초부터였다. 이번의 장·항목에서는 이렇듯 어려웠던 때의 불교가 양양지역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소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양양지역의 각 사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찰의 회진, 회철, 폐사에 따르는 중창불사의 실태들을 고찰하여 양양지역의 불교사회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조선시대(1392~1910년) 518년간의 역사속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낙산사의 변화

이 시대의 낙산사관계기록은 여러 문헌에 많이 남아있어 보다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건봉사본말사적」에 조선 태조 원년(1392년) 을해(乙亥, 라고 했으나 태조 원년은 임신 : 壬申이다)에 춘추(春秋)로 사신을 보내어 삼일재(三日齋)를 설행토록 하니 그 후에 매년 규칙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시인 배불승유정책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태조의 개인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일찍이 잠적해 있을 때부터 무학대사(無學大師)와의 관계와 충주 청용사 보각국사(普覺國師)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태조는 이 두 대사를 왕사(王師)로 모시고 제반사안을 논의하였으며 입적 후에도 국사, 왕사로 추앙토록 하였던 것이며 이밖에도 태조의 불심과 불교옹호의 행적

은 여러 곳에 남아있다.

이후 제7대 세조(世祖:수양대군)때 이르러 국왕의 불교신봉의 뜻에서 왕 12년(1466년)에 직접 낙산사에 행차하여 향폐를 헌상하고 사찰을 중창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왕 14년(1468년)에 학열(學悅)을 중창주로 삼아 낙산사를 중건토록 하였다. 이때 3층석탑을 9층으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3층석탑에 관해서는 「건봉사본말사적」에 신라시대 의상조사가 낙산사를 창건하고 3층석탑을 건조하여 보주(宝珠)를 봉장하고 16나한상을 소조로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라의 3층탑을 세조때 이르러 9층으로 크게 개건(改建)하였다는 것인데 현재의 원통보전 앞 석탑은 7층이다. 혹시 기단부까지 합쳐 층수를 정한다면 9층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3층을 9층으로 높고 크게[高大] 고쳤다는 것으로 불교세의 확장과 낙산사의 위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8대 예종 원년 을축(乙丑, 1469년)에 교지를 내려 절의 건물들을 중건하고 큰종(大形梵鍾)을 주조하였으며 경작지와 노비를 내려주어 낙산사는 더욱 사세가 굳건하게 되었다. 이때에 주성한 대종은 종신 표면에 명문이 가득히 각자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으며 국가 보물 제479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었으나 2005년 4월 5일 낙산사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어 그 잔해만이 몇 조각 남아 있다. 제9대 성종은 왕 원년 경인(庚寅, 1470년)에 교지를 내려 전답(田畵)과 노비를 하사하고 노역을 견감하여 일부분을 면제해주도록 하였으며 사찰땅을 면세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찰 부근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고 절산[寺山]의 벌목과 방화를 금지시켰다고 하니 역시 낙산사의 역사적 위상과 이에 상응하는 보존대책이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 2년(1471년)에는 선학(仙鶴)이 용선전과 영산전, 어제루, 승당 등을 보수하고 단청을 하여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4년 뒤인 왕 6년(1475년)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들이 선학이 복구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었었는데 제14대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당시 침략방화로 관음전과 관음상, 정취전, 금불상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인 제15대 광해군 11년 기미(己未, 1619년)에 관음굴을 중건하였고 제16대 인조 9년 신미(辛未, 1631년)에 낙산사에 또 불이 나 화주(化主) 종밀(宗密)과 학조(學祖) 등 36명이 중심이 되어 마음을 합하여 낙산사를 중건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 21년 계미(癸未, 1643년)에 낙산사에 또 화재가 일어났으며 이때에 화주 도원(道源)대

주(大珠) 등 45명이 중심이 되어 사찰을 증건하였다. 이후 제19대 숙종 9년 계해(癸亥, 1683년)에 관음굴의 불상을 개금불사할 때 1과의 명주(明珠)가 공중에서 내려졌는데[落下] 이때 석겸(釋謙)스님이 명주를 보존장엄하기 위하여 탑을 건조하여 왕 9년 그 해에 준공하였다고 한다. 현재 홍련암 관음굴로 가는 길 왼쪽 언덕위에 「공중사리탑」이라 칭하는 석조건조물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낙산사사리탑」으로 이때에 건조된 것이다. 이후 왕 20년 갑술(甲戌, 1694년)에 이 공중사리탑에 따르는 「공중사리탑비(空中舍利塔碑)」를 건립하여 현재 홍련암 입구 왼쪽에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왕 23년 정축(丁丑, 1697년)에는 정수(精粹)스님이 인월암(印月庵)을 창건하여 임진왜란으로 폐허된 낙산사는 크게 변모, 변창하게 되었다. 제21대 영조 13년 정사(丁巳, 1737년)에 석겸(釋謙) 등이 사적을 판각(板刻)하여 사찰의 역사를 엮었으며 왕 28년 임신(壬申, 1752년)에 진린(眞麟)스님이 관음굴을 중수하여 낙산사는 더욱 면모를 일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22대 정조 원년(丁酉, 1777년)에 낙산사에 큰 화재가 일어나 원통보전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이 모두 타버렸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왕 2년 무술(戊戌, 1778년)에 운학(雲鶴)등이 화주가 되어 낙산사를 증건하였는 바 이때에 영읍(營邑)의 지휘로 양양의 12면민들을 역사(役事)에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왕 21년 정사(丁巳, 1797년)에는 이 절의 스님 혜민(惠旻)이 관음굴을 증건하여 홍련암의 비중이 컸음을 알게 한다. 한참 후인 제25대 철종 원년 경술(庚戌, 1850년)에는 경봉, 염진, 공념 등이 화주가 되어 원통보전과 용선전을 중수하였는데 제26대 고종 3년 병인(丙寅, 1866년)에 큰장마 비[潦水]로 인하여 홍련암이 도괴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왕 6년 기사(己巳, 1869년)에 의연(義演)이 화주가 되어 홍련암을 증건함으로써 홍련암의 전통성과 귀중한 도량임을 알게 하였다. 왕 25년 무자(戊子, 1888년)에 이 절의 스님인 선학이 빈일루를 증건하고 왕 28년 신묘(辛卯, 1891년)에는 이 절의 스님인 응암과 선학 등이 용선전을 증건하였으며 어실각을 중수하였다. 왕 30년 계사(癸巳, 1893년)에 선학과 인파스님이 영산전을 증건하여 붉은 단청을 아름답게 하였으며 왕 32년 을미(乙未, 1895년)에 선학 스님이 승당을 증건하였다. 고종 말엽의 대한제국 광무 9년 을사(乙巳, 1905년)에 경은(敬隱) 스님이 선당(禪堂)과 후각(後閣) 등을 복구하였으며 한편 제27대

순종(純宗) 융희(隆熙) 2년 무신(戊申, 1908년)에 관음굴이 파손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반드시 기록해놓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으니 도량 입구의 천왕문에 안치된 사천왕상과 담장, 홍예문이다. 사천왕상은 조선말기의 명장 김주성이 조성 안치한 것으로 이름이 났었다. 담장은 원통보전의 뒤편을 에워 쌓은 담으로 적토(赤土)로 빚은 기와와 화강암 석재를 배열한 것이며 높이 4m, 둘레 30여m이다. 이러한 형태와 구조, 재질의 담장은 희귀한 것이며 낙산사원장(垣牆)이라는 명칭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 보전되어 있었다. 홍예문은 낙산사 도량 경내 입구에 쌓은 문으로서 초기에 제7대 세조의 뜻에 따라 각 고을의 군수가 석재를 하나씩 모아서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다. 즉 홍예문은 일반적인 형태의 반월형 문루인데 화강암 석재 26개를 긴 사각형으로 다듬어서 반월형태의 문을 만들은 것이다. 이 26이라는 숫자는 당시 강원지방(江原之部)의 고을 숫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당시 강원도에는 26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 전체의 숫자로 홍예문루를 축조하였음은 강원도 고을 전체, 강원도 도민 전체의 합심에서 낙산사의 불사가 이루어졌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낙산사의 사적들을 살펴보았다. 낙산사는 국초부터 국왕들의 주목하던 사찰로 조선 말엽까지 꾸준한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때로는 국왕이 직접 행차하고 그렇지 않으면 왕명에 의하여 불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 낙산사의 불사는 소실과 중창, 파손과 중건 등 계속적인 사찰 복구사업이 진행되었었다. 조선시대의 배불숭유 정책하에서 이렇듯 불사가 이루어졌음은 왕실과 당국의 비호가 크게 있었음을 말해준다. 낙산사의 위치가 양양지역으로 이 지역의 불교교세와 신봉의 상황, 승려들의 위치, 위상 등 모든 사안을 생각해 볼 때 그 중심이 낙산사였으며 나아가 동해안의 불교중심이 바로 낙산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동해안의 불교중심은 곧 양양지역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흥사의 변화

고려시대에 번창했던 신흥사의 면모는 조선시대 초반까지 이어졌으나 제14대 선조 25년 임진(壬辰,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9층탑이 파괴되었고 제16대 인조 20

년 임오(壬午, 1642년)에는 화재로 사찰이 완전히 타버렸다. 이후 곧 왕 22년 갑신(甲申, 1644년)에 이 절의 스님인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 등이 중창을 발원하던 중 하루는 세 승려가 똑같이 소림암(小林庵)으로부터 나타난 산신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3재(災)가 범하지 못할 것이다.”고 일러주는 꿈을 꾸고 선정사 옛터 아래쪽 약 10리 지점에 다시 절을 중창하고 이름을 「신흥사」라 하였다.〔禪定寺古址下十里地重建神興寺改名〕 그 후 신흥사는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의 신흥사라는 절 이름은 임진왜란 이후 제16대 인조 22년에 바뀌어진 것이다. 이때에 큰 중창불사가 이루어졌고 사찰의 명칭도 신흥사로 개명되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사적비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산중에서는 용암대사가 능인암(能仁庵)을 옛자리에 중건하고 내원암(內院庵)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왕 25년 정해(丁亥, 1647년)에 이곳 신흥사의 승려인 영서 연옥 혜원이 발원하여 대웅전을 건립함으로써 신흥사의 면모는 더욱 짜임새 있는 도량이 되었다.

제17대 효종 원년 경인(庚寅, 1650년)에 국왕의 내전(內殿⇒大內)으로부터 향로1좌를 하사받아 보내왔으니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흥사의 위상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제18대 현종 2년 신축(辛丑, 1661년)에는 해장전(海藏殿)을 창건하고 법화경, 중예문, 결수문, 청문등의 판본(板本)을 수장하였다. 제19대 숙종 41년 을미(乙未, 1715년)에 설선당(說禪堂)이 화재로 타버려 왕 43년 정유(丁酉, 1717년)에 이르러 이 절의 스님인 취진(就眞) 익성(益成) 등이 설선당을 중건하였다. 제21대 영조 원년 을사(乙巳, 1725년)에 해장전을 중수하였고 왕 13년 정사(丁巳, 1737년)에는 명부전을 창건하고 지장보살상을 소조로 조성하여 안치하였다. 왕 16년 경신(庚申, 1740년)에 이 절의 스님인 퇴운(雷雲) 퇴응(雷應) 퇴상(雷尙) 등이 사찰 건물들 지붕의 변화불사를 하였고 왕 24년 무진(戊辰, 1748년)에 원각거사가 대종(大鍾)과 중종(中鍾) 금고(金鼓) 각 1좌식을 주성하였다. 다음해인 왕 25년 기사(己巳, 1749년)에는 이 절의 스님인 각중(覺重)등이 대웅전을 중사하였으며 왕 37년 신사(辛巳, 1761년)에 홍징(弘徵) 홍운(弘運) 스님 등이 대웅전의 둘째단을 축조하였다. 왕 46년 경인(庚寅, 1770년)에는 대웅전과 보제루를 중수하였고 왕 50년 갑오(甲午, 1774년)에 준용대사가 불상과 보살상을 개금하여 모셨다.

제22대 정조 9년 을사(乙巳, 1785년)에 이 절의 준경 스님이 안양암(安養庵)을 창건

하였으며 왕 12년 무신(戊申, 1788년)에는 화주 홍한(弘漢)이 대종과 금고를 개주하였고 이 절의 인곡(麟谷) 스님이 해장전을 중수하였다. 왕 21년 정사(丁巳, 1797년)에 이 절의 창오(暢悟) 거관(巨寬) 스님이 주선하여 명부전을 중수하였으며 호엽(昊葉) 처기(處琦) 시택(始澤) 의유(毅有) 스님들이 해장전을 단청하였고 왕 22년 무오(戊午, 1798년)에는 10왕상(十王像)을 깨끗이 색채를 개칠하고 지장탱화를 조성하여 신흥사도량이 점차적으로 정비되고 있었다. 제23대 순조 원년 신유(辛酉, 1801년)에 이 절의 벽파(碧波) 창오 스님들이 용선전을 창건하고 열성조(列聖朝)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왕 13년 계유(癸酉, 1813년)에는 이 절의 주운(周雲) 철수(喆修) 윤찬(潤贊) 스님들이 불이문(不二門)과 단속문(斷俗門)을 건립하는 한편 벽파 창오 부총 승기 스님 등은 보제루를 중수하였다. 왕 21년 신사(辛巳, 1821년)에 거관 근민 부총 승기 창오 스님들이 발원하여 극락보전을 중수하였다. 왕 27년 정해(丁亥, 1827년)에 극락보전에 단청불사를 하였고 왕 29년 기축(己丑, 1829년)에는 화주 법한(法閒)이 중종 1좌를 주성하였다.

제25대 철종 9년 무오(戊午, 1858년)에 벽하와 명성 스님들이 16나한을 구월산패섭사(九月山貝葉寺)로부터 해장전(海藏殿)에 옮기고[移安] 해장전의 경관을 대웅전으로 옮겼으며 해장전의 명칭을 응진전이라 고치는[改額] 한편 소향각을 건립하였다. 왕 11년 경신(庚申, 1860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인하여 불타버리매 해봉(慧峰) 스님이 내원암을 중건하였다. 제26대 고종(高宗)때에 이르러 왕 3년 병인(丙寅, 1866년)에 이 절의 만우(萬愚) 스님이 안양암의 번와불사를 행하였으며 왕 8년 신미(辛未, 1871년)에는 화주 상념(尙念)이 적묵당을 중수하였고 이 절의 설월(雪月) 스님이 적묵당의 후각(後閣)을 건립하였다. 왕 12년 을해(乙亥, 1875년)에 이 절의 보림(普琳) 스님이 안양암의 불상을 개금하였고 왕 19년 임오(壬午, 1882년)에는 경봉(經峯) 스님이 내원암의 독성전(獨聖殿)을 건립하고 신중탱화를 조성하였다. 왕 22년 을유(乙酉, 1885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불타버렸으며 경봉 스님이 이 내원암을 중건하였다. 왕 27년 경인(庚寅, 1890년)에 진영각(眞影閣)이 퇴락하므로 진영을 운하 스님雲霞적묵에 옮겨 모셨다. 이때에 응화대사(應化大師)가 계조암의 삼성각(三聖閣)을 창건하였다. 왕 28년 신묘(申卯, 1891년)에 내원암의 후불탱과 칠성탱, 신장탱을 조성 봉안하였다. 왕 29년 임진(壬辰, 1892년)에 진영각이 퇴락 파손되니 이 절의 선악(仙岳)스님이 진영각에서 수습한 재목(材木)으로 삼성각을

건립하였다. 왕 30년 계사(癸巳, 1893년)에 동고(東杲)와 연월(蓮月) 두 스님이 모연(募緣)하여 십왕상을 다시 칠하고 진요사건물을 수리하였다. 왕 39년인 대한제국 광무 6년 임인(壬寅, 1902년)에 이 절의 경은 스님이 대웅전과 요사건물의 번와불사를 실시하였고 왕 42년 광무 9년 을사(乙巳, 1905년)에 이 절의 만월 스님이 불상을 개금불사하고 탕화를 채색주수(重彩)하였다. 제27대 순종(純宗) 2년, 즉 대한 융희 2년 무신(戊申, 1908년)에 동암(東庵)이 계조암을 단청칠하여 정리하고 동구가 후불탱화를 조성하여 안치하였다. 왕 3년 융희 3년 기유(己酉, 1909년)에 용선전이 퇴폐하였고 융희 4년 경술(庚戌, 1910년)에 응진전이 화재로 인하여 크게 불에 탔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신흥사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를 기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설악산 동쪽 산기슭에 자리한 이곳 신흥사가 고려시대의 성찰이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사찰이 전소되었다. 그러나 여러 고승대덕들이 신흥사에 주석하면서 법등을 크게 밝히고 불사를 일으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찰에서 큰 변을 당한다는 것은 화재사건이다. 건물이 부분적으로 퇴락하고 헐어지면 목부를 갈고 새기와를 얹으면 된다. 그러나 화재가 나면 잿더미밖엔 남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건물들의 중창과 중건 보수불사가 있게 되는데 모든 일이 신심과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 곧 교세이고 사세(寺勢)와 위상인데 신흥사는 1910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각종불사가 끊이지 않았다. 건물에 화재가 나면 곧 중건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하며 각종 불구(佛具)도 새로이 조성 봉안하였다. 소속암자들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졌고 신흥사 홍융의 길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었으며 동해안의 낙산사와 더불어 양양지역의 불교중심, 포교중심의 도량으로 등축이 크게 밝혀졌던 사찰이었다.

3) 진전사의 변화

통일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에도 선종의 근본도량으로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 수행 사찰로 번창한 진전사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국초에는 법등을 크게 밝히고 있었으니 이곳에서 발굴조사한 기와 중에 「성화삼년(成化三年)」의 명문이 있는 암막새기와

가 발견되어 제7대 세조 13년(1467년)에 중창과 번와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사찰이 소실 폐사되었음인지,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서와 모든 문헌에 진전사관계기록은 없으며 이곳의 발굴 유물 중에도 왜란 이후의 관계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현산지』에 「고탑(古塔)」이 있다 하였고 또한 현산지에 「서북쪽 30리에 둔전사(屯田寺)가 있었는데 폐사되었고……고탑(古塔)을 둔전탑(屯田塔)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진전사가 폐사되어 오랫동안 중창·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사지에 다만 석탑1기가 건립되어 있으므로 폐사된 사찰명을 동리명칭을 인용하여 「둔전사」라 하고 진전사석탑이 오래된 신라시대의 석탑이니 고탑이라 일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진전사지에서 낙산사가 가깝고 신흥사도 멀지 않으나 이 두 사찰에 비하여 산간의 좁은 도량이고하여 여 진전사의 중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등축을 밝히지 못하였던 도량이었음을 알겠다.

4) 영혈사의 모습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고려시대 이래의 도량이 유지되었었는데 제19대 숙종 14년 무진(戊辰, 1688년)에 불이나 모두 타버렸다. 왕 16년 경오(庚午, 1690년)에 이 절의 취원(聚遠) 스님이 영혈사를 중건하고 절 명칭을 영천사(靈泉寺)라 개칭하였다. 그 연유는 이 절의 서쪽편에 「영천(靈泉)」이 있어 약수물로 이름이나 이 약수를 마시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운상계(雲上界)에서 넓은 천하를 굽어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만병통치의 약수라는 샘물이 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취원 스님은 영천사 동남쪽에 취원암자를 창건하였다. 왕 42년 병신(丙申, 1716년)에 이 절의 학천(鶴天) 스님이 영천사 북쪽 산기슭 10리 되는 곳에 학소암자를 창건하였다. 제21대 영조(英祖) 40년 갑신(甲申, 1764년)에 이 절의 묘각(妙覺) 스님이 영천사의 서쪽 기슭에 백학암자를 창건하였다. 제23대 순조 26년 병술(丙戌, 1826년)에 이르러 학조암이 폐사되었고 제25대 철종 4년 계축(癸丑, 1853년)에는 백학암이 파괴되었다.

제26대 고종(高宗) 18년 신사(辛巳, 1881년)에 신사(信士) 김중욱(金重昱)이 산신각을

중수하였고 왕 24년 정해(丁亥, 1887년)에 이 절의 지화(知和)스님과 도윤(道允) 스님이 영천사를 중수하고 영혈사라 옛 절명칭을 복구하였다. 왕 37년, 대한제국 광무 4년 경자(庚子, 1900년)에 신사 김우경(金禹卿)이 산신각을 중수하였고 광무 7년 계묘(癸卯, 1903년)에 이 절의 보훈(普訓) 스님이 칠성계를 창설하여 계급으로 밭 75두락을 사들여 향자(香資)를 받쳤으며 광무 8년 갑진(甲辰, 1904년)에는 신사 김우경이 사찰을 중수하였다. 한편 이 절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설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이 절에서 낙산사의 흥련암까지 선장(禪杖)으로 샘물줄기를 끌어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설화는 이곳 영혈사에 「영천」이 있어서 일찍부터 신기한 약수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초창기부터 1910년까지의 영혈사 사적을 대략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500년간 화재로 절이 불타면 다시 중건하고 암자를 새로이 창건, 중창, 중수하는 등 꾸준히 법등을 밝히고 있었음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 현지를 답사해볼 때 조선시대 대덕들의 부도(浮屠)가 여기저기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 사찰의 사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양지역에서의 조선시대 불교를 살펴볼 때 영혈사는 꾸준히 등축을 밝히면서 사회교화와 불교포교의 한 면을 차지했었던 사찰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효대사와 흥련암과의 설화는 영혈사의 위상을 더욱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5) 화엄사의 변화(옛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

조선시대에 이르러 제3대 태종(太宗) 원년 신사(辛巳, 1401년)에 지장암을 옛터의 동쪽으로 옮겨 세우고 미타암(彌陀庵)이라 암자의 명칭을 고쳤다. 제16대 인조 원년 계해(癸亥, 1623년)에 화엄사에 화재가 일어나 큰 손실을 보았으나 왕 3년 을축(乙丑, 1625년)에 사찰을 중건하였다. 왕 6년 무진(戊辰, 1628년)에 이 절의 광명(廣明) 승휘(勝輝) 스님이 화엄사의 서쪽에 안양암(安養庵)을 창건하였으며 광명 스님이 지장상을 조성 봉안하였다. 왕 13년 을해(乙亥, 1635년)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화엄사가 소실되어 옛터[古址]의 동쪽 20리 되는 곳에 임시로 화엄사를 옮겨 세웠으나 그 후 왕 22년 갑신

(甲申, 1644년)에 화엄사를 본래의 옛터에 중건하였다. 제18대 현종 3년 임인(壬寅, 1662년)에 화엄사가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곧 중건하였다. 제19대 숙종 42년 병신(丙申, 1716년)에 도적들이 불을 놓아 화엄사가 불에 탔으며 다음해에 절터의 동쪽 10리 되는 무릉도(武陵島)에 초가집을 지어서 승도들의 살 곳[居住]을 제공하였다. 제20대 경종 원년 신축(辛丑, 1721년)에 사찰을 옛날 절 자리에 중건하였으며 이 절의 해성스님이 안양암자를 중수하였다. 제21대 영조(英祖) 36년 경진(庚辰, 1760년)에 대웅전과 향각, 승당(僧堂)이 화재로 불에 탔다. 그리하여 다음해 왕 37년(1761년)에 승당을 중건하고 그 다음해인 왕 38년(1762년)에 대웅전과 향각을 중건하였다. 제22대 정조(正祖) 20년 병진(丙辰, 1796년)에 국왕 정조가 미타암의 화응전(華膺殿)을 원당(願堂)으로 정하고 관음상 1위와 어병(御屏, 국왕이 내려주는 병풍)과 련(輦:궁중의 가마)을 하사받고 사찰의 사표(四標:사찰의 경내 또는 영역을 구분 표시하는 것)를 정하였다. 제25대 철종 11년 경신(庚申, 1860년)에 산불로 인하여 화엄사와 암자들이 모두 불타 버렸다. 그리하여 춘담대사가 절을 중건하였는데 이때 조가(朝家:朝廷:왕실을 말함), 즉 조정에서의 은혜와 은덕[蒙惠:蒙恩]이 많았다. 한편 이 절의 춘담스님이 안양암을 중건하고 수봉스님이 탕화(佛幀)를 조성 봉안하였다.

제26대 고종(高宗) 원년 갑자(甲子, 1864년)에 산불로 인하여 화엄사가 불에 탔으며 왕 5년 무진(戊辰, 1868년)에 지장탱화와 신중탱화, 현왕탱화를 조성하였고 왕 9년 임신(壬申, 1872년)에는 수봉스님이 사찰을 중건하였다. 왕 19년 임오(壬午, 1882년)에는 경허와 선월 두 스님이 철원군(鐵原郡)의 장구사(長久寺)로부터 미타상과 약사상을 옮겨 모셔와 봉안하였다. 왕 30년 계사(癸巳, 1893년)에 물난리[水災]로 인하여 안양암이 파손되었는데 다음해인 왕 31년 갑오(甲午, 1894년)에 축성스님이 안양암을 중수하였다. 제27대 순종(純宗) 3년, 대한제국 융희 3년 기유(己酉, 1909년)에 영운(影雲)이 안양암의 칠성각을 건립하였다.

이와 같이 화엄사의 조선시대 사적을 살펴보았다. 다른 사찰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듯이 모두 절에서의 화재, 산불로 인한 화재, 또는 홍수로 물난리에 의한 사찰의 유실과 파손으로 사찰의 흥성과 쇠퇴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화엄사도 이와 똑같은 사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등축을 밝히면서 도량을 유지해 왔

었으며 더욱이 제22대 정조연간(왕 20년, 1796년)에는 국왕의 원당이 이 사찰에 정해지고 관음상과 병풍, 가마 등을 궁중으로부터 하사받았으며 제25대 철종 연간(왕 11년, 1860년)에 사찰을 중건함에 조정으로부터 많은 은덕이 베풀어졌다함은 화엄사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바라 하겠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배불정책의 조선시대에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법등을 밝혀 양양지역 불교교화에 공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내원암과 계조암의 변화

내원암과 계조암은 신흥사를 본사로 하여 개창하고 등축을 밝히고 있는 암자로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지리서(歷史地理書)인 『여지도서, 범우고, 관동지, 읍지, 강원도지, 현산지』 등에서 관계 기록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신흥사의 관계사적을 고찰할 때 이 두 곳의 암자에 대하여 대략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즉 내원암은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능인암(能仁庵) 옛자리에 중건하여 암자명을 내원암이라 개칭하였으니 그때가 제16대 인조 22년 갑신(甲申, 1644년)이었다. 이후 제25대 철종 11년 경신(庚申, 1866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소실되어 혜봉 스님이 중건하였고 제26대 고종 19대 임오(壬午, 1882년)에 경봉스님이 내원암에 독성전을 건립하여 산신탱을 조성 봉안하였다. 왕 22년 을유(乙酉, 1885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불탔으며 경봉 스님이 내원암을 중건하였다. 왕 28년 신묘(辛卯, 1891년)에 내원암에 후불탱, 칠성탱, 신장탱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계조암은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오랫동안 고승대덕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의 수행도량으로 등축을 밝혀온 암자로 유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제26대 고종 27년 경인(庚寅, 1890년)에 응화(應化)대사가 계조암에 삼성각(三聖閣)을 창건하였고 제27대 순종 2년, 대한 융희 2년 무신(戊申, 1908년)에 동암(東庵)스님이 계조암을 단청 칠하여 면모를 갖추고 동고(東杓)스님은 후불탱화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내원암과 계조암은 설악산 심산유곡의 작은 암자이나 오랜 세월 불도들의 수도, 수행도량으로 법등을 밝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암자는 선법(禪法)이 한반도

에 정착하면서 많은 선승들을 배출하였고 어느 때나 시류를 타지 않았던 선실, 선방의 특징을 보였던 도량이라 할 것이다.

7) 오색석사의 변화

『현산지』에 의하면 「오색천 상류에 현곡사(玄谷寺)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사되었다. 이곳에 탑(塔)이 현존하여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추정됨」이라 하여 「오색천, 탑, 오색석사」 등의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 내용들에서 오색천 상류의 옛절터로는 신라시대의 오색석사 옛터 뿐이다. 그리고 탑이 현존한다함은 오색석사지의 신라석탑 이외에는 없다. 이러한 모든 점을 미루어 보면 오색석사는 조선시대에 들면서 폐사되었고 오랫동안 이 폐사상태가 계속됨에 따라서 사찰명도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8) 선림원의 상태

선림원(禪林院)에 관하여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사림사비(沙林寺碑)」라 하여 『여지도서, 관동지, 관동읍지』 등에서 관계기록을 살필 수 있다. 이들 내용에서 「사림사비(沙林寺碑), 서쪽 30리에 있다, 선림원지의 홍각선사비(弘覺禪師碑), 폐사됨」 등의 몇 가지 내용이 주목된다. 즉 선림원 옛터의 상황을 볼 때 위치가 서면 황이리 미천곡으로 사찰의 자리가 선림원지와 같다. 특히 홍각선사비는 현지인 선림원지에 보존되어 있는 석비인 것이다. 그리고 폐사되었다고 하였으니 고려일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된 후 다시 중창불사가 크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다만 옛 석탑이 서 있고 석등, 석조부도, 석비 등 옛 사찰의 유적유물이 있으므로 승려들이 개인적인 수행도량을 짓고 등축을 밝혔을 것이 아닌가 한다. 현지에서 수습되는 조선시대의 기와, 자기, 토기 등 여러 파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양지역에서 이곳 선림원지는 아주 먼 곳이며 산간오지이다. 가까운 낙산사, 신흥사, 영혈사, 명주사 등 큰 사찰에 비하면 너무나 외딴 곳이어서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생각할 때 조선시대의 역불적인 사회와 정서, 사상 등이 선림원의 중창불사를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다.

9) 서림사의 상태

서림사(西林寺)에 관계된 기록은 『현산지』에서 약간 찾아볼 수 있다. 즉 「서쪽 30리에 있으며 폐사되었다. 석불과 석탑이 현존하는데 석불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었다고 함」. 그런데 이와 같은 『현산지』의 내용에서 「폐사되었다, 석불이 임진왜란으로 파손되었다……」하였으니 조선시대 전기까지에는 고려시대 사찰의 면모가 유지되어 법등을 밝히고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 폐사된 뒤 다시 중창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서림사의 위치가 양양중심에서는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이어서 지리적으로도 중창의 위치가 어려웠을 것인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선림원의 사정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명주사의 변화(현북면 어성전리)

고려시대 전반에 창건되어 수많은 화재와 수재를 겪으면서 법등을 밝히며 조선시대 배불정책의 사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양양지역에서도 현북면의 어성전리를 중심으로 일대의 지역에서 이곳 명주사는 사회교화와 신심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명주사에 따르는 암자의 창건을 볼 수 있었으니 제19대 숙종 2년 병진(丙辰, 1676년)에 이 절의 수영(秀瑩)스님이 향노암자를 창건하였고 왕 27년 신사(辛巳, 1701년)에 벽옥루(碧玉樓)를 창건하였으며 제22대 정조(正祖) 5년 신축(辛丑, 1781년)에는 이 절의 련파(蓮坡)스님이 원통암을 창건하고 관음보살상을 조성 봉안하였다. 제24대 현종 15년 기유(己酉, 1849년)에 원통암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에 이내 즉시 중건하였다. 제25대 철종 4년 계축(癸丑, 1853년)에 또다시 원통암에 화재가 일어나 불타버렸으나 다시 중건하였다. 왕 11년 경신(庚申, 1860년)에 명주사 본사와 원통암 청련암 운문암 향로암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이때 이절의 월허(月虛)스님이 사재(私財)를 기울여 명주사를 중건하였고 다음해인 왕 12년 신유(辛酉, 1861년)에는 이 절의 인허(印虛)스님이 운문암을 중건하고 만일선회(萬日禪會)를 설치하였으며 향로암을 옛자리[古址]의 서쪽에 옮겨 세워 보련암(寶蓮庵)이라 암자 명칭을 개명하였다.

제26대 고종(高宗) 원년 갑자(甲子, 1864년)에 이 절의 학운(鶴雲) 정원(正原) 스님이 개인재산(私財)을 털어 원통암을 중건하였다. 왕 15년 무인(戊寅, 1878년)에 명주사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에 왕 16년 기묘(己卯, 1879년)에 명주사를 중건하였다. 왕 24년 정해(丁亥, 1887년)에는 이 절의 일봉(日峯) 스님이 용선전(龍船殿)을 건립하였다. 왕 34년 대한제국 광무 원년 정유(丁酉, 1897년)에 명주사가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이후로는 원통암에서 사찰의 여러 가지 사무(寺務)를 행하게 되었으니 이때의 명주사는 원통암을 칭하였던 것이다. 왕 36년 대한 광무 3년 기해(己亥, 1899년)에 향로전을 중건하였으며 왕 43년 대한 광무 10년 병오(丙午, 1906년)에 원통전을 중건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명주사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어떠한 상황으로 유지되었는가를 기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역시 다른 사찰들과 같이 화재가 종종 일어나 명주사 본사는 물론 소속암자도 자주 화재가 발생하였었다. 그리하여 사찰이 중창되고 암자의 건물들이 중건되는 등 본사와 암자들의 면모는 그대로 유지되어 법등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광무 원년(1897년)에 명주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원통암에서 사무를 보고 제업무를 행하게 됨에 지금의 명주사는 본래 원통암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등축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었으니 명주사는 이 곳 일대의 모든 교화에 진력하였던 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양양지구의 불교가 어떠한가를 대략 살펴보았다. 그런데 배불숭유의 국시로 창업한 조선시대의 양양지구 불교는 뜻밖에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든 사찰이 큰 화재로 법당 건물을 비롯한 부속건물이 소실되면 곧 중창, 중건하였고 때로는 새로운 전각들도 건립하였다. 그러므로 항상 등축을 밝히는 도량이 많았고 어떠한 사찰은 국왕의 행차가 있었으며 왕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물(儀物)들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예컨대 낙산사는 국초때 태조는 원년(1392년)부터 춘추로 사신을 보내어 삼일재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후 매년 규칙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제7대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향폐를 헌상하고 낙산사를 중창토록 하였다. 제8대 예종은 교지를 내려 절의 건물들을 중건하고 대종을 주조토록 하였으며 경작지와 노비를 내렸다. 제9대 성종도 교지를 내려 전답과 노비를 하사하고 노역을 견감, 사찰땅을 면세토록 하였다. 제17대

효종은 내전으로부터 향로 1좌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제22대 정조는 화엄사의 미타암 화응전을 원당으로 정하고 관음상과 병풍, 궁중의 가마를 하사하며 사찰의 영역을 표시하는 사표(동·서·남·북의 표석)를 정하도록 하였다. 제25대 철종 때 화재로 소실된 화엄사 본사와 암자들을 중건할 때 조정으로부터의 은택이 많았다.

이와 같이 궁중에서 직접 사은을 받았던 낙산사와 화엄사의 위상과 그 교세, 도량의 광명이 대단하였을 것인바 이밖에 신흥사 영혈사 내원암 계조암 명주사 등 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화재와 수재로 온갖 재난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법당과 부속건물들을 중건 보수하여 법등을 밝히면서 도량의 면모를 갖추었으니 조선시대 양양지역의 불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면면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근·현대

조선 제27대 순종(純宗) 4년 경술(庚戌,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의 강제합방으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화된 「경술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1945년 8·15광복 때까지 36년간을 일본치하에서 신음하다가 해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의 2010년이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서 꼭 100년이 된다. 100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었으니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강토가 폐허되다시피 하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이 황폐해졌고 불교계의 종파다툼으로 사·암의 질서가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리하여 이 장·절에 있어서는 양양지역을 중심한 일제강점기의 각 사찰의 상황과 변모를 살펴보고 광복 후,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의 여러 가지 사정,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찰들의 변화된 면모 등을 기록과 현지답사에서 밝혀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시대설정을 근대와 현대의 불교라 하여 「근·현대」라 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모든 사찰이 여러 가지 사정, 여건에 따르는 사찰의 변모를 볼 수 있으므로 각 사찰별로 검토하려고 한다.

1) 낙산사의 변화

1910년 이후 1911년 신해(辛亥) 12월에 김백월(金白月) 스님이 낙산사의 주지에 취임하였다. 이해에 화주 흥운(興雲) 청호(淸湖) 두 스님이 1908년도에 파손된 관음굴을 중건하였다. 1912년 임자(壬子)에 낙산사는 건봉사(乾鳳寺)의 말사(末寺 : 건봉사에 속하는 사찰)가 되었다. 이해에 이절의 해성(海星)스님이 빈일루를 중건하였다. 1914년 갑인(甲寅)에 이르러 해성 스님이 천왕문을 중건하고 천왕상을 다시 채색하는(改彩)불사를 하였으며 이해 12월에 윤설호(尹雪昊)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여 요사체를 수리하였다. 1918년 무오(戊午) 5월에 이응호(李應湖)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법전과 요사를 칸칸마다 수리하였다. 1924년 갑자(甲子) 4월에 김규현(金奎鉉)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여 사찰과 도량 전체를 수리하고 임목(林木)을 더 많이 심도록(增植) 하였다. 다음해인 1925년 을축(乙丑)에 의상대(義湘臺)를 창건하여 1928년 무진(戊辰)에는 낙산사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불사 건축물로 원통전 9칸 영산전 6칸 용선전 6칸 대성문 3칸 음향각 12칸 설선당 49칸 빈일루 8칸 조계문 3칸 천왕문 6칸 범종각 1칸 해우소 4칸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으니 이렇듯 11동의 대·소 불사건물이 가득히 들어서 짜임새 있는 낙산사 도량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 경오(庚午)에 화재로 인하여 사찰 일부가 소실된 것을 1932년 임신(壬申)에 만옹 스님이 중건하여 양양지역 제일의 도량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이후에 더욱 이름난 사찰로 전국에 낙산사 이름을 떨쳤던 바 1950년 경인(庚寅)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사찰 전체가 소실되었다. 6·25 한국전쟁으로 입은 참화를 다 말할 수 없으나 전국 각지의 사찰들을 보았을 때 심산유곡, 깊은 오지에까지도 전화로 소실 파괴되어 어떤 사·암은 폐사지경에 이른 곳도 많다. 특히 낙산사는 평지가람으로 남북한 통로에서도 가장 큰길가로 요충지라 하겠다. 그러므로 낙산사가 폐허화 되었었다함은 이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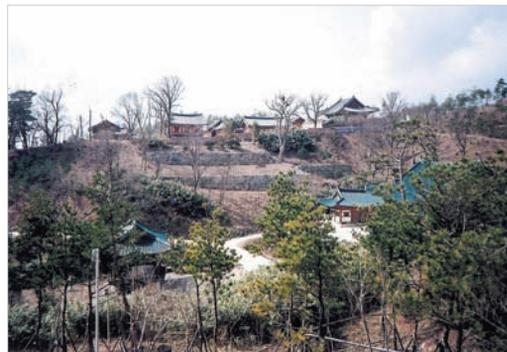
1953년 4월 당시 이형근 1군단장이 폐허가 된 낙산사 절터에 원통보전과 범종각 등을 복구하여 스님과 신도들이 주석하며 예불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7층석탑도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1972년에는 원철(圓徹) 스님이 중심이 되어 중창 불사를 시작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더욱 복구사업이 진행되어 1983년에 고향실, 무설전, 무이당을 해

체 복원하고 1988년 범종각을 신축하였으며 1996년에는 심검당을 새로이 건립하였다. 1999년에는 「근행당」을 건립함으로써 낙산사의 복원불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옛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2005년 4월의 산불 화재로 낙산사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어 잿더미만 남게 되었다. 한편 근년에 이르러 화강암으로 치석하여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입상(海水觀音立像)을 조성 봉안하였는데 석재는 전라북도 익산의 채석장에서 반입한 것으로 흔히 「황등돌」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때에 소요된 석재는 750톤이라고 한다. 조각가 권정환에 의하여 1972년 5월에 착수되었으며 5년만인 1977년 11월 6일에 완성 점안하였다. 높이 16m, 둘레 3.3m의 규모이며 대좌의 앞부분은 쌍용상이, 양 옆으로는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 한 송이 연꽃으로 된 연봉 위에 관음보살상을 안치하였다. 이 관음입상은 왼손에 감로수병을 받쳐들고 오른손은 천의 자락을 가볍게 잡고 있으며 이마에는 백호가 있어 온누리에 퍼지는 자비의 광명을 상징하고 있다. 거대한 입상이어서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원만한 상호와 정제된 각부의 조각, 균형이 잡힌 동체 각부와 체감 등이 근래에 보기 드문 거룩한 입상이라 하겠다. 이 석조해수관음입상은 2005년 4월의 산불화염에 휩싸이지 않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화재 이후 1년 6개월에 걸친 두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모든 건물의 유구가 잘 나타나서 복원 불사에는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인화문 토기편과 고려시대의 막새기와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명문기와 등 인데 낙산사 창건으로부터 1340년간의 중창과 중건불사 등 유구한 낙산사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되고 있다. 발굴조사 이후 금곡정념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낙산사의 중창 불사가 진행되어서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원통보전, 범종루, 심



낙산사 도량(원통보전과석탑)



낙산사전경(중창복원불사가 한창임)

검당, 취숙헌, 선열당, 홍예문누각, 흥련암연화당. 해우소가 신축되었고 2009년에 이르러는 빈일루, 대성문, 설선당, 근행단, 응향각, 정취전, 송월료, 고향실, 취숙헌, 해우소가 새로이 건립되어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낙산사에는 원통보전 앞마당에 7층석탑(보물 제499호), 원통보전의 주존으로 모시고 있는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을 비롯하여 강원도지방문화재인 홍예문, 의상대, 공중사리탑, 담장, 흥련암 등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낙산사동종도 보물 제479호로 지정 보존되어 조선시대 전기인 제8대 예종 원년(1469년)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법종이었으나 2005년 4월의 화재로 불타버린 잔해만이 남아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양양낙산사사리탑」은 언제인지는 모르나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있었으며 필자가 1953년도에 이곳을 답사했을 때에도 기울어져 있어서 당시에는 일찍이 사리장엄 도굴배들의 만행에 의한 피해로 여겨졌다. 그런데 2005년 4월에 산불로 인한 낙산사화재 때 주위의 수목이 모두 소실되어 이 사리탑도 화염에 싸여 큰영향을 받아 각부의 석재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부분들을 과학적 보존작업을 진행하며 또한 서쪽으로 기울어진 사리탑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여 옥개석을 들었을 때 탑신석 상면의 중앙에서 원형사리공(圓形舍利孔)내에 뜻밖에 사리장엄을 봉안하였음이 원형(原形)대로 발견되었다. 사찰측의 증언에 의하면 200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사리탑을 해체하던 중 탑신석 상면중앙의 원형사리공(직경 23cm, 깊이 17cm)안에 모든 사리장엄이 봉안되었음을 발견하여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2006년도 4월) 1년전(2005년 4월)의 일로…….

「비운(悲運)의 낙산사」라 할 정도로 큰화재를 당하여 가람전체가 화염에 회진되었는데 이러한 화마속에서도 의연히 사리탑이 건재하여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모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호 아래 모든 불자와 산문대중들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경하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사리장엄의 발견조사로 장엄은 물론 사리탑의 건조연대를 알 수 있고 그 당시 사리봉안의 형식과 의물(形式·儀物)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여기에 그 대략을 적음으로써 낙산사사리탑에 대한 모든 이해와 위상과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사리장엄은 노란색 비단보자기에 싸여있는 둥근형태의 청동합(靑銅盒)내에 4점의

노란색, 푸른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으로 싸고 연분홍색의 비단 3매로 빈틈없이 에워싼 가운데 원형의 은제합(銀製盒)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은제합안에 2겹의 푸르고 누런 색색의 길상문과 만(卍)자 등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한 비단으로 싼 원형의 금제합(圓形金製盒)을 안치하고 주변에 4꼭지의 다라니가 보호하고 있다. 금제합 안에는 색동비단 1겹으로 싼 자주색 유리제 원형의 사리호를 받들고 그 안에 불사리 1과를 흰색[白色] 명주솜 보료위에 봉안하였다. 청동제의 외합은 높이 13cm, 직경 16cm 크기로 푸른색의 녹이 덮혀 있다. 은제합은 높이 9cm, 직경 8cm의 크기로 다소 변색되었으나 환한 은색은 분명하다. 금제합은 높이 6cm, 직경 5cm의 크기로 황금색이 찬란하며 당초 그대로의 형태와 금색(金色)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사리 장엄에서 친견한 불사리는 0.8cm×0.6cm의 대형 진신사리(眞身舍利)로 영롱하기 이를 데 없고 유백색(乳白色)으로 서광이 비치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사리의 매끈한 형태와 빛나는 발색 등 모든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라시대부터 봉안했던 불사리임이 틀림없다. 청동합 내에는 한지에 글자직경 1.5~2.5cm 크기의 해서체로 주서(朱書)한 연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4매로 이어졌으며 크기는 너비 27.5cm 길이 222cm이다. 종이의 재질은 질기고 얇은 옛 한지로서 이 연기 역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주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康熙三十一年 龍集壬申六月初十日(강희삼십일년 용집임신유월초십일)

奉祝(봉축)

主上殿下 壽萬歲(주상전하 수만세)

王妃殿下 壽齊年(왕비전하수제년)

世子邸下 壽天秋(세자저하수천추)

天下泰平法輪轉(천하태평법륜전)

施主(시주) 崔來泰(최래태)

施主(시주) 芳名于后(방명우후)……

라 하고 다음으로 비구와 각종 장엄조성 봉납 시주자들의 이름을 가득히 적었다. 첫머리에 강희(康熙) 31년이라는 절대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제19대 숙종 18년(1692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강희 31년의 절대연대와 용집(龍集)이라는 옛부터 사용하였던 분명한 연대 표시의 용어, 그리고 국왕을 비롯한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과 국태민안을 기원한 발원이라 하겠다. 이밖에 청동합 내에는 19매의 주서범자한지편(朱書梵字韓紙片)이 함께 보존되었는데 그중 제일 큰 한지에는 첫머리에 산중석덕(山中碩德)이라고 하고 현륜(玄輪)을 비롯한 7인의 비구,姜예선(姜例善)을 비롯한 4인의 처사 이름이 적혀있으며 원이불도(願以佛道)라 막음하였다.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사리장엄의 내용, 봉안방법 등 여러 가지 귀중한 사실과 여기에 따른 각종 직조물, 한지 등에 관해서도 시대성을 잘 알 수 있으려니와 특히 이러한 장엄을 봉안한 공중사리탑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리장엄 발견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사리탑은 의상대와 망망동해를 굽어보는 언덕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 현재가 원위치인데 높이 3.35m로 2매의 장대석 지대 위에 기단을 구성하고 그 위에 탑신석과 옥개석, 상륜부를 차례로 중적한 형태이며 신라 이래 전형적 양식으로 건조한 8각원당형의 일반형 석조부도 형식이다. 기단부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으며 1석으로 조성한 하대석 8각의 각 면에 2주의 안상 내에 태극문을 조각하고 상면의 각 변과 모서리에 1판씩 도합 16판의 단엽 복련을 장식하였는데 연판의 끝부분을 양쪽에 고사리문으로 장식하였다. 하대석 위의 중대석도 1석으로 조성하였는데 상·하단면에 괴임대와 받침대를 양각하여 마치 액(額)처럼 보인다. 그리고 중대석 각 면의 모서리에는 큼직한 연주(連珠)를 장식한 듯 절목형(節目形)의 기둥을 세우고 각면에는 태선(太線)을 엮어놓은 곡선문을 조각하였다. 그 위에 1석으로 조성한 상대석을 놓았는데 상대석 하면에는 각변과 모서리에 1판씩 도합 16판의 단엽 양련을 돌리고 측면 각 모서리에는 중대석 각 모서리와도 같은 절목문 기둥을 세웠으며 각 면에는 안상 1구씩을 장식한 안에 범자를 1자씩 음각하였다.

탑신석도 1석으로 조성하였으며 평면원형으로 이 사리탑에서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인데 원구형(圓球形)의 탑신석 상·하를 절단하여 각기 상·하 부재를 안정하게 접합하였으며 하단부에는 큼직한 양련형을 돌렸다. 옥개석 하면은 탑신석 위에 놓이는 부분에 낮은 원형의 원호 받침으로 옥개석이 들어맞게 하였고 전각에 이르는 널찍한 처마의 8각에 원호의 선문을 각출하였다. 옥개석도 1석 조성인데 완만한 곡선으로 전각을 이루

있고 낙수면 상단부에는 각 모서리에 큼직한 단엽 1판씩 도합 8판의 복련을 조각하였다. 그 상단부에 큼직한 연주문을 돌리고 상륜부를 받고 있는데 1석으로 이루어진 상륜은 평면이 원형이며 하단에 단엽의 입상형(立狀形) 양련을 돌리고 그 위에 2단의 연주문과 보륜을 장식한 상단에 보주를 조각하였다. 보주에도 입상형 양련을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화사한 상륜부임을 느끼게 한다. 이 사리탑은 건조연대가 조선 제19대 숙종18년(1692년)으로 확실하고 각부의 조각들이 주목되며 더욱이 탑신석이 원구형인 것은 신라 이래 고려, 조선시대 초기에 간혹 특수형부도에서 볼 수 있었던 형식으로 주의를 끈다고 하겠다. 한편 이 사리탑에서 홍련암으로 갈 때 암자 가까이 『해수관음공중사리비명(海水觀音空中舍利碑銘)』이라 제(題)한 석비 1기가 서있어 사리와 사리탑의 관계 내용을 알리고 있다. 이 석비는 높이 2.15m로 비문내용은 조선 제19대 숙종 9년(1683년) 계해(癸亥)에 홍련암에서 개금불사를 모실 때 서기가 가득차더니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는데 유리와 같이 광채를 냈었다고 한다. 석겸(釋謙)등이 대원을 발하여 탑을 쌓고 구슬(神珠)을 간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리비를 세운 때는 숙종 20년(1694년)이나 사리를 모신 때는 숙종 9년(1683년)이며 사리탑의 건조는 숙종 18년(1692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연대는 불사리 봉안 연기의 내용과 일치하여 더욱 뜻을 깊게 한다. 현재 홍련암 어구에 서 있는 이 사리비의 명문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으로 석비 상단에 횡으로 『海水觀音空中舍利碑銘』이라 전제(篆題)하고 길이로 비문을 해서 음각하였는데 여기의 명문은 조선시대 후기의 여러 금석문(金石文) 관계 자료에 소개되어 있음을 부언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리탑을 일반적으로 『공중사리탑(空中舍利塔)』이라 칭하는데 바로 이 『해수관음공중사리비명』의 석비에 따른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사리장엄이 발견안치 된 때는 2006년 4월28일이었는데 낙산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지에 간 것은 4월30일이며 이때 필자는 항상하고 있는 사리친견의 예의대로 친견조사를 진행하였다. 5월 11일에는 장엄들을 정리하고 5월 18일에 공개친견토록 하였으며 6월 12일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보존문제와 친견법회개최 등을 논의하여 사찰측의 기획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낙산사 공중사리탑 내에 봉안했던 사리장엄은 내·외합의 희귀성과 특히 각종기물을 에워싼 비단들의 중요성에 비추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성보들이라고 이 방면 연구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 앞으로의 큰 과제는 사리탑과 사리장

업의 보존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보자기와 보료 등 비단 견직물들에 대한 깊은 연구와 보존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장엄의 발견과 친견, 조사 공개발표에 이르기까지 제반 편의와 후원을 주신 낙산사 금곡정념 주지스님과 대공 재무스님의 심려인데 이 방면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깊은 감사를 드릴 뿐이다.

낙산사는 양양지역과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유명한 사찰이다. 창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그 위상은 대단하다. 배불승유가 국시였던 조선시대에도 국초부터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관계가 깊었다. 그리하여 항상 법등을 크고 밝게 비치며 많은 불자가 운집하였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본사도량에 못지않은 불사와 불교행사가 성행하였던바 최근에는 사리탑에서의 사리장엄 친견으로 더욱 불도들이 많이 찾아와 예불을 올리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아 교통이 편리하고 동해안의 명승지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어 관광객들까지 방문성황을 이루는 불교중심사찰이 되고 있다.

2) 신흥사의 변화

한국의 모든 사찰이 그러하였듯이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면서 사찰교구제에 따라 본말사(本末寺)가 확연해졌다. 신흥사도 예외일수가 없었으니 1912년 임자(壬子)에 신흥사는 건봉사(乾鳳寺)의 말사가 되었으며 1월에 흥흥운이 주지스님에 임명되었다. 이에 앞서 경술치욕해인 1910년에 응진전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뒤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응진전을 1919년 기미(己未)에 중건하였다. 1921년, 신유(辛酉)에 법전(法殿)과 요사 건물을 수선하였으며 12월에 이동연(李東衍)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1924년 갑자(甲子)에 설선당후각(說禪堂後閣) 32칸을 중건하였으며 10월에는 이춘성(李春城)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이해에 산불로 인하여 산림의 대부분이 불에 탔는데 화목(火木)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논[畚] 14두락을 사들였다.(買入)

이때 신흥사의 속암(屬庵)으로는 계조암·내원암·안양암·동암·백화암 등이 있어 법등을 밝히고 있었다. 소림암·반야암·동토굴·서토굴·안심암·세진암·선일암 등이 신흥사 초창 때인 향성사의 암자들이었는데 창건과 폐사의 관계내용은 알 수 없다.

극락암·지무암·향노암·상원암 등은 선정사 때의 암자들이었는데 창건과 폐사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동암과 백화암은 신흥사 때의 암자이나 폐사연대는 알 수 없다. 한편 신흥사는 오래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승 대덕들의 수행도량으로 이름났던 사찰이어서 수십기의 스님들 사리탑을 모신 부도밭[浮屠群]과 이에 따르는 석비가 많이 건립되어 있다. 특히 많은 명승과 화상(和尚)의 진영이 57축이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달마조사 태고보우 청허휴정 사명유정 등 역대 고승들의 영정도 모셔져 있었다.

8·15광복 후 신흥사는 북한지역이 되었으며 6·25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과거에 이 절의 주지스님이었던 성원(聲源)스님이 여러 건물을 모두 중건 또는 중수하였고 범종도 새로 주조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니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명부전·영산전·보제루·천왕문·일주문·불이문·적묵당·설선당 등을 볼 수 있다. 이들 당우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극락보전인데 이 법당은 조선 제16대 인조 22년(1644년)에 세운 건물로 주앙의 공포와 단청이 매우 아름답다. 유물로는 제17대 효종이 하사한 향노와 완당의 진필, 청동시루, 범종, 그리고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인 경관 277매와 사천왕상 등이 보존되어 있다. 청동시루는 제23대 순조의 하사품으로 벽파가 역대왕조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것이다.

경관은 효종 때에 판각된 것으로 한자와 한글, 범어(梵語)가 혼합되어 있어 아주 희귀하며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경관은 은중경(恩重經) 전질과 법화경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 범종은 보제루에 보존되어 있는데 오래된 것을 조선 제21대 영조 24년(1748년)에 원각스님이 개주하였으나 소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왕 34년(1758년)에 흥안스님이 다시 개주하였다고 한다. 6·25전쟁 때 종신에 총상을 입었으며 1963년에 수리하여 보존하고 있다. 사천왕상은 1981년도에 조성 불안한 것이다. 현재 일주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거대한 청동대불에 예배할 수 있다. 이 불상은 대좌와 좌상이 모두 청동으로 조성되어 전체높이 18.9m이고 좌상높이 14.5m이며 108톤의 청동이 소요되었다. 이 청동대불상은 1980년대에 해법주지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되어 이후 오현회주스님, 도후주지스님의 원력으로 1997년도에 준공하였는데 황수영, 김정기, 홍윤식, 정영호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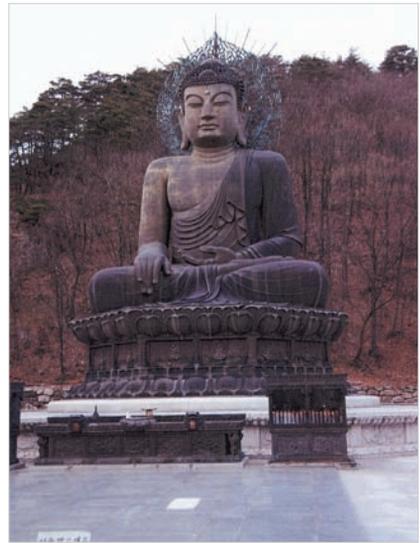
위원들의 설계심사화 조성자문으로 작가 김성호 불교미술관장에 의하여 조성 봉안된 것이다. 8각대좌는 상·중·하대로 양·복련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가부좌한 석가여래불로 남향하고 있다. 상호와 동체, 향마촉지인을 결한 수인, 연화문들의 세련된 형태, 보살과 나한 등의 수려한 조각은 가히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불상이라 하겠다. 전고 19m에 가까운 거대한 좌상은 과연 세계 제일이라는 평을 받기에 손색이 없다.

신흥사는 명산 설악산 어구에 자리잡아 설악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방문을 인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신라 이래 고려시대의 성찰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범등은 변함없이 크게 밝히고 있었으며 특히 제17대 효종 때에는 궁중에서 향로를 하사하는 등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었으니 신흥사의 위상을 가히 알 수 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보아 설악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이곳을 경유하며 계조암과 울산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객들과 불자들, 비선대 쪽으로 가는 등산객들도 모두 신흥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곳은 항상 불도들의 예불, 등산객들의 참관 사찰로 발길이 끊일 사이가 없다. 현재 신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의 본사로 여러 말사들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나 불교 본사의 도량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이름난 대사찰이라 하겠다.



설악산 신흥사전경



신흥사 청동대불

3) 진전사의 변화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선종의 근본대도량으로 신라 선종의 창시자인 도의국사가 주석하여 국사의 영탑이 이곳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보배로 보존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전기에까지 법등을 크게 밝히고 있었던 사적도 앞장에서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 폐사된 후 중창을 이루지 못하고 절터만이 남아 있고 도의국사의 영탑과 석탑, 기타 석조물들만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에서 이 절터를 진전사지라 하지 않고 동리의 명칭을 따라 『둔전사』라고도 했던 것이다. 이곳은 8·15광복 후 북한 지역이어서 일찍이 조사된바 없어 진전사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으며 1953년 서울수복 후 이 지역은 남한의 수복지구가 되어 답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도에는 개인적인 조사로 이곳을 답사하였으나 이후 1965년도부터는 공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게 되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65년 3월에 현지 답사에서 진전사 옛터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다. 크게 기울어져 곧 쓰러질 듯한 3층석탑의 상황과 석조부도가 완전히 도괴되어 각 부재가 흩어져 쌓여있음을 확인하고 절터와 석조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가지정의 문제를 당국과 논의, 강구하였으며 그해 12월에 재차의 조사 후 석탑은 국보 제122호, 석조부도는 보물 제439호로 지정되었다. 1968년 4~5월에 석탑은 완전히 해체하여 원위치에 복원하였고 부도는 흩어진 석재들을 모아 원위치에 건립하였는데 상륜부 정상의 보주석 하나가 없어 고심하던 차에 둔전리 이장 추종삼 씨가 계곡에서 발견, 추 씨의 도움으로 올려와 상륜부의 보주까지 완전한 부도가 복원되었다.

다시 강조하려니와 진전사는 곧 신라 선종의 초전 도량으로서 종조인 도의국사가 이곳에서 선법을 전승하였고 열반하였으며 국사의 묘탑이 바로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부도인 것이다. 이렇듯 선문의 근본 대도량이 진전사일진대 이러한 도량을 중창 복원하려면 우선 옛 절의 사적과 규모를 알아야 할 것이므로 매년 2~3회씩은 현지를 답사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찾아 전해오는 이야기, 유적유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으며 앞으로의 발굴조사를 계획하였다. 1974~1979년까지 6년간에 걸쳐 여름방학을 이

용하여 단국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단(단장 정영호교수)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앞으로 진전사가 중창 복원될 때 건물을 세우기 위한 세밀한 발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짧은 기간이지만 시굴에서 사찰의 규모와 건물지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발굴조사는 1974년도에 3층석탑이 서 있는 절터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당지와 부속요사채 등의 건물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75년도에 실시한 석조부도가 위치한 절터의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와 석탑지, 부속건물 자리들이 확인되었다. 이후 1976~1979년도의 기간에는 상·하에 위치한 절터의 각 건물자리를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고 나머지 부속건물들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사찰의 경내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기대하기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중창복원을 계획하였으나 주최와 주관, 진행 등 모든 문제가 순조롭지 못하였으며 앞으로의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역의 보호, 석조물들의 보존은 매년 현지를 답사하여 만전을 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사찰의 중창불사를 건의해왔다. 그러나 진전사 중창복원의 참뜻, 즉 진전사가 한국 선종의 초전도량이고 선문의 근본도량이며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이신 도의국사가 주석하였던 중찰임은 모두 모르고 있어 논의내용이 허상에 불과할 뿐이어서 모두 일축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집」에서 무산 조오현 회주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설악산 신흥사 입구의 「청동여래좌상조성불사」때부터 깊은 심인(心印)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라 진전사의 중창 복원문제를 쉽게 풀었으며 서로의 굳은 각오를 재확인하였는데 그때 정휴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과 이용부 종무관이 합석하여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진전사 도량(적광보전)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진전사의 중창 복원계획이 구체화되어 강원문화재연구소(지현병 박사 주관)에서 현지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건물의 배치와 건축물의 설

계도면을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곳 진전사지는 「양양진전사지」의 명칭으로 강원도 기념물 제52호로 1982년도에 지정하여 신흥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설계도면을 잘 살피고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부터 금당(적광보전)의 건립이 진행되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골기와 지붕 팔작집이 완성되어 가고 서쪽편으로 길게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골기와지붕 맞배집 요사채 건물이 완성 배치되었다.

이 불사에는 신흥사 오현 회주스님의 대원으로 신흥사주지 장공 마근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총찰 설악산진전사 중창복원불사 도감」의 직책을 맡아 큰 원력으로 2005년 5월에 완성을 보았다. 그리하여 2005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전사 금당인 「적광보전」 앞마당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을 비롯하여 각 교구 본사의 주지 스님들, 각 산문의 종중 대덕들, 각 기관의 수장, 각 지방에서 도량을 찾아온 많은 불자들의 축하속에서 진전사 복원불사 첫 단계의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때의 불사는 진전사 중창 복원불사를 시작하는 첫 종이 올렸을 뿐, 앞으로의 각종 불사가 산적해 있다. 우선 금당 앞의 석탑, 도의국사의 영정각(조사전), 선실(방), 종루, 일주문 등 여러 부속 건물의 건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르는 불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정원(宗正院) 건립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전사가 도의종조께서 주석·열반하여 「영탑」이 봉안되어 있는 종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3층석탑이 위치한 절터의 중창 복원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건물들의 건립도 구상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학문적 연구, 나아가 한국의 선종 및 불교사연구가 이곳을 중심으로 보다 깊고 넓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영혈사의 변화

영혈사는 1910년 경술치욕 후 1912년, 임자(壬子)에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으며 1월에 박원삼(朴圓三)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다. 1915년, 을묘(乙卯) 5월에 정태호(鄭台皓)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고 1921년 신유(辛酉) 8월에 전응조(全應祚)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으며 1925년, 을축(乙丑) 4월에는 최경훈(崔景熏)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한편 영혈사에 속했던 암자로 일출암, 청련암, 취원암, 학소암, 백학암 등이 있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 모두 폐사되었다. 스님들의 부도는 3기가 안치되어 있다. 6·25 한국전쟁 때에는 치열한 설악산 전투를 겪으면서도 다행히도 전화를 면하였다. 현재 건물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극락 보전과 산신각 요사채등이 있으며, 극락보전 내에는 주존불로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영혈사에는 예부터 「영천」이란 샘물이 있어 유명하였다.

그런데 이 절에서는 「영혈사 샘물에 관한 전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일리 설악산 동남방 관모봉 기슭에 영천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절은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영혈사 도량(극락보전)

지어준 절이다. 대사가 이곳에 와서 산세를 둘러보니 절터로서는 안성맞춤이나, 물이 없었다. 절 근처와 물이 날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물이 나지 아니하여 식수 때문에 폐사할 형편이었다. 대사는 간절하게 부처님께 샘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절 근처 한곳을 알려주며 “그곳을 파면 물 맛이 좋은 샘이 나올 것이니 거기를 파라 이 샘은 그대의 신심에 감동하여 솟은 샘이니 보통 샘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저도 이 샘은 항상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샘 줄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일러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꿈에서 깨어난 대사는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장소에 가서 팠더니 맑은 물이 솟아났다. 그러나 그 샘은 일정한 이상은 나오지도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많이 써도 마르지 아니하였다. 장마나 가뭄에서 샘물에 변동이 없어 「영천」이라 이름 짓게 되었고, 이 절을 「영천사」로 부르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절을 이룩한 뒤 낙산사에 가서 한 때 흥련암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 암자에 식수가 없어 낙산 본사의 샘물을 길러다 먹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사는 이곳을 찾아드는 신도와 승려의 불편을 덜기위하여 샘을 하나 찾아야 겠다고 며칠을 두고 물줄을 파보았으나 샘은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전에 영천사에서 샘 때문에 고생할 때 찾아왔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바로 그 홍련암에 샘터가 있다”고 알려주고는 “그러나 그 물줄은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샘물이 반으로 줄 것이다”고 알려주었다. 다음날 대사는 알려준 곳을 봤더니 맑은 샘이 나왔다. 반가와 샘물을 떠서 마셔보니 영천샘물과 물맛이 꼭 같았다. 이 샘이 지금도 바로 홍련암 옆에 있는 그 샘이라 전하고 있다. 대사는 처음 홍련암 샘을 보고 영천샘과 맛이 같기에 옛날 영천샘을 팔 때 꿈에 나타났던 “이 샘물이 다른데 갈리어 가면 이 절은 번창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낙산사는 큰 절이니 더 번창하지 아니하여도 좋고 이 홍련암도 식수가 불편하기는 하나 견디면 견딜만하다. 그렇지만 모처럼 세워놓은 영천사가 번창치 않아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하고 홍련암 샘물을 막아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 막아도 한번 터진 샘은 여전히 흘러나와 할 수 없이 다시 파놓았다. 다음날 대사는 영천의 물이 정말로 줄었는가를 알기 위하여 영천사에 가보았다. 영천사에 이르니 그곳 중이 울상이 되어 “어제 갑자기 영천샘물이 반으로 줄어들어 겨우 이 절 중들의 식수를 이어줄 물밖에 안되어 밖에서 나오는 이슬이나 빗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제 이 절이 크게 번창되기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사가 이 말을 듣고 영천에 가보니 샘물이 반으로 줄어있어 뉘우쳐지는바 없지 아니 하나 홍련암에 샘물을 판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홀로 탄식하였다. 그 뒤 영천사는 크게 번창하지 못한 채 명줄만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산속에 도량이 있으나 이곳까지는 참도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불자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탐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 구동성으로 「영천」이 약수로 유명하여 이 약수를 마시기 위하여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봉사본말사적」에 의하면 조선 제19대 숙종 14년 무진(戊辰, 1688년)에 화재를 당하였는데 왕 16년, 경오(庚午, 1690년)에 이 절의 취원 스님이 당우들을 중건하고 절의 명칭을 「영천사(靈泉寺)라 개명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서유영천고(西有靈泉故)라 하여 사찰 서쪽에 「영천」이 솟고 있기 때문에 이 영천을 명소로 생각하여 이 절의 대명사로 「영천사」라 개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26대 고종 24년 정해(丁亥, 1887년)에 영천사를 중수하고 「영혈사」라는 과거의 절 이름을 다시 쓰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사찰에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사찰 서쪽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천」이 있어 몸이 아픈 사람이 마시면 갱생하고 우울한 사람이 마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였다. 많은 탐방객이 와서 「영천약수」를 찾는데 이러한 유적을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5) 화암사의 변화

화암사의 위치는 현재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136-11이다. 그러나 본래는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로 양양군 관할이었는데 6·25 한국전쟁 후 수복지구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화암사는 창건부터 천수백 년 간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양양군 관내사찰로 법등을 밝게 비치고 있던 큰 도량이었다. 그러므로 양양군의 불교를 고찰함에는 신흥사와 더불어 화암사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화암사는 1910년 경술치육 후 1911년 신해(辛亥)에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으며 1912년 임자(壬子)에는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다. 그리고 사찰의 명칭을 고쳤으니 화엄사(華嚴寺)라 칭했던 것을 화암사(禾岩寺)라 개칭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화엄사로 불려왔으나 1912년에 이르러 건봉사의 말사가 되면서 화암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화암사」란 사명(寺名)은 오래전부터 속칭(俗稱)이 있었으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쓰여지지 않다가 이때에(1912년) 이르러 화암사(禾岩寺)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게 된 것이다. 1915년 을묘(乙卯) 9월에 화암사에 화재가 일어났으며 1917년 정사(丁巳)에 사찰을 중건하였다. 1920년 경신(庚申) 6월에 김영찬(金泳燦)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고 1922년 임술(壬戌) 12월에는 김벽천(金璧天)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1924년, 갑자(甲子) 7월에 박응허(朴應虛)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으며, 1927년 정묘(丁卯) 7월에는 박수근(朴修根)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이때에 화암사에 소속된 암자는 미타암, 안양암, 월영암 등으로 오래인 역사속에서 법등을 밝히고 있었다. 10여기에 달하는 스님들의 부도와 부도탑비가 부도밭을 이루었으며 10여축의 화상(和尚)들 진영(眞影)중에는 진표당, 청허당, 사명당 등 고승들의 진영도 안치되어 있었다.

8·15광복 후 등축은 밝히고 있었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고 남한영역으로 수복된 후 불전과 건물들을 중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재와 중건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향간에서는 화암사를 「수암사(穗岩寺)」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종 원년(1864년)에 수바위 아래에 옮겨 중건한 후 바위의 이름을 따서 수암사로 절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1912년에 이르러 다시 지금의 「화암사」로 고쳤는데 그때의 수암사 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화암사 도량



화암사 부도밭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1991년 이곳 신평들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주변의 정비 계획에 따라 조선시대에 건조된 석조부도와 석비 계단석들을 제외한 일주문과 대웅전 요사채 등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였다.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천여 명의 불교국가 청소년들이 화암사 법당에서 수계식을 가졌으며 그 후 대회장은 청소년 수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암사는 금강산 최남단의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건봉사에 소속되었으나 현재는 신흥사의 말사이다. 석조물 이외의 목조건축물은 근년에 세워진 것이어서 화암사의 면모는 현대적인 건축물의 사찰이나 석조물들이 연륜을 보이고 있어 본래는 고찰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찰 주변의 곳곳에 금강산 제1봉인 신성봉에서 발원한 신선계곡의 맑은 물이 담소와 폭포를 이루고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절 앞에서 50m 정도 올라가면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화암폭포가 있으며 수바위와 울산바위 등의 경관이 뛰어나다. 주변에 도덕폭포, 창암계곡, 척산온천, 신흥사, 설악산, 알프스리조트 등의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다.

화암사의 창건이 신라 진표율사에 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제22대 정조가 하사한 관음보살상 6첩서병과 진표고승의 진영을 비롯한 16점에 달하는 대덕의 진영들이 있었다 함은 이 절의 위상과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창건 당시와 귀중한 유물들은 모두 전화로 없어졌으나 역사를 그리며 주변 절경을 관람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 개축하였다는 미타암을 찾는 불신도들이 많으며 토성면 주변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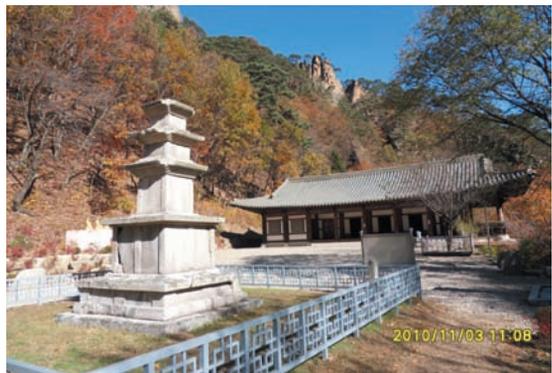
중심되는 화암사로 알려져 있다. 대웅전, 설법전, 산신각, 종무소, 요사채 등 많은 당우가 질서있게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설법전은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14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1990년 9월 7일 지정) 도량이 신비성과 주변 경관 등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6) 내원암과 계조암의 변화

내원암과 계조암은 삼국기 신라의 자장스님이 창건하여 유명하거니와 이후 여러 왕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등축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 심산유곡에 자리잡은 암자이기 때문에 독실한 불자가 아니면 심방이 어려운 곳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등을 밝히고 있음은 불자가 신도들의 신심에 의함이라 생각된다. 옛 시대에는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자연을 체험하면서 심신을 닦았으므로 산곡의 암자에서는 수도승들의 족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두 암자도 이러한 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서는 자연을 찾는 산행자들이 많아 자연히 암자를 방문케 된다. 계조암은 특히 「흔들바위」가 바로 옆에 있어 기묘한 바위의 조화로 찾는 사람이 끊일 사이가 없으며 불자, 불도, 등산객들 또한 즐겨찾는 곳이다.

7) 오색석사의 변화

서면 오색리에서 남설악 골짜기로 올라가면 중간쯤에 오색석사의 옛터가 있다. 신라시대 무염선사의 수도처로 유명하나 폐사된 지 오래이므로 신라시대 석탑과 고려시대 석재들이 산재하였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오색석사 옛터임이 밝혀졌고 3층석탑은 수리하여 보물 제497호로 지정 보



오색석사 옛도량

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 황운영 스님이 찾아와 사찰 중창 복원을 계획하여 대원의 원력으로 고심 끝에 법당을 건축하는 등 불사에 진력하다가 1999년에 열반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곳을 성국사(城國寺)라고 했었는데 필자가 이 절을 찾아 고증한 뒤 「오색석사」의 사명(寺名)을 쓰도록 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인법당 한 채와 신라시대의 석탑 1기, 금당지와 원좌초석, 고려시대의 석조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한편 절마당 한구석에 석비 1좌가 건립되어 있는데 표면에 「오색석사복원기념(五色石寺復元紀念)」, 「학루당황운영공덕비(鶴樓堂黃雲永功德碑)」라 두줄로 제(題)하고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9행 음각되었다.

鶴樓堂黃雲永住持스님은一九四四年江原道에서出生하시어 一九六五年 出家惠岩大禪師의法弟子로서佛法禪學에邁進中一九七二年이곳五色石寺에任하시어新羅武烈王立禪門九山中大本刹이며無染國師의出家處인本寺刹을復元해야겠다는뜻을세워一九七四年부터작수몸소삼별고초를겪어가며돌을쌓아길을닦고터를닦아요사체를建立하셨습니다.大雄殿은뜻만을세우신체一九九九年享年五十六歲를一期로涅槃하시니그의慈悲로운行跡과功德을이碑에적어기리는바입니다. 一九九九年十一月 謹攄

여기의 주인공 학루당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던 스님이다. 처음 「성국사」복원이라는 말을 했을 때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지)의 개창조사인 무염국사가 바로 이곳 오색석사에서 선법을 닦고 법문을 정했던 역사적인 사찰임을 알게 하였다. 그것은 신라시대의 석비 비문과 현지의 석탑을 비롯한 유적 유물을 고증자료로 제시하였었다. 스님은 곧 이러한 사실을 터득하고 중창 불사를 서둘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불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8) 선림원의 변화

서면 황이리 미천곡에 선림원 옛터가 남아있어 강원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보존되어 있다. 이 사찰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 절터에서 1948년에 정원(貞元) 20년명(신라 애장왕 5년, 804년) 신라 범종이 출토됨으로서 서기800년대 초에 창건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신라와 고려시대에 크게 범등을 밝혔으나 언제 폐사되었는지 고려후기와 조선시대의 사적은 전혀 알 수가 없다. 현재 3층석탑의 북쪽에 법당자리가 있어 주초석들이 남아 있다. 단탑가람으로 남향사찰이었는데 넓은 절터에는 조사당과 승방, 요사 건물 등으로 추측되는 자리가 있고 주초석이 정연하게 보이는 건물지도 있다. 조사당 자리로 추측되는 곳은 금당의 서북쪽 대지인데 여기에는 석등과 홍각국사비가 남아있다. 현재 선림원지에는 3층석탑(보물 제444호), 석등(보물 제445호), 부도(보물 제447호), 홍각국사탑비(보물 제446호) 등 9세기 후반의 신라석조물들이 모두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신라시대 성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사찰은 없고 옛 절터뿐이나 이곳에는 당시의 건물지와 4점의 보물 문화재가 원 위치에 보존되어 있어 이 방면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 탐방객들도 관광 여정에 의하여 이곳까지 와서 견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9) 서림사의 변화

서면 서림리에 서림사 옛터가 있다. 이곳은 현재 경작지로 변했으나 고려와 조선시대의 기왓장, 자기편들이 산란하고 주초석들이 보이고 있으며 석탑과 석불이 안치되어 있어 옛 절터임을 알게 한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석탑과 석불은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교정에 옮겨놓아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9호로, 서림사지 3층석탑은 문화재자료 제120호로 지정 보존되어 있다. 석불좌상은 머리부분이 파손되고 동체와 무릎부분에도 손상이 있으나 대좌는 상·중·하대가 잘 남아있는 편이어서 각부 조각들을 잘 살필 수 있다. 3층석탑도 단층기단과 3층의 탑신부가 잘 남아있다. 이곳 절터

는 없어졌으나 여기의 석탑과 석불을 가까운 초등학교 마당에 옮겨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 방면을 연구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 명주사의 변화

원통암을 중건확장하여 사찰의 면모가 새로워지고 있던 바 1910년 경술치욕 이후 1912년, 임자(壬子)에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으며 1월에 홍포룡(洪蒲龍)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다. 1913년, 계축(癸丑) 3월에 김월인(金月印)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1925년, 을묘(乙卯)에 침고(砧庫:절에서 모든 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건립하였다. 1917



명주사 도량



명주사의 부도밭(浮屠群)

년, 정사(丁巳) 8월에 김백월(金白月)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다음해 1918년, 무오(戊午)에 사찰을 중수하였다. 1920년, 경신(庚申) 8월에 노제봉(盧霽峯)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고 1923년, 계해(癸亥) 7월에 윤설호(尹雪昊)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1925년, 을축(乙丑)년에는 사찰을 수리하였다. 1926년, 병인(丙寅) 7월에 김묵옹(金默翁)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요사건물의 지붕을 번와불사하였다. 명주사의 소속암자로는 청련암, 운문암, 향노암이 있었으나 모두 폐사되었다. 역대 스님들의 부도와 석비가 10여기 보존되어 있으며 진영도 10축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명주사는 폐허가 되어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석조건조물로 이루어진 부도밭의 석조부도와 석비들만이 화재에서 살아나고 그 외의 건물과 유물들은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1963년부터 중창 불사가 일어나 법당과 삼성각, 추성각(秋聲閣), 종각, 요사채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사찰 규모는 큰편은 아니며 당우도 적은 편이지만 명주사는 예로부터 이름난 선원(禪院)으로 많은 학승들을 배출한 곳이다. 특이할만한 문화재는 없으나 다만 동종이 양양명주사동종이라는 명칭으로 강원도유형문화재 제 6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부도밭의 석조부도들과 석비가 이 사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현재의 절에서 500m정도 되는 아래쪽에 중봉당선사탑(中峯堂禪師塔)이라 칭하는 2.5m 높이의 석조부도가 서 있는데 그 앞에 경작지가 옛 절터라고 전한다. 명주사 뒷산인 만월산에는 문필봉(文筆峯)이라 일컫는 유서깊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절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이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기도하면 도를 깨친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어 산행하는 이들도 이곳을 찾아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주사 도량은 물론 이곳 문필봉도 수도의 도량 삼아 많은 학승들이 찾아 올라간다는 것이다. 명주사가 위치한 현북면 어성전리에는 옛 절로서는 명주사가 유일하며 오랜 역사와 참선도량으로 이름난 곳이어서 오늘날까지도 불자들이 꾸준히 모여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근·현대에 있어서 양양지역의 사찰들이 어떠한 면모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배불정책하에서도 법등을 밝히고 어떤 사찰들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등축을 살리며 전란을 이겼고 오늘에 이르러는 역사속에서 위상과 전통을 굳게 지켜 큰 도량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양지역의 불교는 오랜 전통 위에 도량들이 밝은 법등을 비치고 있어 사회교화의 근원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근·현대의 창건사찰

일제강점기와 8·15 광복 후에 새로운 사찰들이 창건되었다고 하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모두 폐사되었다. 1953년도 수복 후 점차 안정을 기하면서 사암(寺庵)들이 창건되었으니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1) 강현면 둔전리지역

둔전리에서는 신라 선종의 근본대도량인 진전사의 증창복원불사가 진척되고 있다. 이곳은 명산 설악산주봉인 대청봉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석간수들이 합수하여 노고천(老姑川)을 이루고 저수지 설악호(雪岳湖) 북쪽 언덕위에 진전사가 자리잡고 있어 골짜기와 마을이 모두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근년에 이르러 둔전리 마을에 「보명선원」, 「법상사」, 「청련암」등 새로운 암자가 창건되어 등축을 밝히고 있다.

2) 지장사(양양읍 화일리)

화일리의 영혈사 가는 길로 접어들어 강현면 둔전리로 넘어가는 낮은 고갯길로 향하다가 왼쪽 편에 자리잡은 지장사를 방문할 수 있다. 이 절은 약 30년 전에 창건되어 마당 한가운데 5층석탑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대웅전과 무량수전 법당을 배치하고 서쪽 편에 염불전을 건립해 놓았다. 마



지장사 도량(대웅전)

당에 큼직한 박석을 깔아 고대 사찰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새로운 사찰일지나 불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교통도 좋은 편이며 금당 이외에 2동의 불전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예불을 올릴 수 있는 사찰이라 하겠다. 당우의 건물은 골기와 지붕에 팔작집과 맞배집을 건립하여 옛 사찰 건축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3) 망월사(서면 오색리)

오색약수터 바로 위에 위치한 사찰로 창건은 오래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다. 현재 망월사의 연혁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불기 2300년대 고찰을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나 문헌은 유실되고 아름답고 고송(古松)을 보아 수백 년이 된 것 같다. 설악산 정기를 받아 병풍처럼 아담하게 둘러싸인 점봉산 기슭 약초뿌리 우려낸 용궁정(龍宮井) 감로수로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약사여래 명을 받아 이 절을 세웠다고 한다. 산속에서 솟아나는 감로수는 양이요 암반석에서 솟아나는 약수는 음이다. 이 물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영험한 가피로 병을 고친 이후 전국 각처에서 관광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망월사다. 지금은 낡아 폐쇄되었지만 건너편 하얀 건물은 도서관 자리다. 오늘날까지 많은 대덕스님들과 술한 묵객들이 머물다 간 곳이다. 고색창연 한 단청 그대로 우리의 옛 문화를 살려 지극히 소박하고 편안한 고찰이다. 절경이 빼어난 국립공원 남설악에 자리한 10평 남짓한 법당을 옛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참으로 존귀하다 못해 숙연하기만하다. 불기 2545년 윤4월에 김광태 보살이 백일기도를 마친 후 건강을 회복하여 약사여래를 모시게 되었다.(망월사)



망월사 도량(대웅전)

앞에서 불기2545년은 서기 2001년으로 9년 전의 일이다. 한편 요사체를 옮겨 세웠는데 여기의 상량문으로 「庚申年庚申月庚申日庚申時姜大公之造作者」라 묵기하였다. 여기의 경신년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80년, 1920년 중의 한해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망월사 도량에는 대웅전이 정면 3칸, 측면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 팔작집으로 건축되어 금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주지인 현재 비구니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관음종으로서 서울의 보문사가 본찰이라고 한다. 이곳 망월사 바로 밑에는 「오색약수」라 하여 속칭 오색너럭바위라 칭하는 암반에서 약수가 솟아오르는데 탄산수의 물맛으로 만병통치의 약수라 전해지고 있다. 특히 수질이 산성과 철분이 많아 위장병, 빈혈, 신경통, 신경쇠약, 기생충구제에 특효가 있다하여 망월사에서 보호 보존하고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1500년경 성국사의 승려가 반석에서 용출하는 약수의 수맥을 발견한 이후

오늘의 약수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오색약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성시를 이루어 바로 윗편에 자리한 망월사에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4) 불탑사(서면 논화리)

서면 논화리 산골짜기 조용한 대지 위에 불탑사가 위치하였는데 동해사의 연수원으로 교육기관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도는 없다고 한다. 불탑사 용주선원의 권용주 선원장 증언에 의하면 15년 전에 창건되었고 근본불교 조계종으로 승가대학도 설치하고 있으며 삼신불(三身佛)을 봉안하고 있다. 불교회관과 설법전 앞마당에 5층석탑을 안치하고 뒤편 높은 대지에 대웅전을 건축하였다. 연수원의 기능을 보이는 회관에는 2층 건물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불탑사 도량(당우불전)

5) 동해사(손양면 학포리)

현재 금당으로 대웅전이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팔작집이다. 그 옆에는 삼성각이 있고 다시 그 옆으로 요사체가 길게 건축되어 있다. 경내에 「甘露法雨聖地東海寺」라 제(題)하고 대한불교삼론종지정 성지 제1호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동해사 도량(대웅전)

본사찰 동해사는 임신년(1993년) 10월 12일 대웅전과 삼성각 사이 약수터에 모셔 놓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 사찰에서 12km 떨어진 양양군 서면 논화리 기도원터를 마련하여 옮기던 중 맑은 하늘에서 감로비가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불자들이 수없이 몰려와 장사진을 이루며 참배는 물론 환희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36일간 계속되면서 동년 10월 29일에는 오색무지개가 나타나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무지개는 불탑사 부처님에 연결되고 그 곳에서 다시 쌍무지개가 솟아 설악산 달마봉에 이어졌다.

또한 11월 8일 새벽 4시에는 하늘에서 화우(火雨)가 쏟아져 철야로 기도하던 20여 명의 참배객이 환희에 젖었다. 이러한 소식이 세계 각국에 전해지게 되자 스리랑카, 네팔, 태국에서 앞다투어 부처님의 참사리를 전수하게 되니 그 수가 200여과를 넘어섰다. 현재 성지에는 49과의 참사리를 모셔 적멸보탑을 조성하고 기도원 터에는 108과의 참사리를 모셔 적멸보궁을 세우며 이곳 성지에서 모셔간 부처님은 석굴전에 봉안하였으며 석굴전에는 부처님이 현명하여 점지한 약수가 많은 불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감로성지 동해사주지 서의륜합장)

동해사의 창건의 역사는 깊지 않으나 대외적인 홍보와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불신도가 모여들고 있다. 연수원도 있고 각종 불교적인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평지거림으로 교통도 편리하여 탐방객들이 끊일 사이 없다.

6) 용화사(현북면 법수치리)

법수치리의 산골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용화사 도랑에 다다른다. 태고종 사찰로 20년 전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금당으로 대웅전이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팔작집이다. 법당 앞에는 석탑이 건립되었고 대웅전 서쪽의 종각



용화사 도랑(대웅전)

사이에는 높이 7m에 달하는 석조아미타여래입상이 배치되었는데 앞에 서면 거대한 석불에 압도된다. 종각과 범종은 대웅전 건축 당시 함께 건립하였다고 한다.

대웅전 동쪽의 작은 골짜기로 들어서면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맞배집이다. 요사는 그 밑의 사찰어구에 배치하였다. 1년 전에 부임한 주지 법선 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산골에 위치하고 아직 역사가 얇은 편이어서 불도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위치로 보았을 때 조용한 심산유곡에 속하며 도로도 포장된 차도가 개설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하다. 도심에 가까운 평지가람도 불공에 좋은 자리지만 이렇듯 산곡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불법을 전수하는 것도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7) 반야선원(현남면 입암리)

입암리의 넓은 들 한가운데 반야선원을 새로이 건축하고 선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불사가 한창 중이다. 선원의 불전 뒤에는 참선하는 공간으로 여기의 큰직한 굴뚝은 벽돌로 쌓아올려 이색적이어서 주목된다. 창건이 깊지 않아 아직은 불도들의 심방이 많지 않으나 평지가람이고 차도도 잘 개설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야선원 도량(참선실)

8) 현불사(현남면 입암리)

현재 창건불사가 한창이다. 법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팔작집이다. 아직 목부에 단청을 칠하지 않았으며 오른쪽 앞쪽에는 큼직한 요사를 배치하였는데 많은 공간을 보이고 있다. 절 마당의 어구에 석비 하나가 서 있는데 「매월암창건주

김계원송덕비(梅月庵創建主金桂圓頌德碑)」가 있어 김계원 독지가에 의하여 매월암으로 시창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평지가람으로 차도도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하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람이라 하겠다.



현불사 도량(건설이 한창임)

9) 휴휴암(현남면 광진리)

하조대 가까이 해변에 창건된 사찰로 해수면 바위에서 존상(尊像)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불신도들이 모여들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큰길에서 경내까지 차도가 개설되고 주차장도 정비되어 많은 신도와 탐방객이 운집하는 곳인데 법당을 비롯한 여러 당우와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다. 현재도 성황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불자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휴휴암 도량(여러당우)

10) 죽도암(현남면 인구리)

이 암자는 죽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죽도암이라 칭하고 있다. 현재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면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골기와지붕 팔작집이다. 관음전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법당 내에는 관음보살을 주존으로 봉안



죽도암 도량(관음전)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근년에 지은 요사가 있으며 스님이 기거하는데 불자들이 모이고 있으나 한편 탐방객들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불심에 감동되는 관광객도 찾고 있다.

9. 맺는말

이상과 같이 양양지역의 불교에 대하여 한반도에 불교가 수용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불교는 반드시 도량을 중심하여 불법을 신봉하고 포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양양지역에서 각 시대별로 법등을 밝혔던 사찰을 중심으로 교세와 불신도들의 운집 상황을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문헌에 보이는 옛 사찰들을 찾아보았는데 특히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각종 고문헌에 보이는 사찰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리하여 삼국기부터 양양지역에서 불교가 포교되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는 자장율사가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를 창건하였고 신라 문무왕 2년(662년)에는 소림암을 창건하여 불교를 포교하였다.

문무왕 16년(676년)에는 의상조사가 낙산사를 창건하였으니 양양지역의 불교는 7세기 중반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하게 전통을 세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신문왕 9년(689년)에 원효조사가 영혈사를 창건하였고 2년 후에는 청련암을 창건하였다.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조사가 향성사를 증건하여 선정사라 개칭하였고 혜공왕 5년(769년)에는 진표율사가 화엄사를 창건하였으며 현안왕 2년(858년)에는 범일국사가 낙산사에 불전을 건립하였다. 특히 신라하대에 이르러 한반도에 선종이 수용되면서 진전사는 선종의 근본대도량으로 선종의 종조인 도의국사가 주석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이곳에서 열반하여 한국 최초의 석조부도가 현재 진전사지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라하대의 양양지역은 명실공히 신라 선(禪)불교의 중심지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신흥사, 낙산사, 영혈사, 화엄사, 진전사가 모두 영산(靈山) 설악산의 정기를 받아 불법 포교에 난숙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이들 사찰은 더욱 번성하였고 명주사의 창건은 힘을 더해 주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배불승유가 국시였으나 양양지역의 사찰은 낙산사에 태조가 춘추로 사신을 보내 3일제를 설하고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건케 하며 예종과 성종은 교지를 내려 사찰을 중창케 하고 면세하는 등 크게 보호하였다. 신흥사에는 효종이 궁중에서 향로를 보내는 등 크게 배려하였고 회암사에서는 정조가 미타암의 화응전을 원당으로 정하였으며 관음상과 병풍 등을 보내어 보호하였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모든 사찰은 면모를 갖추어 훌륭한 도량에 많은 불자가 모이고 있는데 새로운 사찰들이 많이 창건되어 양양지역은 어느 곳보다 불교가 성행한 고장이라 하겠다. 예컨대 둔전리에 보명선원, 법상사, 청련암 등이 등축을 밝히고 있으며 화일리의 지장사, 오색리의 망월사, 논화리의 불탑사, 학포리의 동해사, 법수치리의 용화사, 입암리의 반야서원과 현불사, 광진리의 휴휴암, 인구리의 죽도암 등 10여 사찰이 법등을 밝히고 있어 불도들이 운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국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양지역의 불교는 1350여 년간 면면하며 양양지역의 문화와 불교미술의 발달, 사회교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 : 정영호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불교사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국여지지도』, 『현산지』
 『관동지』, 『관동읍지』, 『강원도지』
 『조당집』, 『조선사찰사료(상·하)』, 『한국사찰전서(상·하)』
 『범우고』, 『가람고』
 『건봉사본말사적』

※현지답사를 병행함.



Ⅲ. 유교

1. 들어가는 말

양양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처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환경과 종교적 전통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외래문화가 수용되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가 양양지역에 뿌리 내리고 활성화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양양군은 동쪽에는 동해, 서쪽에는 험준한 태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급경사를 이루고 해안선까지의 길이도 짧아, 양양 중심부를 길게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이 있기는 하나 농경에 적당한 지역이 많지 않다.

② 험준한 지리적 요건 못지않게 양양지역이 처했던 국제적 입지도 험난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가 국력을 신장하는 369년경 고국원왕(故國原王)부터 409년경 광개토왕(廣開土王), 454년경 장수왕(長壽王) 때에는 신라의 실직주성(悉直州城 : 삼척)이 고구려의 판도 안에 들어가고, 양양도 고구려 영향권 안으로 편입된 듯하다. 양양군 지역을 고구려에서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신라 문무왕(文武王) 8년에 고구려가 나당(羅唐)연합군에게 망하자 고구려의 유민인 부여족과 말갈족은 연합하여 신라 성덕왕(聖德王) 46년에 발해국(渤海國)을 세웠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익현현을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쳐 수성군령현(守城軍領縣)으로 하고 혈산현(穴山縣)을 동산현(洞山縣)으로 고쳐 명주령현(溟州領縣)으로 하였다. 통일신라

의 행정구역은 9주5소경(九州五小京)으로 강원도는 삭주(朔州)와 명주(溟州)로 나누어져 있었다. 삭주는 대체로 영서지방, 명주는 영동지방이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강원도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는데, 삭주와 명주가 바로 국경지역이었기 때문이다.

918년 왕건(王建)에 의해 송도(松都)에 건국한 고려(高麗)시대에도 양양지역은 외침이 잦은 변방으로,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사가 파견되어 지방 행정과 군사를 겸해서 다스렸다.

현종 2년(1011년) 거란병 침입, 현종 20년(1029년) 여진족 침입, 고종 8년(1220년)의 거란병 침입, 고종 40년(1253년)에는 몽골군이 침입하여 오봉산성을 함락시키고 낙산사를 약탈했다. 몽골의 고려 침공은 5차에 걸쳐 자행되는데, 고려왕들이 원(元)나라 부마가 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주성(襄州城)은 고종 8년 거란족 침입시 방어한 공이 있다 하여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으나, 몽골군 제4차 침공시 항복한 벌로서 고종 44년 덕녕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가, 원종(元宗) 원년에야 지양주사(知襄州使)로 회복되었다.

충숙왕 17년(1330년) 동계(東界) 강릉도(江陵道) 존무사(存撫使) 안축(安軸 : 1287~1348년)이 통천수(通川守) 정랑(正郎) 진공(陳公)과 당시 양양수령 정랑(正郎) 박공을 독려하여 양양읍 문성왕동에 향교(鄕校)를 세우게 된다. 안축은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에서 산자수명하고 영령의 정기가 깃든 양양에서 100여 년 동안이나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 아니한 까닭은 예로부터 오랑캐의 변경과 이웃하여 변란이 자주 일어났고 학교지도(學校之道)가 행하여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려 원종 원년(1260년) 이전에 양양에는 동해신묘(東海神廟)가 있어 중사(中祀)로서 국토수호와 국가안녕을 위한 제의를 행하여 왔다.(삼국유사)

③ 그동안 양양지역은 중국의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기록에 의해, 고예국(古濊國)의 후예들이 동진하여 세운 나라로 한나라 소제(昭帝) 시원(始元)(B.C.86~81년)때에 예맥국은 모두 한(漢)의 낙랑군에 소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양양지역의 역사는 고고학의 눈부신 발달과 그 발굴의 성과로 양양지역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아주 폭넓은 층의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구석기·신석기인들과 이른바 동예(東濊)라 불리는 시대의 양양인들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 지역에 정착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1984년 서울대 고고학과 임효재 교수팀에 의하여 손양면 도화리에서 전기 구석기 유물인 주먹토기와 자르개 등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된 구석기 유물에 속하며 더 나아가 구석기 표준유적이 될 것이라 발굴팀은 전망했다.

1981년에서 1988년까지 서울대 조사팀에 의하여 발굴된 오산리 신석기 유적은 BC 6,000년경으로, 연해주보다 1,2천년 앞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물 중에 백두산에서만 산출되는 흑요석으로 만든 도구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신석기 시대 양양인들이 어디를 통해 양양지역으로 온 것인지 그 루트를 알아내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서면 범부리(凡阜里)의 고인돌이 있다. 초기 철기시대 유물로 손양면 가평리(柯坪里)의 주거지와 무문토기·김해식 토기들이 발굴되었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수륙(水陸) 양로(兩路)가 있다. 그 하나는 육로 코스로 옛 은(殷)나라 기자(箕子)가 일족을 이끌고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그 길과 한나라 초기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제(山東)나라 연(河北)나라의 망민(亡民)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패수(溟水)로 옮겨와 위만조선을 세웠다는 그 길이다. 위만조선은 한무제의 원정군에 의해 멸망하는 B.C.108년 위우거(衛右渠) 왕 때까지 존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산동에서 발해를 건너 황해 연안에 도달하는 수로(水路)이다. 초기 양양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는지는 자세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무어라 단정할 수 없지만, 『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東夷列傳) 예조(濊條)와 『위서(魏書)』부여전(扶余傳)의 기록에 의하면, 이른바 동예족의 이동경로를 예측해 볼 수는 있다. 『후한서』동이전 예조에 의하면, 북쪽은 고구려 옥저와 접하고 남쪽은 진한(辰韓)과 접하였다. 동쪽은 큰 바다로 끝나고 서쪽은 낙랑에 접하고 있다.

예와 옥저와 고구려는 본래 조선 땅이다. 옛날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는 그들에게 예의와 농사짓는 법과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범해서는 안되는 8조의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

그고 자지 않았다.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신의가 있으며 음식은 그릇에 담아 먹었다. 그 뒤 40여 대를 지나서 조선후(朝鮮侯) 준(準) 때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한(漢)나라 초년에 크게 난리가 나자 연·제·조나라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해 간 자가 수만호나 되었다.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준을 쳐서 물리치고 스스로 조선왕이 되어 나라를 이어가서 그의 손자 우거에까지 이르렀다.

한무제 원년에 예의 왕 남려(南閩) 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명을 데리고 요동으로 이동하자, 무제는 그 땅을 창해군(蒼海郡)으로 명했다가 몇 해 뒤에 없앴다. 그 뒤 한무제 3년에 조선을 멸하고, 낙랑(樂浪)·임둔(臨屯)·현도(玄菟)·진번(眞番)의 4군을 나누어 두었다.

소제(昭帝) 시원(始元) 5년에 이르러 임둔·진번을 없애고 낙랑과 현도에 소속시켰더니 뒤에 현도는 다시 고구려로 옮겨 갔다. 그리고 단단대령(單單大嶺)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옥저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예속시켰다.

그러나 그 뒤에 너무 땅이 넓은 관계로 다시 동쪽 땅을 나누어 일곱현(七縣)을 만들어서 낙랑에 동부도위(東部都尉)를 두었다. 여기에 소속된 이후로 그 지방은 풍속이 차츰 박해지고 법률도 60여 조목이나 되었다.

건무 6년에 도위를 없애고 드디어 동쪽 땅은 포기한 채 그 우두머리를 봉하여 현후(縣侯)를 삼았다. 그리고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이면 조공(朝貢)을 받았다. 이곳에는 대군장(大君長)이 없고 벼슬로는 후(侯)와 읍군(邑君)이 있었다.

늙은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 사람들은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데, 언어와 법률과 풍속이 대개 고구려와 비슷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몹시 어리석고 욕심이 적다. 남녀들은 모두 곡령(曲領)을 입었다.

그곳 풍속은 산천을 소중히 여겨 산천마다 각각 부계(部界)가 있어 이웃 지방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고 모든 일에 끼리는 것이 많았다. 사람이 혹 중한 병으로 앓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그 집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살았다. 삼베[麻]를 심을 줄 알고, 누에를 칠 줄 알아서 능히 면포를 짜서 옷으로 입었다.

새벽이면 일어나 별(星宿)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일이 풍년될고 흉년될 것을 미리 점쳤다. 또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가 되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 이것을 무천(舞天)이라고 했다. 또 사당을 지어 범[虎]을 제사 지내고 신으로 삼았다. 마을에서 서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소나 말을 잡아서 벌주는데 이것을 청화(靑禍)라고 한다.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도둑질 하는 자가 적고 보전(步戰)을 잘해서 창 하나의 길이가 세 길이나 되는데 이것을 흑 몇 사람이 함께 갖기도 했다.

단궁(檀弓)이 그 땅에서 났고, 그곳에는 또 얼룩무늬 표범이 많으며 과하마(果下馬)도 있다. 바다에서는 반어(班魚)가 나는데 이것을 잡아오면 반드시 사신을 통하여 바쳤다고 기술되어 있다.

『위서』부여전(扶余傳)에 보면 부여는 남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동으로는 읍루(挾婁), 서로는 선비(鮮卑), 북으로는 익수(溟水 : 흑룡강)와 접하고 있다. 사방 2천리, 호수는 8만, 사람들은 조대(粗大)하고 강용근후(強勇謹厚)하다. 관명(官名)에는 마가(馬加)우가(牛加) 등 육축의 이름을 붙였다. 각지의 토호가 노비를 지배하고 있다. 은력(殷曆)의 정월(正月)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연일 음식을 먹고 마신다. 옷은 백색을 높인다. ... 전에 한나라 현도군(玄菟郡)에 속해 있었으나, 위(魏)나라 무구검(毋丘儉)이 고구려를 토벌할 때 군량을 제공했다. 부여 왕실에 전해오는 보물 중에 선대가 한나라로부터 받은 예왕지인(滅王之印)이 있다. 부여족의 유노(遺老)는 고대의 망명자가 이곳에 와서 성책을 쌓았다 한다. 생각건대 예·맥의 땅에 어디에선가 온 망명자가 침입해서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닐는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예족의 선조들이 양양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여족이 활약했던 강토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양양지역은 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아주 넓은 층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양양지역의 역사는 장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동예(東濊)라 불리워지는 시대의 양양인들이 언제 이 지역으로 정착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은, 삼국시대 이후 고려·조선에 이르는 확실한 역사적 문헌기록을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예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와 종교와 문화 의식을 이룬다면 무천제(舞天祭)가 갖는 의미, 즉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이때에는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든지, 또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다는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실은 삼국시대에 산 양양인들의 의식의 뿌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 후 외래사상

인 유(儒)·불(佛)·도(道)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양양지역의 특성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제(舞天祭)의 의식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선인(仙人) 샤만[巫]들이었다. 이 선도(仙道)는 단군조선 이래로 배달민족·백의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이족(夷族)의 종교였다. 이족의 공통된 토템은 새[鳥]이다. 그러나 이동해가는 지역의 토템과도 긴밀히 연계하고 있어 앞으로 학계의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족은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 제사지내고 있다. 대체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은 여신(女神)문화인데, 양양은 성황신으로 대표되는 산신문화와 여신문화가 접점을 이루는 특이한 곳으로서, 앞으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화랑도의 역할 역시 이 지역의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양양문화의 특성을 고찰할 때에 빼 놓을 수는 없는 것에 불교문화가 있다. 양양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관계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문무왕 11년(671년)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된 낙산사(洛山寺), 통일신라 때 구산선문(九山禪門)을 대표하는 진전사(陳田寺), 804년경에 창건된 선림원(禪林院) 등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를 이어온 불교문화가 양양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④ 유학은 사계절이 분명한 농경사회를 지탱해주는 사상이다. 그러나 양양은 예로부터 농경지가 적고 산악문화와 어촌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근간으로 개인과 사회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효충(孝忠)은 유교윤리의 근본이다.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출발하여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확대시켜 간다. 정치구조도 문무양반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문반이 무반보다 영향력이 큰 사회체제이다. 그러나 양양은 국경지대로 고구려와 신라의 국토 확장 싸움 때에도 그러했지만, 고려시대에도 변경지대로 언제나 무반의 영향권이 큰 곳이었다.

또한 양양은 문화면에 있어서도 동예 이래로 무천제로 대표되는 무교(巫敎)와 산신과 해신이 어울리는 무속과 통일신라 이후에는 불교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지역이었다. 유학은 무속을 거부한다. 그리고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한다. 따라서 문성왕을 모시는

사당이 전부터 있어왔다고는 하나, 양양지역에 향교와 같은 제대로 된 제도와 문물을 통해 유학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고려말을 기다려야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교의 핵심사상인 인(仁), 오륜(五倫),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국립학교인 향교와 사립학교인 서원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보고, 양양향교와 동명서원의 건립배경에 한정하여 일별해 보겠다.

2. 양양향교

1) 서언

유학이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전래된 것을 삼국(三國)시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 소수림왕 2년(372년)에 태학(太學)을 설치하여 자제들을 교육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284년 백제(百濟)의 아직기(阿直岐)가 일본(日本)에 건너가 일본왕자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또한 285년 왕인(王仁)이 『논어』10권 「천자문」1권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백제본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유학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와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때의 유학의 성격은 공자의 효제충신(孝悌忠信)과 맹자의 오륜(五倫) 그리고 오경중심의 한대(漢代)유학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 같다. 신라도 신문왕(神文王) 2년(682년) 국학(國學)을 설치하였으나 선(仙)과 불교가 주류를 이루었고, 원성왕(元聖王) 4년(788년)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했으나, 불교의 융성과 골품제(骨品制)의 제약으로 국학은 떨치지 못하였다. 불교를 국가종교로 채택한 고려 초에 국학이 유명무실했던 것은 물론이나, 다만 광종(光宗) 9년(958년) 과거제(科擧制)를 채택함으로써 유학은 정치와 교육에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성종(成宗) 9년(989년)에는 12목(牧)에 경학박사(經學博士)를 파견하였고, 현종(顯宗) 15년(1024년)에는 계수관시(界首官試), 덕종(德宗) 원년(1032년)에는 국자감시(國子監試), 의종(毅宗) 원년(1147년)에는 승보시(升補試)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과거의 시험과목에 의지하여 간신히 연명되었던 유학에 새 기운이 움터오는 것은 충렬왕(忠烈王) 때였다. 충렬왕 6

년(1280년) 일경일사(一經一史)에 통달한 자로 하여금 국자(國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1285년 7월 세자(世子)가 국학에 나아가 육경을 강습했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이라든지, 충렬왕 15년(1289년) 4월 원(元)나라에 가 있던 안향(安珦)을 동국(東國)의 유학제거(儒學提舉)로 삼은 『동국통감(東國通鑑)』의 기록, 그리고 1296년 경사교수도감(經史教授都監)을 설치하여 일경일의(一經一義)에 능통한 자를 발탁하여 쓰고, 진사생도에게는 방술(防戍)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유학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조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렬왕 30년(1304년) 5월에 국학에 오늘날의 장학금에 해당되는 섬학전(瞻學錢)을 설치하고 또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며, 또한 안향이 선성(先聖) 및 70자(七十子)의 상(像)을 그리게 하고, 제기 악기 그리고 육경자사(六經子史)를 구입하도록 하자, 경사를 공부하는 자가 수백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해 6월에 국학에 대성전(大成殿)이 완성되어 왕이 친히 선성에게 배알함에 이르러 유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갔다.

인근 강릉에 향교가 화부산(花浮山) 아래 강원도 존무사(存撫使) 김승인(金承印)에 의해 중건되는 것은 충선왕(忠宣王) 5년(1313년)의 일인데, 이것도 역시 중앙의 이러한 유학진흥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강릉향교실기(江陵鄉校實記)」에 의하면 강릉에는 이보다 200여 년 전에도 이미 내외 향교가 있었으나 병화(兵火)로 소실된 채 그동안 폐허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때 향교진흥책에 의하여 전국에 약 220여 개소의 향교가 설치되는데, 당시 관읍(官邑)의 수가 약 340여 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일읍일교(一邑一校)인 셈이 된다. 향교의 기능은 석전을 통해 유학이 존송하는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선성선사(先聖先師)에게 제향하는 일과, 장래 국가의 동량이 될 학생을 교육시키는 일 그리고 지방의 풍속을 교화시키는 일인데, 이로써 향교는 유학의 기본인 수기치인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강릉의 향교는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양양 향교가 충숙왕 17년(1330년) 강원도 존무사(存撫使) 안축(安軸)에 의해 건립하게 되었다.

지방의 국립 교육기관인 향교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국립최고

학부에 해당되는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학(國學), 고려의 국자감(國子監), 조선의 성균관(成均館)이 개설될 당시에 지방에도 향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던 존재 했으리라 본다.

고구려에는 경당(局堂), 고려에는 관학(官學)인 국자감과 동서학당(東西學堂)과 향교, 사학(私學)으로 12공도(十二公徒)가 있었다. 『고려사』에 인종(仁宗) 5년(1127년)에 제주(諸州)에 향교를 세우고 교육을 확충하자는 기록이 있고, 인종 20년(1142년) 2월에 지방의 생도들이 계수관(界首官)향교에 모여 글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고려 충렬왕 때에 강릉안찰사(江陵按察使)인 김승인(金承印)이 향교를 화부산(花浮山) 연적암(硯適巖) 아래 창건하자 각지에서 향교가 이어서 일어났다는 기록이라던가 이곡(李穀)이 원(元)에서 흥학조서(興學詔書)를 가지고 와 여러 지방을 두루 돌고난 후 쓴 기록 가운데, 제군(諸郡)을 두루 살펴보니 향교가 허물어지고 생도들은 글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는데, 거의가 이러하더라는 개탄 어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충렬왕 이후 서서히 조정을 중심으로 원(元)나라에서 왕을 수행하고 돌아온 유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유학부흥운동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태조 7년(1398년)에 창설되었으며 문묘(文廟)와 명륜당(明倫堂)이 함께 있어 봉사(奉祀)의 기능과 교육(教育)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① 시설로는 선성(先聖)을 제향(祭享)하는 대성전(大成殿)과 학생들이 강학하는 명륜당,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서재(東西齋), 도서관에 해당하는 존경각(尊經閣), 식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저장할 양현고(養賢庫) 등이 있다.

향교도 봉사(奉祀)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이 있으므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성균관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② 향교 봉사(奉祀)의 기능에는 봄·가을 두 번의 석전제(釋奠祭)가 있고, 삭망분향례(朔望焚香禮)가 있다. 배향인물(配享人物)은 공자(孔子), 안자(顏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의 중국 5성(五聖)은 어느 향교나 다르지 않으나, 중국의 10철(十哲) 6현(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 인근 강릉향교는 5성·10

철·6현에 동무 58위 서무 57위를 넣고 있으며 동서무 115위 중에는 우리나라의 18현이 들어있다.

양양향교는 5성·공문(孔門) 10철·송조(宋朝) 6현·우리나라 18현 모두 39위를 배향해 왔으나, 수복 후 성균관의 지시에 따라 5성에 송조(宋朝)의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와 우리나라 18현을 합쳐 25위를 배향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9위를 배향하고 있다.

③ 향교의 교육의 기능에는 정규적인 학교교육 기능과 사회교화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향교의 교관(校官) 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성종 때가 되면 안정되는데, 부(府) 이상의 고을에는 6품 이상의 교수관(教授官)이나 7품 이하의 훈도관(訓導官)을 배치했으나, 대부분 군현의 향교에는 예산관계로 정식 교관을 배치하기가 힘들어 그 지방에서 선출한 자를 학장(學長)으로 대치했다. 교관의 임기는 900일로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다. 교관의 임기는 40세에서 7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의 입학연령은 『경국대전』에는 17세 이상이라야 정규 교생이 될 수 있다.

교생정원은 모든 향교가 다 일정한 것은 아니고 향교가 있는 고을의 크기와 또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 대도부(大都府) 목(牧)의 향교는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현(縣)의 향교는 30명으로 조선말까지 거의 지켜졌다.

향교의 운영은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를 통하여 마련하였고, 교생은 무상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숭덕광업(崇德廣業)이란 유교의 교육목표 하에 개인의 수양과 사회기강의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체로 소학(小學)·사서(四書)·오경(五經)·성리대전(性理大全)·삼강행실(三綱行實)·이륜행실(二倫行實)·효경(孝經)·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통감(通鑑)·송원절요(宋元節要)·향약(鄉約)·가례(家禮) 등이 교육되었다. 이 외에 향교에서 행하여진 행사에 향음주례(鄉飲酒禮)와 향사례(鄉射禮), 거접(居接) 등이 있다.

2) 양양향교의 설립배경과 연혁

양양향교에 관한 중요자료는 1999년에 발간된 『양양향교지』에 일괄 편집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양양향교의 창건연대와 의견이 분분한 몇 가지 자료에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양양향교의 창건시기에 대해 양양향교가 주최하는 공부자(孔夫子) 탄강 2561주년 춘기 석전제(釋奠祭)의 양양향교 연혁에는 고려 충숙왕 16년(1329년) 강원도 존무사 안축(安軸)에 의해 문선왕동(文宣王洞)에 창건되었다고 적혀 있다. 1999년 발간된 『양양향교지(襄陽鄉校誌)』에도 고려 충숙왕 16년(1329년)으로 되어있다. 창건한 사람이 안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는 듯하나, 창건 연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설이 분분하였다.

양양향교의 창건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창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안축이 직접 기록한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이다. 이 「양양신학기」는 『근재선생집(謹齋先生集)』 권1 관동와주(關東瓦注)에 들어 있다. 이 「관동와주」는 안축이 천력(天曆) 3년 5월[1330년 5월]에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로 명을 받고 5월 30일 송경(松京)을 떠나 부임지를 순방하면서 자연경관을 보고 느낀 감흥을 시로 읊기도 하고, 또 각 지역의 민정(民情)에 대해서도 기술한 말하자면 관동기행문이다. 이 기행문이 쓰여지는 기간은 천력(天曆) 3년에서부터 안축이 파임(罷任)되어 송경(松京)으로 돌아가는 지순(至順) 2년 9월[1331년 9월]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안축이 관동에 있었던 기간은 1330년 5월 이후 1331년 9월 이전이 되게 된다. 따라서 양양향교 창건에 관한 논의가 성숙해 지는 것은 1330년 후반기에 해당될 것이고, 통주수(通州守) 정랑(正郎) 진군(陣君)에게 향교 건축역사를 감독케 하고 양양의 수령인 정랑 박군(朴君)을 실제로 이 일에 진력케하여 향교가 완성되는 것은 빨라도 1331년 이후가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 역사적 사료를 정밀 검토하여 양양향교의 창건 연대를 확정시키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양양향교 건립에 대하여 안축은 「양양신학기」에서 수려한 산수와 맑고 깨끗한 영령(英靈)의 정기를 받은 양양에서 백여 년이 지나도록 재덕(才德)을 갖춘 선비들이 나와

인륜을 드높였다는 소문을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은, 이곳 산수의 탓도 아니고 이곳 사람들의 성품이 불선(不善)해서도 아니고, 예부터 변경(藩境)에 인접하여 변란이 자주 일어나 학교의 도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향교를 지을 장소에 대해서도 이곳에 이르러 동네 노인들한테 구읍(舊邑) 북쪽에 예로부터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이 터는 틀림없이 옛날에 학교가 있던 곳으로 폐허가 된지 오래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 이 터를 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문선왕은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그리고 안축이 「양양신학기」라 한 것은 양양에 구학(舊學)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성왕묘(文聖王廟)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자를 제사지내는 사당의 역할만 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간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축의 ‘양양신학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학교향교(學校鄉校)편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축의 명에 의하여 향교가 지어진 것은 틀림없으나 그 이전에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 불린 곳에 향교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100여 년 전 거란군과 몽골군의 침략으로 이 고장이 폐허화한 기사를 보아 그 후 복원하지 않고 학교없는 지역이 되지 않았겠는가?

양양향교는 성종 21년(1490년)에 양양읍 구교리(舊校里)에 이건(移建)되었다. 이 사적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0년 발간된 『양주지(襄州誌)』503페이지 양양향교 유래를 보면 “조선조 성종 21년(1489년) 강원도 존무사 안축이 양양면 구교리에 창건함”이라 적혀있다. 이 기록내용 부분에 대하여 1992년 발간된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171페이지에는 양양향교건치연혁에 1490년 강원도존무사 안축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기록은 오기(誤記)이며, 또한 1954년 수복 후 양양향교 교장 이종하(李鍾夏)가 지은 「양양향교중건기」의 향교 연혁에, 안축이 창건한 뒤 110년인 황명(皇明) 장종(章宗) 천계(天啓) 6년에 중수(重修)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도 명(明)에는 장종이 없으므로 잘못된 기록으로 여겨지고, 중수의 실제 연대는 알 수 없다고 적혀 있다. 1999년 발간된 『양양향교지』421페이지 양양향교 연혁에는 “1329년 고려 충숙왕 16년에 강릉도존무사 안축선생께서 문성왕동에 창건하였다.”하고 “중간에 구교리에 이 건하였으나 사적(史蹟) 불명(不明)”이라 적혀 있다. 1999년 발간된 『양양향교지』432페이지

이지 이종하 근지로 되어있는 「양양향교중건기」에는 “안축이 창건한 후 110년인 황명(皇命) 장종(章宗) 운운”이란 구절은 현재 빠져 있다.

양양향교 창건은 충숙왕 17년(1330년) 9월 이후에 안축에 의해 계획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여기서는 성종 21년(1490년)에 부동일리(府東一里) 성외(城外)로 이 건한 것에 대하여 일별해 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자료에는 최상익(崔商翼)의 「양양향교이건기(襄陽鄉校移建記)」가 있다.

숙종 8년(1682년)에 부사(府使) 최상익이 기록한 「양양향교이건기」에는 “...홍치삼년 이 건후백수십년이지천계병인시내중수(弘治三年移建後百數十年而至天啓丙寅始乃重修)...”라 적혀 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 홍치(弘治) 3년에 양양향교가 이 건(移建)되었고, 천계(天啓) 병인(丙寅)에 중수(重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치는 명(明) 효종(孝宗) 3년(戊庚)으로 1490년이고, 조선 성종(成宗) 21년이 되는 해이다. 천계는 명나라 가종(嘉宗) 6년(丙寅)으로, 1626년이고, 조선 인조 4년이다. 이로써 양양향교는 1490년 옮겨 중건되었고,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1626년에 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양향교는 인조 4년(1626년) 확장 중수(重修)되었다.

숙종 8년(1682년) 부사 최상익(崔商翼), 진사 박호(朴灝), 최상은(崔相殷)에 의하여 옛 문성왕동(현 임천리)으로 이 건되었다. 이때 도유사(都有司) 1인, 장의(掌議) 2인, 유사(有司) 2인을 두었고 교생정원은 70명 전답은 7결(七結)을 지급하여 운영에 충당케 하였다. 이 시기의 양양향교는 대성전(大成殿) 9칸 동서(東西) 각 6칸, 신문(神門) 7칸, 전사청(奠祀廳) 3칸, 동서재(東西齋) 각 4칸, 명륜당(明倫堂) 14칸, 제기고(祭器庫) 1칸, 서적고(書籍庫) 1칸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정조 6년(1782년) 양양부사 이진항(李鎭恒)이 둔전동(屯田洞) 주철소(鑄鐵所)를 교궁(校宮)에 두었다.

1930년부터 장의는 각 면을 단위로 2인씩 보통선거로 선출하여 10인을 두었다. 8·15 광복 이후 1946년 토지개혁에 의해 향교의 모든 토지가 공산당에 몰수되었으며, 1949년에는 향교의 건물도 공산당에게 몰수당했다. 1950년 9월 30일에는 공산당의 방화로 건물 및 제복(祭服), 제기(祭器), 서적 등이 모두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1951년 수복과 동시에 향교의 재산을 회수하였으며, 1952년에는 향교의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 동서재(東西齋) 등을 중건하고 준공과 동시에 석전제(釋奠祭)를 봉행하

였다. 1954년에 명륜당(明倫堂)을 증건하여 건물전체를 완공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현 양양향교는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으로, 전면에 명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재·서재 그리고 내 삼문을 지나 동무(東廡)·서무(西廡) 그 위에 대성전(大成殿)이 있다.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동재·서재는 명륜당을 중앙에 두고 동서에 각각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형식의 건물이다. 동재 뒤쪽에 평행으로 고직사가 있다. 동무·서무는 내삼문을 지나 대성전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마주보며 각각 9현을 모시고 있는 맞배지붕형식의 전면 3칸, 측면 2칸의 와가이다.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익공형식이다.

양양향교는 경사진 면에 위치하고 있어 곳곳에 장대석 석축을 쌓아 기단을 만들어서 건물전체가 위엄이 있고 당당해 보인다. 향교 입구에는 「부사조공종저흥학비(府使趙公宗著興學碑)」, 「부사안공경운흥학비(府使安公慶雲興學碑)」, 「부사이공구영거사비(府使李公龜榮去思碑)」, 「부사임공희교흥학비(府使任公希教興學碑)」, 「양양향교중건비」 공부자묘정비(孔夫子廟庭碑) 등이 배열되어 있다.

3. 동명서원(東溟書院)

1) 서원

유학을 국시(國是)로 삼은 조선(朝鮮)시대의 사상적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서원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서원, 그중에서도 이른바 사림파(士林派)가 등장한 16세기 이후 정치·교육·철학·경제·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원이 담당했던 역할은 지대하고도 광범하여 조선시대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독창적인 제도는 아니고, 멀리 중국(中國)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도 학문을 가르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서원으로는 당(唐)나라 승원(昇元) 4년에 건립된 백록동학관(白鹿洞學館)이 처음인데, 그 이전에는 수서(修書)와 제사(祭祀), 은거(隱居)하여 독서하는 사람의 서재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송초(宋初)의

백록동(白鹿洞)·악록(嶽麓)·응천(應天)·숭양(崇陽)서원이 중국의 4대 서원으로 된 이후부터 서원은 성황을 이루게 된다. 이 가운데서도 주자(朱子)에 의하여 중건(重建)된 백록동서원의 「서원게시(書院揭示)」는 조선시대 서원의 설립과 그 운영 및 교육내용의 준거(準據)가 되고 있다.

중종 37년(1542년) 풍기(豊基)에 회헌(晦軒) 안향(安珦)을 배향하는 백운동서원이 설립된 것을 효시로, 서원과 사우(祠宇)가 각 봉당에 의하여 다투어 설립되었던 속종말에는 680여 개소의 서원이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하여도 327개가 되어, 조선시대에 서원이 얼마나 성황을 이루고 있었는지 이로써 알 수 있다. 영조 17년(1741년)에는 서원 19개소, 사우 154개소 등 173개소의 서원과 사우가 훼손된 적도 있었고, 또 1871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집권시에는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전부 훼손되는 대파란을 겪고 있는데, 서원과 사우에 대하여 이처럼 강경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에 도리어 서원이 조선조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교육을 담당하고 현인을 배향하여 학덕을 기리는 기구에 서원 이외에도 서당(書堂)·서재(書齋)·정사(精舍)와 같은 것이 있었고, 또 사우들, 이를 세분하면 향사(鄕祠)·사(祠)·리사(里祠)·영당(影堂)·별묘(別廟)·세덕사(世德祠)·유애사(遺愛祠)·생사당(生祠堂) 등이 향촌 사회별로 설립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양의 동명서원에 대해서는 그 설립 배경과 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유학적 성격에 대하여 일별해 보겠다.

2) 조선조 서원의 사상적 의미

중종 37년(1542년) 백운동서원 창건을 계기로 하여 전국 곳곳에 자리잡게 된 조선조 서원은 「강명의리(講明義理)」[『주자문집(朱子文集)』권74,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 즉 경전에 쓰여진 의리를 궁구하여 밝히는 강학(講學)과 유덕한 선현을 제향(祭享)하는 상덕(尙德)의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이 창립되던 초창기에는 강학적인 면보다 선현에 대한 제향적인 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 때도 있

었으나, 이른바 사림과 대두 이후에는 강학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서원의 구조도 이 설립목적에 의거하여 상덕사(尙德祠)와 동재서재(東齋西齋), 강당(講堂), 그리고 도서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조선조 서원 설립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퇴계는 서원의 설립목적을 “존현강도(尊賢講道)”에 두고 있다. 「강도(講道)」란 도의를 궁구하여 밝히는 것인데, 「강도(講道)」즉 「명도술(明道術)」이라는 말은 퇴계가 서원을 건립할 때에 모범으로 삼았던 주자의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에 적혀있는 「강명의리(講明義理)」와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러면 「강명의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자는 「백록동서원게시」에서 요순(堯舜) 이래로 전해 내려온 오륜(五倫)을 들고난 후, 이를 배우고 실천하는 순서를 둘로 나누어, 이치를 궁구하는 방법으로는 박학(博學)·심문(審問)·근사(謹思)·명변(明辯)의 넷을 들고, 독행지사(篤行之事)로서 수신지요(修身之要)·처사지요(處事之要)·접물지요(接物之要)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존현(尊賢)」이란 도의(道義)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만든 성현의 뜻에 따라 도의를 실천하고 산 선현들을 제향함으로써, 성현이 마치 옆에 계신 듯 모범으로 삼고, 사표(師表)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록동서원을 건립한 주세붕(周世鵬)도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가르침이란 반드시 성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그러기에 묘(廟)를 세워서 덕(德)을 높이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하게 하는 것은 배고픔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퇴계는 선현을 배향함에 있어서는 도의 즉 도통(道統)을 강조하여 “이같이 하면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여 다투어서 서로 본받아, 진실로 선정(先正)들이 남긴 자취와 뿌린 향기가 있는 땅으로서 최충(崔沖)·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 등이 거처하던 곳에도 다 서원을 세우되, 혹 조정의 명령으로 세우기도 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기도 하여 책을 읽고 학문하는 곳이 되어 성조(聖朝)에서 문교를 숭상하는 교화와 인재 기르기를 즐겨하는 성대함이 아름답게 선양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동방의 문교가 크게 밝혀져 추로(鄒魯)·민월(閩越)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기리게 됨을 곧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도학자(道學者)를 배향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은근히 제시하고 있다. 퇴계가 이처럼 서원의 목적을 “존현강도(尊賢講道)”에 둔 이유는 유학

의 기본정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강령(綱領)으로 삼고 있는 실천철학이다. 공자는 일찍이 수기안백성(修己安百姓)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고, 주자도 이 공자의 정신을 본받아 『대학장구(大學章句)』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의 집주(集注)에서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즉 수기치인의 도리를 천명하고 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이 명덕을 밝혀 자기 혁신을 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기급인(推己及人)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명덕을 밝혀 자기 혁신을 하도록 함으로써 백성을 혁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으로 덕성을 함양한 사람은 반드시 명덕을 천하에 밝혀야 할 사명이 있으므로, 정치적 경륜을 실현하는 이 수기치인의 정신은 유가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유가에서는 관직에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수양함이 아직 미달하여 학문이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을 경륜해서는 안되고, 또한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때를 헤아림이 필요하다고 퇴계는 말하고 있다. 『논어(論語)』에도 학문하여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유가는 수기를 치인의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난 시대가 험난하여 그 뜻을 펴서 도의를 실천할 수 없을 때에 유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유가의 출처진퇴(出處進退)문제 즉 도통(道統)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태평성대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공자도 도(道)가 장차 행하여지는 것도 명(命)이며, 도가 장차 폐하여지는 것도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나라에서 발탁하여 써주면 도를 행하고, 나라에서 버리면 은둔한다. 수신하여 덕과 학문을 갖추고 있는데도 나라에서 써주지 않으면 숨어살면서 그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여 도를 달성한다는 것이 공자의 출처진퇴관(出處進退觀)이다.

이러한 공자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천명한 사람이 맹자(孟子)이다. 수신출세하여 뜻을 얻으면 천하백성과 더불어 이를 행하는 것이요, 뜻을 얻지 못할 때에는(불행히) 홀로 그 도를 행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하여 세상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다. 궁한 처지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였고, 영달해서는 천하 사람들까지 착한 일

을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를 풍미한 유학은 송학(宋學) 그 중에서도 주자학(朱子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송대 유학의 특징은 한·당의 호족·귀족과 같이 타고난 신분에 의하여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사대부(士大夫)라 일컬어지는 성현이 기록한 경전을 공부하여, 경서에 적혀 있는 정신을 체득한 독서인(讀書人)들이 과거(科擧)라고 하는 관리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점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은 경서를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한 말하자면 학자인 동시에 정치인인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학자가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는 제도하에서는 봉당(朋黨)을 이루고 심한 경우에는 당파(黨派)를 이루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수가 많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같은 선생 아래에서 동문수학(同門修學)한 사람들이란 학문적 경향이나 정치적 이념문제에 있어서 동일노선을 취하게 되기 쉬우므로, 학자가 정치인이 되는 유가의 기본구조에서는 당연한 일로서,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을 “피비린내 나는 당쟁” 운운하던 일본학자의 발상은 식민지사관잔재로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에 당쟁이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지극히 당연한 일로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만을 특별히 취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문관의 차이가 정치이념의 상이로 직결되어 있고, 원시유교가 바탕을 이루었던 삼국시대와 불교사상이 깊숙이 뿌리내린 고려의 학문적 토양 속에서 주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학문적 갈등과 충돌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와 이른바 당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기치인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유가에서는 숭덕광업(崇德廣業)의 양면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수신하여 뜻을 얻으면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그 경륜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설사 덕행과 학문을 쌓았다 하더라도 군주가 발탁해 주지 않거나, 또 위에서 불러준다고 하여도 도의를 실현할 상황이 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하는 것은 유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향의 산림 속에서 홀로 그 도를 실천하면서 다시 뜻을 얻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당대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뜻을 가진 사람들은 도를 전하기 위하여 후학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원은 처음 설립 당시에는 유가의 기본 사상인 수기치인 정신에 의하여 뜻을 얻지 못한 선비들이 은거하여 수신하면서 웅지(雄志)를 기르던 유학 본래의 긍정적인 사학(私學) 연구단체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학문한 사람이 과거를 통하여 정치가가 된다는 유학 본래의 특성이 중국의 원(元)·명(明) 교체기와 명(明)·청(淸) 교체기와 맞물려 현실 이해가 서로 다른 학자들의 학문적 상이가 정치적 정쟁으로까지 치달은 것이 이른바 당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서의 분당, 남북의 분당, 노소의 분당 그리고 남인과 노론 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정치투쟁도, 이는 단순한 정권싸움이 아니라 조선왕도의 존립과 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사태에 직면하여,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삼강오상론(三綱五常論), 천리인욕론(天理人欲論), 성학론(聖學論),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출처진퇴관 등에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된 결과, 이것이 정권과 연계됨으로써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명서원의 설립 배경 및 연혁

동명서원은 조인벽(趙仁璧)을 주향(主享)으로 삼고 있는 서원이다.

동명서원을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인벽 선생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인조 6년(1628년)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로 부임한 조위한(趙緯韓)이 쓴 「동명서원창건기(東溟書院創建記)」에 의하여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설립한 주체를 살펴보면 배향된 인물의 후손이 직접 세우거나, 또는 세인(世人)의 비난이 두려워 가까운 학자를 내세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문인이나 제자들이 스승의 학덕(學德)을 기리기 위하여 스승을 배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배향된 인물이 선조도 아니고 사부(師傅)도 아닌 경우에는 향인(鄕人)들이 힘을 합쳐 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동명서원도 후손인 조위한과 노경복(盧景福)·최정립(崔挺立)·이현일(李賢一) 등 향인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 서원임을 알 수 있다.

동명서원이 건립되는 것은 인조 6년(1628년)으로, 강릉에 오봉서원(五峰書院)이 건립된 것은 이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명조 11년(1556년)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사우(祠宇) 건립이 유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동명서원창건기」에 “열읍(列邑)에서도 모두 서원을 조

용하고 한적한 곳에 지어 많은 선비들이 수업하는 장소로 삼고 있는데, 유독 이 고을만 서원이 없으므로, 비분탄식하여 재물과 목공을 모아 백록동서원의 옛 제도를 본받기를 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동명서원창건기」에 의하면 서원 건립에 즈음하여 중국 백록동서원의 옛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원에서 공부한 선비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면 령밖[嶺外]의 거칠고 궁핍한 이 시골[양양]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아끼는 고장이 될 것이라 기원”하고 있다.

대포진(大浦鎭)에 있던 만호(萬戶)의 관사를 활용하여 구관(舊館)을 그대로 쓰고 동명서원이란 현판을 걸었는데 재방(齋房)과 강당(講堂)을 갖추고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터이라 서원의 건물규모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충현사(忠賢祠)에 배향한 사람은 양렬공(襄烈公) 조인벽(趙仁璧 : 1328~1393년)이다. 서원운영의 재원은 양양부사 조위한이 소금가마 한자리와 어선 한 척, 그리고 둔전(屯田) 7석(七石)지기를 마련해 주어 춘추향사의 제수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쓸 양식에 충당하고 있다. 후일 조인벽의 넷째 아들인 조사가 배향되었다.

1680년 병란으로 인한 대화재로 동명서원이 소실되자 복구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정조 10년(1786년) 조인벽 선생과 그의 둘째 아들인 조연(趙涓)의 5세손인 조정(趙貞)에게서 수학한 제자의 후손들이 경상북도 와란(臥蘭) 또는 와단(臥丹)에 서원을 이건(移建)하여 다시 동명서원이라 하고 조인벽과 조사를 배향하였다. 와란의 동명서원 역시 조상과 스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라 할 것이다. 이 와란의 서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와란의 동명서원도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폐철되었다.

고종 36년(1899년) 강원관찰사로 온 조종필(趙鍾弼)이 양양에 순찰차 왔다가 동명서원을 창건했던 자리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조인벽의 절개를 기리고 후일을 기약하였다.

1974년 향론(鄉論)으로 동명서원 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중단되었고, 1979년 양양유림과 한양조씨 후손들이 복원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애쓴 결과 1982년 충현사와 강당을 복원하고 1982년 5월 2일 조인벽 선생과 조사선생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충현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양식이고, 강당은 정면 4

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형식의 건물로 복원되었다. 2005년 4월 5일 충현사는 대화재로 소실되었으나, 2010년 다시 복원되어 2010년 4월 30일 춘기 제례가 충현사에서 봉행되었다. 충현사 규모는 전과 같다. 충현사에 배향된 선현은 조인벽과 조사 두 분이다.

4) 배향인물의 사상적 특색

동명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조인벽·조사이다. 서원 창건 당시인 인조 6년(1628년)에는 조인벽만 배향되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680년대에 있었던 난리[병선(兵燹)]로 서원이 소실된 이후 100여년간 복원을 못하다가 1982년 양양지방의 유림과 한양조씨 후손들에 의해 복원하고 조인벽의 넷째 아들 조사를 같이 배향하게 되었다.

(1) 조인벽

조인벽은 고려말의 무신(武臣)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시호는 양렬공(襄烈公), 호는 우계(愚溪) 또는 해월정(海月亭)이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와는 처남 매부지간이었다. 우왕 14년(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2등 공신이 되었으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양양군 조산리로 은거하였다. 「5세양렬공사적(事蹟)」에 의하면 조인벽은 저작은 하지 않았고 만제잡영(謾題雜詠) 두 세편이 있을 뿐이라 한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로 태조 이성계의 여러 차례의 출사(出仕)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양양 조산리에 은거하여 그 마을 이름을 중국 동진(東晉)의 은일시인(隱逸詩人) 도연명(陶淵明)이 살던 중국 산서성 시상산을 모방하여 시상촌(紫桑村)이라 하고, 대포성(大浦城) 낮은 언덕위에 있는 큰 바위를 도취석(陶醉石)이라 하여 이곳에서 노닐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유유자적 산천을 소요유하며 술에 취하고 아름다운 산수(山水)에 취하고 시(詩)에 취하여 산 도연명의 삶을 연모하고 있다. 또한 남대천(南大川) 하류의 여울을 노련탄(魯連灘)이라 이름지은 것에서, 절개와 의리를 중시한 조인벽의 평상시의 심정을 알 수 있다. 평소 산천경계를 한가로이 노닐며 흰옷을 즐겨 입고 흰 도롱이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는 기록이라든가, 호를 도가(道家)나 불자(佛者)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계(愚溪)라고 한 것이라든가, 아호(雅號)를 해월정(海月亭)이라 한 것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강해(江海), 이장년(李長年)이 조인벽의 시를 논하여 “그의 시는 호탕하고 고매하여 세상살이의 때와 먼지가 틈탈 일 없다.” 하고, 시우(詩友)였던 혜선스님[慧禪上人]이 “조선생은 사바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그 절개가 높은 것으로 비견되는 사람은 진(晉)나라의 도연명[陶靖節] 뿐이라.”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그는 도가풍(道家風)의 만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조의 삼징칠벽(三徵七辟)에도 불구하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킨 것은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야은 길재(吉再)에 나란히 비견될 충절로, 도덕과 의리를 중시한 충현(忠賢)이라 할 것이다. 후일 외란으로 서원을 옮길 때 쓴 서원이 건문(書院移建文) 가운데 조인벽의 불사이군의 절의(節義)를 은나라 기자의 충의(忠義)와 백이숙제의 절개와 도연명의 정절(靖節)에 비유한 후, 태조 이성계도 그 절의를 꺾지 못하였으나, 조인벽이 그 자손들에게는 내 왕씨(고려) 섬기는 마음으로 이씨(조선)왕조에 출사(出仕)할 것을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로써 그의 많지 않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년의 은둔한 자의 즐거움과 청풍명월과 벗 삼은 자득의 경지도 실은 충절의 리에서 나온 우국(憂國) 애민(愛民)의 정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기치인을 중시한 유학의 기본정신에서 볼 때 그의 만년의 은둔은 어디까지나 도의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맹자의 이른바 뜻을 얻으면 천하 백성과 더불어 이를 행하는 것이요, 뜻을 얻지 못할 때에는 홀로 그 도[道義]를 실천할 따름이라는 맹자의 기상과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후일 동명서원이 건립되고 조인벽이 배향되는 이유도 유학이 중시하는 도덕과 의리에 의해 출퇴진퇴의 시중지도(時中之道)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조사

조사(趙師) 호는 가천재(嘉川齋)이다. 조인벽의 넷째 아들로, 이태조의 친생질(親甥姪)의 관례에 의해 통정대부(通政大夫) 중추원사(中樞院事)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양양으로 돌아와 벼슬의 뜻을 버리고 양친(養親)과 수학(修學)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교분이 두터웠다.

양렬공이 작고한 후에는 치악산 가치천(嘉致川) 부근에 은거하고 있던 원천석과 오랫동안 같이 기거하며 수학하였는데 이때 호를 가천재라 하고, 노닐던 대를 와선대(臥仙臺)라 하였다. 임종할 때 자손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정몽주 선생 무덤 근처에 묻어서 지하에서라도 따라 노닐게 해 달라”고 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실행하였다 한다.

원천석, 자(字)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으로 26세 때 공민왕 4년(1355년)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신현(申賢)의 문적(文籍)이 강제로 소각당하는 화를 당하자 포은 정몽주가 신현의 서적들을 수집하여 밤중에 송경(松京)에서 치악산 중에 은거하고 있는 원천석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장(秘藏)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는 일화가 있다. 일찍이 태종은 어릴 적 원천석에게 글을 배운 적이 있으므로 즉위하자 수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고려말 조선초를 살면서 도의에 입각한 출처진퇴의 의리를 분명히 한 원천석과의 교유는 조사의 의리정신을 이해하고 동명서원에 배향된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는 조인벽의 아들이어서 배양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몽주·원천석과 같은 도학(道學) 계열로 비록 출사하지는 않았지만 도의를 실현하고 산 도학자로 배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동명서원 운영을 위한 제언

현 동명서원은 서원의 입구에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그 왼쪽 위에는 양렬공우계조선생신도비가 서있다. 솟을대문 앞 우측에는 1899년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이 쓴 동명서원유허비와 1982년 건립한 동명서원중건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강당이 있고 그 위에 충현사가 있다. 선현[先聖先師]의 제향과 장래 나라의 일군이 될 인재의 교육과 지역의 미풍양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향교와 마찬가지로, 서원의 존재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서원의 구조도 선현을 모신 상덕사와 교육장소인 강당과 기숙사인 동서재와 서책을 보관하는 도서실을 구비하고 있다. 동명서원에는 현재 동서재와 도서실이 없다. 강당이 있다고는 하나 강당이라기보다는 재실에 가깝다.

상덕사만 있으면 사당이 된다. 강당과 동서재만 있으면 서당이 된다. 서원이 되기 위

해서는 이 두 기능이 같은 공간 안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향인물의 선정 역시 중요하다. 도의에 입각했다고는 하나, 향현인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선현선사인지는, 아니면 공자와 맹자 그리고 주자와 같은 중국의 선성선사인지는 배향인물에 따라 서원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명서원의 배향인물은 1628년 창건 당시에는 조인벽만 배향되었다. 넷째 아들인 조사의 사후 조사도 배향되었다. 그리고 1786년 외란의 이진된 후는 조인벽의 6세손 조정이 배향되었다. 그러나 1982년 양양유림과 한양조씨 후손들에 의하여 복원된 동명서원 충현사에는 조인벽과 조사만 배향되었다. 그리고 2005년 소실되어 2010년 복원된 충현사에도 조인벽과 조사만 배향되어 있다. 동명서원 복원에 즈음하여 동명서원이 서원의 이름으로 미래에도 살아 숨 쉬며 양양지역 사회에 산 역사교육의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양양유림만이 아니라, 양양군 더 나아가 객관성 있는 유관전문기관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유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분명한 농경문화권에서 발달된 사상이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 되고 농업이 나라를 움직이는 주산업이 되었던 시대에는 나라의 기본정책이 유학의 근본정신과 기초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송나라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바로 유학을 국시(國是)로 삼았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성균관이나 향교나 서원은 바로 이러한 유학을 국가기본정책으로 삼았던 나라가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과 미풍양속 등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교화를 위해 만든 국립·사립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이 사립교육기관이라고 하여도 서당과는 달리 서원 설립과정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느 사상에도 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이 있는데, 한 시대를 주도한 사상이 시대가 바뀌면 다음 시대의 역기능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 농경문화권을 주도해 온 유학 사상은 과학기술문명권에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 면이 많아 한동안

한국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과 정보문화가 주 산업을 이루고 농경인구가 20%로 줄어든 오늘날,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린 유학의 역할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그 사회적 역할이 끝나 유적과 유물로 변해 가고 있는 유교 유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경문화권의 특성은 첫째는 사계절성이다. 모든 생산품이 계절과 직결되어 있었고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풍습도 계절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 유통망의 활성화로 계절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두번째는 대가족제인데, 이 역시 핵가족제로 변화되었고,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던 효제개념도 사회복지시설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번째는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인데, 평등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여아라 하여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다. 네번째가 토지를 매개로 한 협동성 지역성인데, 신 유목민 개념이 적용되는 산업사회로의 확산은 농촌의 협동성을 파괴해 가고 있다. 노인 촌락으로 바뀐 농촌마을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지방의 향교가 맡고 있던 교육적 역할은 지방국립대학이 그리고 서원이 맡고 있던 역할은 사립대학이 전담하고 있다. 이제 향교와 서원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은 봄가을의 석전제와 삭망분향례와 배향인물의 제의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배향인물의 제의가 지역문화축제의 콘텐츠의 하나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뿌리가 되는 제의의 생명성과 엄숙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사의례, 제사음식 등만이 부각되는 것은 아쉬운 현실이다. 서원스테이가 추진되고 있어도 평소 인기척이란 없던 정돈되지 않은 서원 경내에서 하룻밤 머문다는 것은 편리한 일상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역이 되기 쉽다. 더욱 이미지만 나빠질 확률이 크다.

뿌리에 깃들여 있는 생명력 있는 유학의 정신들, 이를테면 공자의 인(仁) 맹자의 오륜(五倫),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증용의 성(誠), 주자(朱子)의 숙독정사(熟讀精思) 외경(畏敬), 퇴계의 경(敬), 율곡의 성(誠) 등, 500여 년간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유학의 키워드를 쉽게 풀이하여 가르쳐 준다면 과학기술에 찌든 현대인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자가례의 관혼상제 중에서 현재에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인식과 전통혼례이다. 향교가 중심이 되어 여성유도회 남성유도회를 활

성화시켜 실생활에서 성인식과 전통혼례 의식을 살리고, 상례와 제례에 대해서는 향교가 평소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다음 세대에 전통제의 의례를 계승시키는 가교 역할로서의 교육적인 시도는 유효하다고 본다.

유학은 나무를 기르는 마음으로 인간을 기르는 생명철학이다. 인간이 수렵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진출한 것은 인간이 자연 가운데에서 육체적으로는 약점이 많지만 생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은 인간의 존재를 수이최령(秀而最靈)이라 하여 모든 자연가운데에서 뛰어나고 가장 영묘한 존재로 생각한다. 여기서 인문(人文)이 창조되었다. 맹자는 인간과 동물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인간의 도의심이라고 한다.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떡잎이 나고, 줄기와 가지 사이로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1년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오랜 세월 성장한다. 그러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도 있고 생명이 끝나는 시기도 있다. 그렇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손들의 비료가 된다. 이런 다년생 나무를 기르는 마음으로 인생을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유학사상이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착한 본성을 받았으므로 이 착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유학에서는 이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착한 마음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감각의 집합체인 육체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필수적이다. 성장하는 것은 단번에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배우는 데에도 등급이 있다. 배우려면 먼저 배운 선배가 선생이 된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모두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범을 배운다. 그것들은 모두 바깥에 있는 것들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은 익혀서 나의 마음에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배우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천을 해야만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다.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그 곳에는 자연히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논어』의 첫 장은 학이장(學而章)으로 시작한다. 공자처럼 배운다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한 사람도 많지 않다.

공자가 인류의 스승이 된 이유는 인(仁)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논어』에는 인이란 글자

가 10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증자는 이 공자의 인을 충서(忠愍)라는 두 글자로 요약하였다. 충(忠)은 네 진심을 다하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도 하도록 해 주라는 뜻이고, 서(愍)는 네 마음을 미루어 네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요즘 말로 남을 배려하고 살라는 말이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천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맹자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끼는 마음을 미루어 다른 집 노인들에게도 잘 해드리고, 자기 집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집 아이들도 잘 돌보라고 말한다. 추기급인(推己及人)의 정신, 나를 미루어서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 이것이 유교의 기본 정신이다. 오늘날도 필요하고 미래에도 필요한 마음이다.

맹자의 오류도 좋은 발상이다. 인간관계가 어찌 다섯 가지로 끝날까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부모자식간, 개인과 사회간, 부부간, 나이든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간, 그리고 친구간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오류는 유교의 핵심사상인 수기치인의 실천 요령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개인으로만 살 수는 없다. 어려서는 혈연가족이 모인 가정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면 다른 집안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더 큰 사회의 일원이 된다. 사회의 일원이 되면 당연히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 이 관계는 후천적으로 모인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리가 필요하게 된다. 유교는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서 같이 살고 공헌해야 하는 법을 중요시 한다. 유교가 가정을 중요시 하는 이유도 바로 사회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혈연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가정에서 평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한다.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임금께 충성을, 형에게 공손히 하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나보다 나이든 선배에게 공손히 하고, 내 아우를 보살피듯 후배들을 품어준다. 개성은 이기적이 되고, 사회성은 세계화로 변화하여 개인과 사회가 공손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개인과 건전한 가정과 공정한 사회의 공존을 중요시하는 유교의 수기치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인간답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균형 잡힌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의 부부유별은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 유교에서 부부는 동등하나 남녀는 차별이다. 이 면은 재고를 요한다. 성과급이 판을 치는 오늘날에 장유유서가 웬말이냐고 할지 모르나, 유가에도 나이가 존중되는 부분이 있고, 능력이 존중되는 분야도 있었

다.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그 예이다. 봉우유신, 같은 선생에게 배운 친구도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도 있지만 친구사이에 서로 믿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 것인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가족 외에 평소 서로 믿고 아낀 몇 명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오륜이 추구하는 정신은 오늘날도 우리 인생목표로 손색이 없다. 다만 그 실천 방법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암기식 성과위주 경쟁위주의 교육방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교와 서원이 주말교육이거나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연을 아끼고 공존하는 마음을 중시하는 예절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대인에게도 흥미를 일으키는 전통놀이 체험들을 발굴하여 활성화 시킨다면, 오늘날도 산교육의 장으로 틀림 없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양향교



대성전



향교전경

동명서원



충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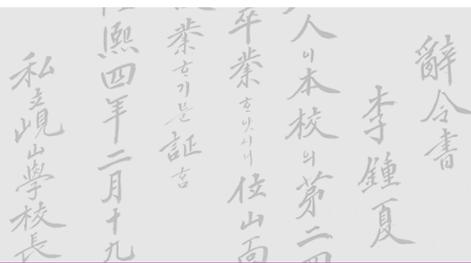
서원전경

참고문헌

- 『양주지』 양양군 양주지편찬위원회 1990.10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 강원도 1992. 2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4. 8
 한국문집총간 제2집 근제집
 『양양향교지』 양양향교 1999.
 조인벽 양양문화원 2001.12.

<중요참고자료>

- 양양신학기 관동와주 조제서생집 권1
 양양향교이건기 부사 최상익 1682.
 양양향교중건기 양양향교교장 이종화 1954.
 오세 五世 襄烈公事蹟
 襄烈公墓碑銘 증손서嬭 나주목사 南平文
 동명서원창건기 略 양양부사 趙緯韓 1628.
 서원이건문 후학 성언근 成彦根
 동명서원유허비명 관찰사 조종필, 1899.
 동명서원중건비문 이재서 1981.
 박양자, “오봉서원의 설립배경과 그 유학적 성격”, 『인문학보제15집』, 강릉대 인문과
 학연구소, 1993.
 박양자, “이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 83집』, 퇴계학연구원, 1994.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 『동방학지 8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5.



IV. 기독교

1. 본질(本質)

기독교는 1세기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메시아)로 믿는 종교이다. 원어(原語)는 크리스트티아노스(Christian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기점과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그리스도교를 아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시대와 신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내포한 종교이며, 보편적인 구원의 종교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 아래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순전히 역사적 입장에서 밝히려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자존(自存)하는 신(神)으로서, 그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랑[愛 : agape]’이다. 이 사랑은 하느님의 존재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사랑이다. 하느님은 그 사랑으로서 세상의 창조와 구원 사업을 이룩하는데, 그 사업은 바로 인류의 역사 속에 구현된다.

하느님은 인간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말씀[Logos]이 사람이 되셨다[요한복음 1장 14절]”고 표현하였는데, 이때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본질인 사랑이 세상에 구현되는 원리로서, 이의 육화(肉化)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교를 알려면 가장 특징적인 신관(神觀)인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하느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인간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신으로서, 그 자신이 3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곧 성부(聖父)·성자(聖子)·성령(聖靈)의 3위로서, 이 셋은 각기 독립적인 위격(位格)이면서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3위로서 하나의 하느님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이다.

이같은 삼위일체의 신앙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종교가 곧 기독교인 것이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그의 본질은 역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인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구현하였으며, 그의 사랑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의(敎義)의 핵심이며 본질을 이루는 원리이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1592년) 이후 로마가톨릭 교회와 별개의 교회전통을 갖게 된 개신 기독교(改新 基督教, Protentism)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 여러 교파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교단 몇몇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하겠다.

2. 전래약사(傳來略史)

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전래되기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까지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심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전파라는 순수하고 진정한 의미의 선교 활동으로 보는 것이겠다. 그 뒤 본격적인 개신 기독교의 전래는 1885년을 기점으로 한국 근대사에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元斗尤) : H. G. Underwood] 목사와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목사의 활동으로 선교시대의 문이 열렸다 할 수 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기독교 학당과 배재

학당을 세워 현대의 교육을 시작했고 스크랜턴 부인을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비로소 숭실학당 연희전문 등 신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를 교육사업 의료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고종 24년(1887년) 9월 언더우드와 드디어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를 한 달 뒤인 10월에 아펜젤러가 한국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한국 전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개신교는 수동적인 수용보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수용이라는 점이다.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한국사회에는 상당량의 성경이 유포되었고, 의주·소래[인천에 있는 어항]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개신교 신자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개신교는 서구 열강의 선교사들의 힘입은 바가 크다. 기독교의 수용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개신교가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는 외국 선교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크게 좌우하였다. 특히 토마스 목사의 순교는 한국으로 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오도록 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 개신교는 그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단순한 선교와 종교적 신앙면에 국한하여 뿌리를 내리고 발전했다기보다는 교육과 의료사업이 동반된 기독교의 봉사정신과 연결하여 발전했다는 점이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들의 활동으로 한국사회에 비로소 근대적인 개념의 교육과 의료사업이 시작되었고 개신교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2) 양양지방

강원도 땅은 높고 낮은 산과 그리 넓지도 좁지도 않은 들 그리고 시원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 심성 또한 매우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유(儒), 불(佛), 선(仙) 그리고 토착 신앙까지 펴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뿌리를 내린 곳이다. 한편 자연조건으로 보아 세상의 변화에는 무딘 편이라 하겠으나 한번 받아드린 문화에 대한 보존능력은 상대적으로 강했음을 보여주는 데 양양(襄陽)도 이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보아도 그리 틀리지 않으리라.

〈표4-1〉 양양의 교단별 현황

교 단	교회수	교역자	장 로	교 인			비 고
				계	남	여	
감리교	15	17	30	2,104	847	1,257	
장로교	19	19	13	779	325	454	
성결교	2	2	1	125	57	68	
순복음교	2	1	-	98	45	53	
안식일교	2	2	9	208	80	128	
통일교	1	1	3	90	40	50	
여호와증인	2	-	4	93	-	-	
기도원	2	2	-	8	5	3	
계	45	44	60	3,412	1,399	2,013	

이곳 양양지역에 개신교(감리교회)의 복음이 전래되기는 강화도 조약 체결이후 1879년부터 원산(元山)이 개항(開港)의 장(場)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1892년 개신교의 선교대상의 지역이 된다. 이 때 1900년 원산지역이 선교구역 협정을 통해 미감리회에서 강원도 동남부지역(원주·강릉·삼척·울진) 양양을 포함 선교구역으로 이양 받아서 부터이다. 그해 12월 Robert A. Hadie[한국명 河鯉泳] 선교사가 원산으로 이주해 오게 된다. 교회개척을 위해 강원도 지역을 5번이나 순회하던 중 지경터(철원지방)를 발견하여 뚜렷한 희망을 본 지역이라 보고하게 되며, 1901년 3월 31일 15명에게 세례를 주고 첫 교회공동체를 탄생시킨다. 그 후 1901년 10월 5일 양양에 교회 창립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그때의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해안 영동에 비교적 교회가 일찍 들어서게 되는 까닭은 당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원산에서 배를 타고 대포(大浦)에 기착하게 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하고 최선의 길이였기에 자연히 교회개척과 복음전도를 위해 선교사도 이런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미루어 짐작이 간다. 대포[지금의 대포항]에서 12km 남쪽 군청소재지인 양양에

서 하디 선교사가 1901년 10월 5일 양양읍 성내리 17번지에 위치한 이상엽(李相曄) 소유 기와집(8칸)에서 역사적 창립을 하게 된다. 아무튼 양양감리교회는 강원도 내에서는 현 위치에서 현존하는 교회로서 가장 유서 깊고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임을 겸해 소개해본다. 6·25한국전쟁 이후 많은 교회가 개척 설립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일람은 <표4-1>와 같다.

3. 양양의 교회 역사 및 현황

1) 장로교회

장로교는 국내 개신교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와 가장 많은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파이다. 장로교는 장로에 의해 치리(治理)되는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장로란 명칭상의 교회 장로만 가리키지 않는다. 장로교는 신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독, 목사, 장로를 같은 직책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장로를 가르치고(설교) 치리(治理)하는 장로와 치리(治理)만 하는 장로로 나누는데 전자는 목사이고, 후자가 교회 직제명인 장로이다. 장로교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중시한다.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등의 교회 중직을 임명에 의해 세우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심지어 장로교는 담임목사를 위임할 때도 먼저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들의 위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에는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목사를 청빙(請聘)할 때도 먼저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만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중시한다는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교회정치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게 된 하나의 원인은 어쩌면 이러한 민주적 교회정치가 있는지도 모른다.

양양에 장로교회가 처음 들어선 때는 1953년 3월 1일 손양면 동호리 동상교회, 1956년 8월 13일에는 서면 장승리 철산교회를 각각 창립하였다. 그 이후 양양에는 양양중앙

교회, 양양장로교회, 양양사랑교회 등 읍·면에는 19개 교회가 있는데 교인수는 남신도 325명, 여신도 454명이며 교회별 교인수는 <표4-2>와 같다.

<표4-2> 장로교회 현황

교회명	소재지	대표자	창립일	교역자	장로	교인수		
						계	남	여
양양중앙교회	양양.구교100	김병철	1972.12.10.	1	-	30	15	15
양양장로교회	양양.남문241-14	정대윤	1978. 3.20.	2	10	300	130	170
양양사랑교회	양양.거마141-9	황병구	2006. 4.	1	-	44	20	24
양양소명장로교회	양양.남문16-31	김관용	2006. 6.22.	1	-	16	6	10
서면교회	서.상평185	백주진	1983. 4. 1.	-	-	19	2	17
한남교회	서.용천261	김화선	1988.10.28.	1	-	9	1	8
수리교회	서.수216-1	강형선	1997. 3.20.	1	-	15	5	10
해오름교회	서.내현75	오영관	1998.10. 1.	1	-	28	14	14
철산교회	서.장승280	김성덕	1956. 8.13.	1	1	20	8	12
오색교회	서.오색424-6	박해민	1962. 8.	1	1	40	20	20
등신교회	서.오색308	김동훈	1992. 4.26.	1	-	25	13	12
평화교회	서.오색	고기순	2006. 4.16.	1	-	60	30	30
송전교회	손양.송전36	김주석	1987.	1	-	20	8	12
동상교회	손양.동호2-2	양근배	1953. 3. 1.	1	-	50	20	30
남애영광교회	현남.남애469-6	유종승	1997.12.31.	1	1	34	10	24
해광교회	현남.동산203-30	문덕주	2000.10.23.	1	-	11	4	7
인구장로교회	현남.인구25-1	유경술	1987.12. 1.	1	-	25	8	17
양현교회	현남.전포매293	윤사랑	2000.10.30.	1	-	8	3	5
천복교회	강현상복546-2	이환용	1984.10. 7.	1	-	25	8	17
계	19교회			19	13	779	325	454

2) 감리교회

감리교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파로서 장로교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감리교의 신학적, 교리적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구원, ② 완전한 성화(聖化), ③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도의 교제, ④ 그리스도

인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 라 한다. 감리교는 장로교와 달리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교리를 말한다. 이처럼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 그리고 감리교는 사회봉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로교보다 사회 현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교보다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감리교는 감독제의 교회 직제를 채택하고 있다. 감독제는 감독이 다스리는 제도로서 그 체계가 계급적이다. 교회사적인 의미로 감독제는 주교, 사제, 부제로 구성된 교회의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 로마 가톨릭교와 성공회가 바로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다. 개신교에서는 일부 몇몇 교파만 감독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감리교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감리교는 다른 개신교와는 달리 목회자 그룹이 계급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며, 총회장을 감독회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표4-3〉 감리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립일	교역자	장로	교인수		
						계	남	여
양양교회	양양.성내17	김한구	1901.10. 5.	2	12	1,030	450	580
낙산교회	양양.조산471-3	최규현	1973. 3.18.	1	1	60	20	40
양양중앙교회	양양.남문48-20	전인석	2002. 4.18.	1	-	33	18	15
상운수표교회	손양.상운367-3	이강석	1987.11.22.	1	1	12	6	6
손양교회	손양.하왕도323	유진국	1997.12.29.	1	-	60	25	35
어성전교회	현북.어성전463	김정환	1956. 3.23.	2	4	100	42	58
하조대교회	현북.하광정137	김승울	1975.10.31.	1	-	120	40	80
장리교회	현북.장리165-12	홍기송	1953. 5.23.	1	2	40	15	25
광정교회	현북.상광정527	박재성	1910. 9.24.	1	-	45	20	25
현남중앙교회	현남.인구41-11	김해수	1910. 3.10.	1	2	150	50	100
남애교회	현남.남애359-1	김진	1979. 1. 7.	1	2	100	40	60
현남제일교회	현남.입암250	남기훈	1983. 8. 3.	1	-	22	7	15
물치교회	강현.물치155	김명국	1908. 9.23.	1	3	250	80	170
한서교회	강현.강선600	엄영삼	1985.11.18.	1	3	80	34	46
참빛교회(예·감)	현남.북분247	전만섭	1999. 5.14.	1	-	2	-	2
계	15교회			17	30	2,104	847	1,257

양양지방에는 1901년 10월 5일에 양양읍 성내리에 양양교회를 가장 먼저 창설하였다. 그 이후 1908년 9월에 강현면 물치리에 물치교회를, 한일합병 당시인 1910년 3월과 9월에는 현남중앙교회와 광정교회를 각각 창립하였다. 현재 양양지방에는 15개 교회가 있는데 교인수는 남신도 847명, 여신도 1,257명이며 교회별 자세한 현황은 <표 4-3>과 같다.

3) 침례교회

침례교는 세례를 행할 때 물을 뿌리거나 부어서 하지 않고 전신을 물속에 잠기게 해서 베풀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침례교는 교리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다른 개신교와 같지만 교회 조직이나 치리 형태에 있어서는 개체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회중주의 성격이 강하다. 쉽게 설명하면 로마 가톨릭교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개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제’에 가깝다고 하겠다.

침례교는 특징적인 신학노선이 없다고 할 만큼 신학적인 바탕이 약하다고 한다. 즉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추세이고 침례교만의 신학적 토대가 약하다는 것이다.

4) 성결교회

성결교는 다른 교파에 비해 역사가 짧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나 감리교는 미국에서 전래되었지만 성결교는 순수하게 한국인의 선교 활동으로 조직되었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교회사에 의하면 한국 성결교는 1907년에 도쿄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김상문·정빈이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성결교는 선교단체에서 출발하여 한국인에 의한 포교를 통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생 교단’이라고도 한다.

성결교는 그 명칭이 주는 의미처럼 개인의 성결과 성화사상을 중시한다. 양양의 성결교회는 1981년도에 양양읍 연창리에, 아름다운교회는 2006년 4월에 양양읍 서문리에 각각 창립을 하였다. 총 2개 교회에 교인수는 125명이다.

〈표4-4〉 성결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립일	교역자	장로	교인수		
						계	남	여
양양성결교회	양양.연창318-3	박충우	1981.	1	-	50	20	30
아름다운교회	양양.서문186-6	신동철	2006.4.27.	1	1	75	37	38
계	2교회		19	2	1	125	57	68

5) 순복음교회(오순절 교단)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대표로 하는 순복음교회의 정식 교단 명칭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이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19세기에 미국에서 형성된 근본주의적 개신교파인 ‘오순절교회’에 속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순절교회의 특성은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 등의 성령의 은사를 무척 강조한다. 순복음교회도 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령체험을 무척 중시한다. 장로교나 감리교의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을 그다지 비중 있게 취급하지 않지만 오순절교회는 성령론을 무척 비중 있게 다룬다. 그래서 오순절 계열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에 대한 강의가 많다고 하겠다.

양양지방에 순복음교회는 1986년 11월에 손양면 우암리에 우암교회를, 38교회는 서면 영덕리에 1990년 11월에 각각 창립하였는데 교인수는 모두 98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4-5〉와 같다.

〈표4-5〉 순복음 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립일	교역자	장로	교인수		
						계	남	여
38교회	서.영덕424-1	-	1990.11.17.	-	-	68	33	35
우암교회	손양.우암199	김재호	1986.11.	1	-	30	12	18
계	2교회			1	-	98	45	53

4. 기타(其他)

1) 제7일안식일재림교회

‘안식교’로 알려진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s)는 1861년 미국 미시간 주 베틀클릭에서 시작되어, 한 세기반 만에 전 세계 1천 6백만 명의 신자들과, 2천만 명의 안식일학교 학생들(2008년)로 구성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복음주의 개신교이다. UN이 집계한 세계 230개국 중 201개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교세가 매 12년마다 두 배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식교의 기원은 19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는 성경연구를 통해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에는 약 200명 가량의 개신교 목사들과 5만여 명의 평신도들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개신교회에 10여만 명의 새 신자가 증가했다. 1844년 이후 재림신자들은 복음주의 재림교회(Evangelical Adventist), 재림기독교회(Advent Christians),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등으로 나누어졌다.

안식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실제적 믿음으로 받으며, 구원받은 결과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믿는다. 안식교는 제칠일 곧 지금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원히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법이라고 믿는다. 또한 성경의 교훈에 따라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부정한 음식 등을 삼가야 한다고 믿고, 뉴스타트로 알려진 8가지 건강법칙을 실천한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 6월, 미국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났다 서류미비로 귀국하던 손흥조와 하와이 개발공사 계몽원이었던 임기반[본명 해주, 독립운동가]에 의해 전래되었다. 그 해 8월과 9월, 임기반의 초청을 받은 일본 구니아 목사와 일본 선교부 책임자인 F. W. 필드(Field) 목사가 내한함으로 조직적 선교가 시작되었다. 1907년 미미 샤펜버그(Mimi scharffenburg) 선교사에 의해 순안에 소학교와 사역자 양성학교를 세운 것이 현재 30개의 삼육학교로 성장했고, 1908년에 R. 럿셀(Riley Russel) 의사가 순안

에 세운 진료소는 현재 5개의 병원(전 위생병원)으로 발전되었으며, 1957년에는 병원장 루(Rue)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 위촉되기도 했다. 1909년 순안에 있던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였고, 교세가 증가함에 따라 1917년 개척지(Mission)에서 대회(Conference)로, 1919년에는 연합회(Union Conference)로 승격되었다.

1998년 현재, 한국 내 교회수 906개, 신도수 209,883명이 있고, 51개의 외국어학원, 출판소, 식품공장, 자연탐사과학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수십 개의 복지시설을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군에는 양양읍 남문1리에 양양교회, 연창리에 양양제일교회가 있다. 양양교회는 1938년 8월에 처음 창립하였고, 양양제일교회는 1995년 5월에 양양읍 연창리에 각각 창립하였는데 교인수는 모두 208명이며 자세한 현황은 <표4-6>과 같다.

<표4-6> 제7일안식일재림교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립일	교역자	장로	교인수		
						계	남	여
양양교회	양양.남문108	이종식	1938. 8.	1	5	105	45	60
양양제일교회	양양.연창140	권철순	1995. 5.31.	1	4	103	35	68
계	2교회			2	9	208	80	128

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

통일교회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약칭이다. 통일교회는 1954년 5월 1일 문선명에 의해 서울에서 창립되었다. 그는 1920년 1월 6일(음)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에서 태어나 16세가 되던 해인 1935년 부활절에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류를 불행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달라는 계시에 따라 선교를 시작했다고 한다. 교회의 목적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고, 둘째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써 통일하여 하나님주의에 의한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여 완성된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승공이념을 확립함으로써 이 땅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근멸하며, 다섯

째는 통일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와 과학, 종교와 사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새로운 통일문화를 창조하며, 여섯째는 이 땅위에 하나님의 주위에 의한 하나님나라 건설이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선교활동을 비롯하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과 국제 승공운동으로 펼쳐지는 통일세계운동, 교회일치운동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예술, 학술활동도 병행하고 있겠다. 통일교의 현 교세는 한국에 약 100개 교회와 50만여 명의 신도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한국 신자를 포함하여 약 400만 명의 신도가 있다. 양양에는 통일교회가 한 교회뿐이며 1970년에 창립하였으며 남·여 교인 수는 90명이고, 자세한 내용은〈표4-7〉과 같다.

〈표4-7〉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양양통일교회	양양. 남문 187	오남주	1970.	1	3	90	40	50
계	1교회			1	3	90	40	50

3)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신흥 종파로서 1872년 찰스 러셀(C. Russell)이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설립한 국제성서연구회가 그 기원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은 1931년 조지프 리더퍼드(J. Rutherford)가 러셀의 뒤를 이으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러셀의 후임자인 네이션노어는 뉴욕 사우스 랜싱에 위치한 타워 질르아드 성서학교를 세워 선교사와 지도자를 양성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과정을 두었다. 그후 1977년 프레더릭 프렌츠가 뒤를 이었고, 1992년 밀턴 헤첼이 후임으로 선임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교단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으며, 모든 세속의 권력과 모임들이 무의식 중에 사탄을 돕는 동맹자라고 간주하여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이든 국기에 대한 경례나 병역 의무 수행을 거부하고, 공공 선거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신한적인 면에서 그들은 예수그리스도가 신정국가의 하느님의 대리인이

며,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

왕국회관(王國會館)이라고 부르는 교회당에서 집회를 가지며 간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서적인 근거로 수혈을 거부한다. 회중들은 정해진 구역이 있으며, 증인마다 전도할 이웃들이 정해져 있다. 그리하여 호별 방문, 성서연구, 도서와 잡지 보급 상황을 기록하여 매일 보고한다. 대표적인 출판물인 격주간 발행지(파수대 : The Watchtower)와 깨어나 : Awake!)는 1990년대 초에 112개 언어로 1,500만 부 이상 보급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주도하는 단체는 1884년 러셀이 세운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국제성서연구회이다.

1992년 현재 99개의 지부 아래 229개 국가와 지역에 447만여 명의 증인들이 있으며, 한국에는 1912년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 R.R. 홀리스터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양양왕국회관의 창립년대는 알 수 없으나 양양읍 연창2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남왕국회관은 1994년 10월에 현남 광진리에 창설하였는데 교인수는 모두 93명이다.

〈표4-8〉 여호와 증인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립일	교역자	장로	교인수		
						계	남	여
양양왕국회관	양양.구교204-7	오도웅	2003. 9. 8.	-	7	46	-	-
현남왕국회관	현남.광진144-3	김봉기	1994.10.18.	-	4	29	9	20
계		2회관	-	11	75	-	-	

〈표4-9〉 양양의 기도원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립일	교역자	장로	교인수		
						계	남	여
시온산기도원	손양.하양혈85	권영준	1989.	1	-	4	3	1
양양금식기도원	손양.하양혈209	이춘석	2006.	1	-	4	2	2
계				2	-	8	5	3



V. 천주교

1. 천주교의 전래와 박해

천주교는 16세기 말엽 중국에 전래되었고, 17세기에는 북경을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천주교가 서학(西學)이라 하여 서양문물의 하나로 간주되었을 뿐 신앙을 위한 종교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은 불교의 교리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극렬히 배척당하였다.

학문적 대상이던 천주교가 종교신앙으로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의 영조 말엽부터였다. 당시 정치·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실학자들의 일부가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운동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천주교가 그 근본에 있어서 유교의 우주관·사회관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유교의 인륜과 가부장적 가족주의, 신분계급주의를 배격함으로써 조선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조 7년(1783년)에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에서 서양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는 신앙운동이 더욱 활발해져 이벽(李穡)·이가환(李家煥)을 비롯하여 정약전·정약중·정약용 형제, 권철신(權哲身)·권일신(權日身) 형제 등 남인 학자와 김범우(金範禹) 등 중인, 그리고 상민·부녀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확산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점차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자 이것이 현실세계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유교윤리를 혼란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조 9년(1785년)에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여 금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정조 15년(1791년) 전라도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 윤지충(尹持忠)이 모상(母喪)을 당하여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행한 사

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 정부는 천주교 탄압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정조대에는 아직 천주교를 불교나 도교와 같은 황당한 류의 학문이라 여겨 유교정치에 힘쓰면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여 극단적인 탄압을 가하지는 않았다.

정조의 뒤를 이어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순조 1년(1801년)의 신유사옥(辛酉邪獄)이다. 이 때 이승훈·이가환·정약중·주문모 등 300여 명의 신자가 처형되고 정약전·정약용 등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였다. 이 천주교 박해는 내부적으로는 정조대에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노론 벽파(僻派)가 남인·소론 및 노론 시파(時派)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한편에서는 홍경래(洪景來)의 난 등 각종 민란으로 표현되는 이 시기의 농민항쟁에 대처하여 공포정치를 감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천주교를 앞세운 서양세력의 침투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무렵 천주교신자 황사영(黃嗣永)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에서의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아 달라는 서신을 보내려다 발각된 소위 황사영백서(帛書)사건이 일어났는데, 천주교가 외세에 의존하려 했던 행위가 조선정부를 더욱 자극시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보다 가혹해지게 되었다.¹⁾

2. 양양천주교회의 설립과 발전

강원도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는 기록상 정확히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대원군 박해시대(병인박해)에 프랑스 선교사 뮈텔신부[Mutel, 한국이름 민덕효; 閔德孝]의 일기를 토대로 영동지역에 교우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전에 의하면, 양양지방에 천주교 신자가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충청북도 제천의 배론 교우촌(현 충북 제천시 봉학면 구학리)에 거주하던 이베드로(성명 미상)란 사람이 병인박해(丙寅迫害)²⁾ 때 모친이 순교한 뒤 가족과 함께 양양면 화일리 범뱅이골³⁾로 피신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후 이베드로의 아우 이바오로와 강릉 삼정평(三井坪, 강릉시 구정면 어천리)에서 살던 김덕수, 그리고 그의 숙부가 범뱅이골로 이주하여 옹기점을 운영하면

서 새로운 교우촌이 형성⁴⁾되었는데 이것이 양양지방 천주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거듭되자 전라남도 강진, 경기도 양평 등지로 나가 옹기 만드는 기술을 익혀 돌아와 화일리 본동, 강현면 북골(현 상북리), 싸리재(현 속초시 도문동), 장승골(서면 장승리), 한재(현북면 대치리), 명지골(현북면 명지리), 장두골(현남면 견불리) 등지에서 옹기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1887년과 1889년에는 각각 원산과 안변에 성당이 설립되면서 원산성당의 초대 드게트[Deguette, 최동진 ; 崔東鎭]신부와 뮈텔 신부가 영동지역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다. 뮈텔신부는 1882~1883년에 영동지방에 8개의 공소를 설립하였는데, 이 때 양양 화일리에 세워진 쉬일공소(신자수 47명)가 양양지방 최초의 공소이다. 또한 1922년 양양성당 설립 당시인 1921년부터 1922년에는 918명의 교우들로 설립되었는데 1921년 4월 17일(음력)에 상도문천주당으로 시작되었으나 남으로는 강릉에서 북으로는 통천까지 사목활동을 하기에는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 초대 최문식[崔文植, 베드로 : 1881~1952년] 신부께서 상도문리의 신자들이 성당 이전에 완강히 반대 하였지만 당시 7년간의 폐 가옥으로 남아 있던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입하여 현 양양읍 서문리 282번지에 성당을 옮겨 신축 1922년 12월 24일 축복식을 거행하므로 영동지구의 최초 성당인 양양천주당이 설립되어 이 지역의 교우들을 돌보았으며 공소 수는 모두 15개소에 신자 수는 918명으로 기록 되어 있다.⁵⁾



서문리성당(1922.12.22.~1940.)



성내리성당(1940. 2.28.~1950.)

〈표5-1〉 양양천주당 설립당시 관할공소 및 신자현황

공 소	소 재 지	신 자 수
학야골	양양군 土成面 鶴也里(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07명
싸리재	양양군 道川面 上道門里(현 속초시 도문동)	200명
장 승	양양군 西面 長承里(현 양양군 서면 장승리)	26명
거마리	양양군 襄陽面 車馬里(현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	58명
삽 존	양양군 巽陽面 插存里(현 양양군 손양면 삽존리)	42명
명지골	양양군 縣北面 明池里(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53명
외 면	고성군 水洞面 外沔里(현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16명
산 두	고성군 梧垞面 山北里(현 고성군 거진읍 산북리)	102명
가마골	고성군 杆城面 廣山里(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58명
보리골	통천군 鶴一面 下花里(현 북한지역)	25명
견 불	양양군 縣南面 見佛里(현 양양군 현남면 견불리)	28명
제비골	강릉군 邱井面 濟飛里(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19명
금광리	강릉군 邱井面 金光里(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149명
오일골	강릉군 玉溪面 南陽里(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20명
느 랫	정선군 臨溪面 盤川里(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11명
계	15개소	918명

양양성당 설립이후의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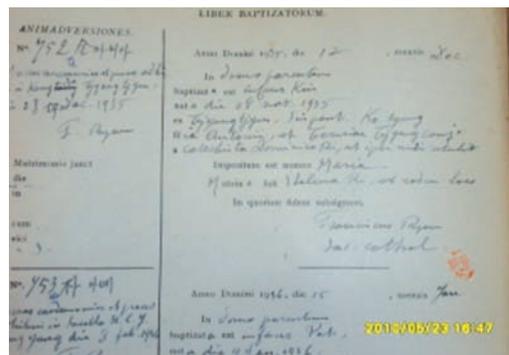
- 1921. 4.17.(음) 영동지역 최초로 상도문 천주당 설립, 초대 최문식(베드로) 신부 파견
- 1922. 2.17. 상도문에서 서문리 282번지로 성당 이전
- 1922.12.22. 서문리 천주당(양양성당) 축복식
- 1927. 제2대 유재옥(방지거) 신부 부임
- 1930. 라리보 주교 양양성당 방문
- 1935. 도문공소 강당 신축(26평 8칸) 준공
- 1936. 병자년 수해로 성당이 침수되어 성당집기 등을 2일 동안 안전지대로 보관
- 1937. 8. 양양읍 성내리 8번지 1,140평 부지 매입
- 1939. 6.24. 명지골출신 김교명(분도)신부 사제 서품
- 1939. 7.25. 제3대 이광재(디모테오)신부 부임(풍수원본당에서)

- 1940. 4.24. 현재의 성내리 8번지에 성당신축 축복식(춘천지목구 퀴란신부 집전)
- 1950.10. 8. 이광재신부 원산 와우동 방공호속에서 인민군에 의해 피살, 순교
- 1951. 1. 4. 1·4후퇴 당시 양양성당 전소
- 1954.11.30. 제4대 실리번(徐 토마. Thomas Sullivan) 신부 부임, 양양성당 신축 축복식 미사(주보 : 성녀 소화 데레사성당, 170명 세례성사)
- 1958. 1.20. 영동지역(고성, 속초, 양양, 강릉) 최초 레지오 마리아 성모칠고꾸리아 설립
- 1958.10. 서토마스 설리반신부 미국 은인들의 도움 받아 수녀원 신축 (60평 2층 양옥)
- 1959.10. 현북공소 강당 신축 축복식 미사
- 1960. 물치공소 강당 신축(물치리 해변가)
- 1966.11. 3. 서토마스 설리반신부 이임, 제5대 힐리(玄 요셉. Patrick Joseph Healy) 신부 부임
- 1968. 9.15. 힐리신부 이임 제6대 스미스(千萬福. Patrick Christopher Smith)신부 부임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 수녀회 철수
- 1972. 5. 7. 스미스신부 이임 제7대 머레이(咸 브렌다노. Brendan J. Murray)신부 부임
- 1973. 양양성당 내에 신자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 설립 (초대이사장 : 김종길토마, 회원 약 60여 명)
- 1973.12. 7. 양양성당 출신 김택신(요셉)신부 사제서품(손양면 남양리 출생)
- 1976. 4.17. 양양성당 제8대 주임신부로 머피(순 고르넬리오, Cornelius Patrick Murphy)신부 부임
- 1977. 전 신부 이임, 제9대 올랭시(林 요한. Sean Prionsias O'Loingsigh)신부 부임
- 1981. 4.23. 올랭시신부 이임 제10대 스미스(千 말라키. Malachy Smith)신부 부임 양양본당 설립 60주년 기념미사 기획 추진
- 1983.10. 1. 이광재신부 순교각 제막 미사
- 1984. 5.29. 천 말라키신부 이임, 제11대 송병철(야고보)신부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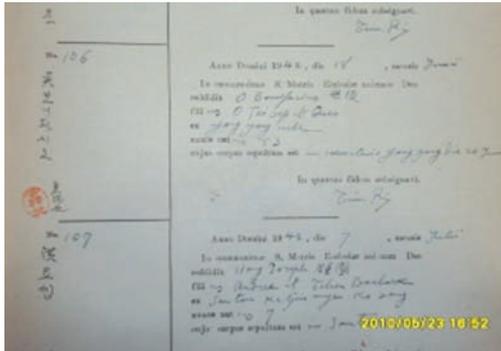
- 1988. 4. 6. 양양성당 수녀원 신축 축복 미사
(부산 성 베네딕도수녀회 소속 최진현페트라, 박스바니아수녀 부임)
- 1990. 2.25. 송병철신부 이임, 제12대 김정식(토마)신부 부임
- 1994. 6. 5. 김정식신부 이임, 제13대 이태혁(요아킴)신부 부임
- 1994. 7. 5. 양양성당 출신 김길상(다니엘)신부 사제 서품
- 1996. 현북공소 가정간호의 집 축성식(장익주교 집전)
- 1998. 2. 이태혁신부 이임, 제14대 이동주(시몬)신부 부임
- 1999. 3.22. 디모테오어린이집 신축 축성식(장익주교 집전)
- 2000. 1. 1. 대희년 순례지성당으로 양양성당 지정
- 2000.10. 8. 이광재신부 순교 50주기 추모미사(양양초등학교 운동장) 영북지역 1,000여 명 신자 참석
- 2001. 1.12. 양양성당 출신 고봉연(요셉)신부 사제 서품
- 2001. 5.20. 본당신자 100여 명 38도보순례
- 2002. 9. 제15대 정원일(가브리엘)신부 부임
- 2004. 9. 제16대 김명식(가브리엘)신부 부임
- 2006. 3. 최효규(라우렌시오)신부 부임
- 2006. 9. 제17대 엄기주(요한 크리소스토모)신부 부임
- 2006.12. 7. 양양본당 출신 김택신(요셉)신부 퇴임미사(춘천 죽림동성당)
- 2009. 9.24. 제18대 오상철(토마스 아퀴나스)신부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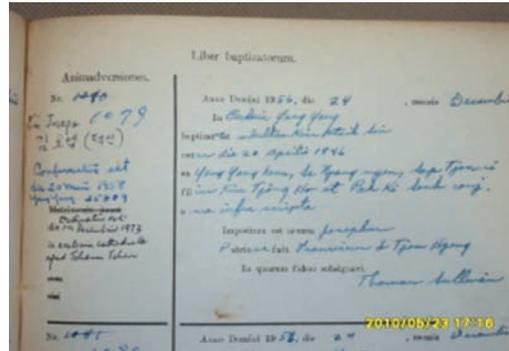
초대 최문식 베드로(충청도 공주군 출신)신부가 1925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2대 유재욱 프란시스코(경기도 화성군 출신)신부가 1935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3대 이광재 디모테오(강원도 이천군 출신)신부가 1942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4대 설리반 徐 토마(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출신)신부가 1956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3. 양양천주교회의 회고와 전망

양양천주교회 90년의 역사는 영동지역 교회사라 할 수 있고, 적어도 성당설립 초기부터 중반부라 할 수 있는 1950년대 초까지는 바로 영북지역 교회사라 할 수 있다. 영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복음전파나 교회설립이 매우 늦은 지역이다. 지형적인 특성이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대의 박해인 동시에 마지막인 병인박해 당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교우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천주교의 불모지였던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 이후로 천주교의 전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많은 지역에 교우촌이 생겨나고 이 교우촌을 바탕으로 공소가 설립되었으나, 본당이 설립될 때까지는 반세기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무엇보다 국내에는 사제들이 부족하여 이 지역을 전담할 사제를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경도 등지에서 1년에 두 번씩 순방하여 잠깐 성사를 집행하고 떠나는 선교사들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지역 신자들은 초대 교회 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중국 베이징의 주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시 영동지역을 관장하였던 사제와 주교들에게 끈질기게 본당 설정과 사제 파견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영동지역 신자들이 본당을 이룰 만큼 늘어난 데다 새 신부들이 여러 명 탄생되자 1921년 이 지역에도 본당이 설정되고, 사제가 연이어 두 명이나 파견되었다. 사제

들이 파견되면서 본당 신자들은 성사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본당의 성당과 공소의 강당을 건립하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의 영동지역 신자들은 자신의 분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선교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본당이 설정되고 20년이 지나면서 일제 말기의 전시 체제와 광복 후의 사상적 혼란으로 양양본당은 연이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다. 광복과 함께 1945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본당이 38° 선 이북에 놓이게 되어 성당건물을 소련군과 인민군에게 빼앗겨 적산가옥으로 쫓겨났고, 이마저도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전소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본당 제3대 이광재 신부는 북한교회 사목을 위해 선교활동을 하던중 체포되어 순교하였으며, 제2대 주임신부였던 유재옥신부와 본당 출신 김교명 신부도 순교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후 양양본당은 전후(戰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군중사제의 도움으로 간헐적으로 성사와 미사의 혜택을 받으며 겨우 유지하게 되었다.

1954년에 성 골롬바노 외방선교회와 미군들의 도움으로 양양성당이 재건되고, 설리번신부가 제4대 주임신

부로 부임하면서 성당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설리번 신부는 양양 지역의 구제 사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설리번 신부는 본인의 고국인 미국의 친척, 친구, 사회단체 등에게 한국전쟁 이후의 어려운 생활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설리번 신부의 부탁을 받은 이들이 양곡, 의류, 유제품 등의 구호물품을 많이 보내와 이 구호물품들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자 각 면에 배정하여 면사무소 창고마다 물건들이 가득 찼다. 당시 우리나라에 보내진 구제 물품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궁핍한 일반인들에게도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구호사업이라



이광재 (디모테오)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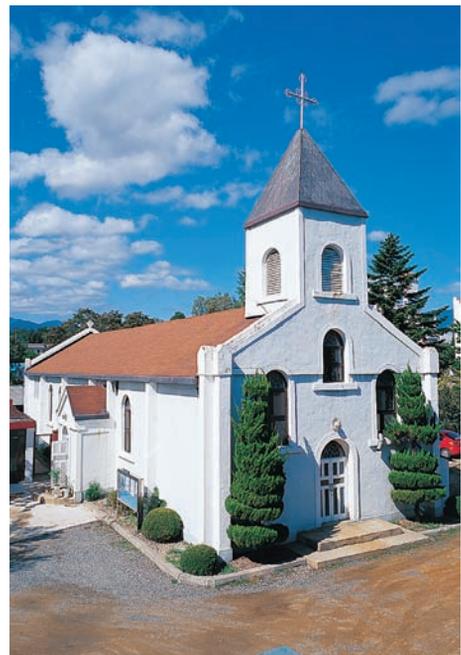
양양성당 축성기념(1954.11.30.)

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설리번 신부는 당시 양양중학교에 진학을 포기한 현북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소 신자들과 협의하여 중학교 교재를 구입하여 공소건물(현북면 상광정리 542-1)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2년 춘천교구와 성 골롬바노 외방 선교회 보조금, 설리번신부의 개인자금 등으로 교실 4칸과 교무실 및 기숙사 각1동을 건립하여 현북농업전수학원을 설립 1963년 2월 40명의 남녀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196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67년 10월 28일 교육부(당시 문교부)로부터 공립학교로 인가(3학급)되어 1968년 3월 5일에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늘의 현북중학교로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설리번 신부가 양양을 떠난 후부터는 다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농어촌 붕괴, 도시빈민 양산 등과 함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농어촌 본당들이 쇠락해지는 우리나라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휩싸이게 되었다.

양양본당을 한국인 사제들이 맡으면서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사제와 신자 모두가 불편하였던 문제들이 해소되자, 사제와 신자들은 성당 증축이나 어린이집 건립 등 외형적인 사업 외에도 자신의 성화와 복음화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2000년 대희년과 함께 이광재 사제 순교 50주년과 본당설립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화해와 용서와 나눔의 복음정신과 이광재 신부의 순교정신을 본당 신자들 모두가 생활화함은 물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성화와 지역 복음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⁶⁾

양양본당은 교구 사목방침에 따라 복음화에 총력하여 신자들의 기본적인 기도 자세 확립과 양양성당 성지화, 이광재 신부 유해 모셔오기, 성당주변 정비, 38도보순례길 정



현재의 양양성당

비 및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하여 양양성당 성지회를 통한 38° 선 도보순례길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례객 및 성직자, 수도자가 머무를 수 있는 회관 건립과 본당 설립 100주년(2021년)을 향한 기본계획수립, 이광재 신부 순교100주년(2050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영동 지역 모본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양양천주교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양양본당은 양양군 1읍 4면에 94개리를 관할하며 1,000여 명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비록 관할구역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신자수 또한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신자 개개인이 자신이 서있는 바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모든 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양양본당은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앞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참된 본당의 전형으로 발전할 것이다.⁷⁾

집필 : 전유길

각주

- 1)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2, 353~354쪽.
- 2) 고종 3년(1866년)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규모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
- 3) 지금의 양양읍 화일리에 있는 자연지명으로 일명 '범방굴'이라고도 하며, 신배나무굴 북쪽에 있다.
- 4)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양양본당 80년사』, 2001, 기쁜소식, 39쪽.
- 5)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 42쪽, 66쪽, 70쪽.
- 6)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 268~269쪽.
- 7)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 268~269쪽.

참고문헌

양주지편찬위원회, 1990, 『양주지』, 강원일보사 출판국.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2001, 『양양본당 80년사』, 기쁜소식.
 변태섭, 2002, 『한국사통론』, 삼영사.